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회재 박광옥의 학문과 실천, 그리고 공공성의 현대적 의미



2026. 8. 25.^화 9:30-17:30

서빛마루문예회관

주최·주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한국학호남진흥원

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음성박씨 정승공파 종친회 벽진서원 보존회



CONTENTS

진행 순서	7
성독 낭시	11
[기조강연]	
김덕진 호남 사림 속 회재 박광옥의 위상과 역할	19
[주제발표]	
박명희 회재 박광옥 한시에 나타난 교유의 형상화와 그 의미	37
나영훈 회재 박광옥의 관직 생활과 인적 네트워크	67
박학래 회재 박광옥의 의리 정신과 그 실천	89
[토론문]	
박종우 「회재 박광옥 한시에 나타난 교유의 형상화와 그 의미」에 대한 토론문	111
정수환 「회재 박광옥의 관직 생활과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토론문	113
안동교 「회재 박광옥의 의리 정신과 그 실천」에 대한 토론문	117
이승용 주제 발표에 대한 전체 토론문	121

진행순서

구분	시간	세 부 내 용	비 고
고유제	09:00~09:30	[고유제] 헌화 및 분향	벽진서원장
1부 개회			사회 : 윤지현(아나운서)
	09:30~10:00	[참석자등록] 자료집 배부, 전시 부스 관람	
	10:00~10:10	[영상상영] 기념 영상 상영	
	10:10~10:25	[문화행사①] 국악 공연 - 김산옥	
	10:25~10:45	[개회식] 개회선언, 내빈 소개	
	10:45~11:10	[봉정식] 회재집 개역 봉정식, 기념촬영	
	11:10~11:15	장내정돈	
2부 문화 행사	11:15~11:45	[문화행사②] 성독 및 낭시	
	11:45~13:30	점심시간 및 휴식	
	13:30~13:45	[문화행사③] 퓨전 국악 공연	
	13:45~13:50	장내정돈	
3부 학술 대회			사회 : 백옥연(광산구청)
	13:50~14:30	[기조강연] 호남 사림 속 회재 박광옥의 위상과 역할 김덕진(광주교육대학교)	
	14:30~14:40	장내정돈	
	14:40~15:10	[주제①] 회재 박광옥 한시에 나타난 교유의 형상화와 그 의미 박명희(전남대학교)	
	15:10~15:40	[주제②] 회재 박광옥의 관직 생활과 인적 네트워크 나영훈(국립목포대학교)	
	15:40~16:10	[주제③] 회재 박광옥의 의리 정신과 그 실천 박학래(국립군산대학교)	
	16:10~16:30	장내정돈	
	16:30~17:30	[종합토론] - 토론자 : 박종우(고려대학교) 정수환(국립금오공과대학교) 안동교(한국학호남진흥원) 이승용(국립공주대학교)	좌장 : 김경호(전남대학교)
	17:30~17:40	폐회	

■ 부대행사: 전시·체험 부스(서빛마루문예회관) / 회재 선생 탄생 500주년 주간 운영(서구청 로비)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회재 박광옥의 학문과 실천, 그리고 공공성의 현대적 의미



[문화행사②]

성독 및 낭시



□ 성독

四字小學(사자소학) - 송학초등학교

1. 父生我身(부생아신)하시고 母鞠我身(모국아신)이로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낳아 주시고, 나를 길러 주셨다.
2. 腹以懷我(복이회아)하시고 乳以哺我(유이포아)로다.
어머니께서는 배로 나를 품어 주시고, 젖으로 나를 먹여 주셨다.

3. 以衣溫我(이의온아)하시고 以食飽我(이식포아)로다.
옷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음식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셨다.
4. 恩高如天(은고여천)하시고 德厚似地(덕후사지)로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이 높으시고, 덕은 땅과 같이 두터우시다.

5. 爲人子者(위인자자)가 曷不爲孝(갈불위효)리오.
사람의 자식 된 자가 어찌 효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6. 慾報其恩(욕보기은)인댄 昊天罔極(호천망극)이로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하늘과 같이 끝이 없구나.

7. 晨必先起(신표선기)하여 必盥必漱(필관필수)하라.
새벽에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질 하며
8. 昏定晨省(혼정신성)하고 冬溫夏凊(동온하청)하라.
저녁에는 잠자리를 살피고, 새벽에는 문안을 여쭙보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려라.

9. 父母有命(부모유명)어시든 俯首敬聽(부수경청)하라.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머리 숙여 공손하게 듣도록 하라.
10. 坐命坐聽(좌명좌청)하고 立命立聽(입명입청)하라.
앉아서 말씀하시면 앉아서 듣고, 서서 말씀하시면 서서 들어라.

11. 父母出入(부모출입)이어시든 每必起立(매필기립)하라.
부모님께서 나가고 들어오실 때는, 그때마다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라.
12. 父母衣服(부모의복)을 勿踰勿踐(물유물천)하라.
부모님의 옷을, 넘어 다니지 말고 밟지 말라.

13. 父母有病(부모유병)이어시든 憂而謀療(우이모료)하라.
부모님께서 아프시면 근심하며 병환을 고치도록 힘써라.
14. 對案不食(대안불식)이어시든 思得良饌(사득량찬)하라.
부모님께서 밥상을 대하고도 잡수시지 않으면, 좋은 음식을 마련해 드릴 것을 생각하라.

15. 出必告之(출필곡지)하고 返必拜謁(반필배알)하라.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행선지를 말씀드리고, 돌아와서도 반드시 인사하고 알려드려야 한다.
16. 慎勿遠遊(신물원유)하고 遊必有方(유필유방)하라.
삼가 먼 곳에 가지 말고, 놀더라도 반드시 있는 곳을 아시도록 해야 한다.

17. 出入門戶(출입문호)어든 開閉必恭(개폐필궁)하라.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열고 닫기를 반드시 공손하게 하라.
18. 勿立門中(물립문중)하고 勿坐房中(물좌방중)하라.
문 한가운데 서지 말고, 방 한가운데 앉지 말라.

□ 낭시

성절사 서장관으로 연경에 가는 경원을 전송하며 제봉

奉送景瑗以聖節使書狀官如京【鰲峯】

조서를 받들어 천리 황성¹⁾에 들어가게 되었건만
일상과 고난을 그대처럼 한결같이 여기는 이 드무네
연경 시내의 서릿바람은 나그네 귀밑머리 쇠게 하고
계문²⁾의 산재한 안개는 길 가는 이의 옷을 적시리라
맑은 바람 부는 관탑³⁾엔 향기가 여전히 남았고
해 지는 금대⁴⁾에는 지난날의 자취 있지 않네
스스로 부끄럽도다. 내가 헛된 안목 축적하여
한평생 우물 안 개구리로 큰 뜻에 어긋났음을

御書千里入皇畿
夷險如君一視稀
燕市風霜凋客鬢
薊門烟雨濕征衣
清風管榻留芳在
落日金臺往事非
自愧吾人虛畜眼
半生蛙井壯心違

연경으로 향해 가는 박경원을 전송하며⁵⁾ 오봉 김제민 사효

送朴景瑗赴燕【鰲峯 金齊閔 士孝】

천자 뵈러 말 타고 서쪽으로 재촉해 향하는데
의려산⁶⁾ 감싸고 있는 길에는 푸르름이 넘치네
관문 내린 비 연경의 석양에 서늘함을 자아내고
오랑캐 피리 계성⁷⁾ 모퉁이까지 원망을 전하네
화려한 섬돌과 큰 등불은 대낮 같이 밝고

朝天征馬向西催
路繞醫閭碧一堆
關雨生涼燕樹晚
胡笳聲怨薊城隅
瑤階寶炬明如晝

- 1) 황성(皇城) : 원문의 '황기(皇畿)'는 원래 수도에서 관할하는 지역을 뜻하나 여기서는 중국의 황제가 있는 황성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 2) 계문(薊門) : 북경(北京) 덕승문(德勝門)의 서북쪽 지역으로, 춘추전국 시대 연(燕)나라 땅이다. 계구(薊丘)라고도 하며, 지금은 토성관(土城關)이라고 한다.
- 3) 관탑(管榻) : 관녕(管寧)의 평상(平牀)을 말한다. 관녕은 자가 유안(幼安)으로 후한(後漢) 말기 시서(詩書)를 강습하였는데, 50여 년 동안 나무로 만든 평상에 무릎 꿇고 앉아 한 번도 다리를 뻗지 않았으니, 평상 위의 무릎 닿는 곳이 모두 닳아 뚫어졌다고 한다.《三國志 魏書 卷11 管寧傳》
- 4) 금대(金臺) : 전국 시대 연(燕)나라 소왕(昭王)이 지어서 그 위에 천금(千金)을 쌓아 놓고 천하의 어진 선비를 초빙하였다는 누대로 황금대(黃金臺) 또는 연대(燕臺)라고도 한다.
- 5) 연경에……전송하며 : 이 시는 김제민(金齊閔)의 문집 《오봉집(鰲峯集)》 권1에 수록되어 있다.
- 6) 의려산(醫閭山) : 중국 북진현(北鎭縣)에 있는 산 이름이다.
- 7) 계성(薊城) : 중국 순천부(順天府) 동쪽에 있으며, 옛날 연(燕)나라의 도읍이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상(商)을 이기고 제요(帝堯)의 후손을 계(薊)에 봉하였는데, 뒤에 연나라가 계지(薊地)를 합병하고서 여기에 도읍을 만들었다. 《讀史方輿紀要 卷11》

금빛 대궐과 큰 종은 우렛소리와 같이 울리네	金闕洪鍾殷似雷
층층 출렁이는 붉은 노을 속에 삼축 ⁸⁾ 을 마치고	層瀲紫霞三祝罷
우러러 상서로운 안개 보니 봉래산에 있는 듯하네	仰瞻祥靄在蓬萊
천하에서 산 넘고 물 건너 ⁹⁾ 연경에 모이니	四海梯航會玉京
각국 관청에서 선발되어 사신으로 왔으리라 ¹⁰⁾	省官掄貳使星行
천년 사당의 고죽군 ¹¹⁾ 풍모를 흠모하고	欽風孤竹千年廟
만리성의 웅대한 관문에 놀라게 되리라	刮目雄關萬里城
중국을 방문하여 어찌 예복만을 배우리요	聘漢豈徒師黻鞞
주나라 예악 관람에는 함영 ¹²⁾ 을 살펴야 한다	觀周須要審咸諷
원래 《시경》에 통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從知誦得詩三百
천자를 응대 ¹³⁾ 해 아름다운 명성을 전하라	專對天庭播令名

성절사 계축에 차운하다 의주 목사 김명원 응순

次聖節使契軸【義州牧使 金命元 應順】

우리나라에서 먼 여정이 연경에 조회함이니	吾東遠役說朝京
심히 애써야 하는 것이 성절사의 행차이다	勤苦偏多聖節行
여름에 갔다 겨울에 오니 비와 눈이 걱정이나	夏去冬來愁雨雪
일의 성취와 사람의 명성은 충정함에 달려있네	事完人健賴忠貞
연경으로 떠날 준비하는 지금 귀국을 꿈꾸며 ¹⁴⁾	燕山脂轄今歸夢

8) 삼축(三祝) : 요(堯)임금이 일찍이 화(華)를 시찰할 적에 화의 봉인(封人)이 말하기를 “아, 성인께 축복 드리기를 청하노니, 성인께서 수(壽)하고 부(富)하고 다남자(多男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했다는 데서 온 말로, 여기에서 ‘화봉삼축(華封三祝)’이라는 한자성어가 유래했다. 은 바로 화의 봉인이란 뜻이고, 삼축(三祝)은 수, 부, 다남자를 축원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莊子 天地》

9) 산……건너 : 원문의 ‘제항(梯航)’은 제산항해(梯山航海)의 준말로, 먼 길을 갈 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것을 말한다.

10) 성관(省官)에서……갔네 : 성관은 간관(諫官)을 가리킨다. 원문의 ‘사성(使星)’은 사신을 뜻한다. 후한 화제(後漢和帝) 때에 한번은 미복 차림의 사자를 각 주현(州縣)에 나누어 파견했는데, 이때 사자 두 사람이 익주(益州)에 당도하여 이합(李郃)의 집에 투숙했던바, 마침 여름밤이라 주객이 모두 밖에 나가 앉았을 때, 이합이 천문을 보고는 그 두 사람에게 물기를, “두 분이 경사(京師)를 출발할 때에 혹 조정에서 두 사자를 파견한 사실을 들어 봤는가?” 하므로, 그 두 사람은 속으로 놀라면서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니, 이합이 별을 가리켜 보이면서 “두 사자의 별이 익주의 분야를 향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後漢書 李命列傳》

11) 고죽(孤竹) : 고죽군(孤竹君)의 아들로 청성(淸聖)이라 일컬어지는 백이(伯夷)를 말한다.

12) 함영(咸諷) : 함영(咸英)이라고도 한다. 함(咸)은 함지(咸池)로 요(堯)임금이나 혹은 황제(黃帝)가 지었다고 하는 음악이고, 영(諷)은 육영(六諷)으로 제곡(帝嚳) 혹은 전옥(顓頊)이 지은 음악인데, 일반적으로 옛날의 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13) 응대(應對) : 원문의 ‘전대(專對)’는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서 독자적으로 응대하며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압록강에서 잔치 여니 어찌 술잔을 들지 않으리오
말은 고을¹⁵⁾ 상관치 않고 좋은 모임에 참여하고
더욱이 거친 시 구절로 이름 나란히 해 부끄럽네

鴨水開筵盍把觥
不分尸州參勝會
更將荒句愧聯名

14) 연경(燕京)으로……꿈꾸며 : 원문의 ‘지할(脂轄)’은 수레 비녀장에 기름칠 하는 것으로, 장차 출행(出行)하기 위한 것이다. 전하여 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15) 말은 고을 : 원문의 ‘시주(尸州)’는 고을을 주관한다는 뜻이다.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회재 박광옥의 학문과 실천, 그리고 공공성의 현대적 의미



[기조강연]

호남 사림 속 회재 박광옥의 위상과 역할

김 덕 진(광주교육대학교)



호남사림 속 회재 박광옥의 위상과 역할

김덕진(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 16세기 사림 시대
2. 호남사림의 등장과 성장
 - 1) 특징적 현상
 - 2) 단계별 진화
3. 회재의 위상과 역할
 - 1) 척신정치를 타파하다.
 - 2) 사림을 부식하다.
 - 3) 서인을 옹호하다.
4. 맺음말

1. 머리말 - 16세기 사림 시대

박광옥(朴光玉)의 본관은 음성(陰城), 자는 경원(景瑗), 호는 회재(懷齋)이다. 회재는 1526년(중종 21)에 태어나서 1593년(선조 26)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그는 16세기를 온전히 살았던 인물이다. 그가 살았던 16세기는 사림(士林)의 시대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림 시대’란 어떤 특성이 나타났던 시기인가부터가 이 글의 서두를 장식할 필요가 있고, 이어서 그 속에서 회재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도 알아보는 것이 좋을성싶다.

사림 세력은 성리학의 이해를 통한 새로운 가치관과 재지 지주·사족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다. 그들은 15세기 끝자락부터 기성 세력이자 집권 세력인 훈구·척신의 아성에 도전하였다. 건국한 지 불과 1세기 만에 사림과 훈척이라는 두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노선 투쟁이 벌어진 것이다. 사림세력은 연산군~중종~명종 3대 동안 크게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의 네 차례의 사화(士禍)를 겪었다. 그에 따른 탄핵, 좌천, 삭탈관직, 유배, 사형, 낙향 등의 희생이나 갖가지 정치적 보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려 70년 동안 개인기가 아니라 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설파하고 조직을 확산시켜 나갔다. 급기야 1567년 선조의 즉위와 함께 훈척을 배제하고 ‘사림 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선조 즉위 후 신정(新政), 즉 ‘새 정치’를 주창하고 군주를 성군(聖君)으로 만들며 구태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및 신질서 구축과 인적쇄신을 빠른 속도로 단행하여 효능감 있게 성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숨 가쁨 갈등과 경쟁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안전판을 대전(大典) 체제를 흔들지 않고서도 사회 곳곳과 전국 도처에 심어놓았다. 이리하여 이후 조선사회는 사림이 뿌려놓은 사상적·물질적 유산을 계승하고 혁신하며 유지되었고, 그 가운데

데 ‘뿌리 깊은 파당과 과격한 정쟁’은 국권피탈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몰매를 맞았지만, 상당수는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문화의 근원을 형성하고 있다.

16세기 사림의 역할은 성리학을 이해하고 그 이념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와 지역을 교화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협조하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확산시키고 자기들에 대한 동조를 끌어내어 자기들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쳤다.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유형과 무형의 형태로 적지 않게 남아 있어, 그들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작업이다. 그들의 역할은 개인적인 일(서재, 누정, 토지, 노비 등), 지역적인 일(향교, 향안, 향약, 서원, 결계 등), 국가적인 일(의례, 과거, 관직, 의병 등) 등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나타났다.

2. 호남사림의 등장과 성장

1) 특징적 현상

여기에 호남사림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 활동을 각기 처한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펼쳤다. 그 과정과 결과는 국내 어느 지역 출신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활발하였다. 자잘한 팩트의 열거는 제쳐놓고, 호남사림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약은 여섯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첫째, 개인적인 공간으로서의 누정은 우리 역사에서 성리학이 보급되는 여말선초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호남사림은 누정과 원림을 여기저기 경치 좋은 곳에 지어 복합 문화 공간이자 정치사회 활동의 센터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기묘사화로 낙향한 양산보(梁山甫)가 소쇄원을 짓고 김인후·고경명 불러들여 학문을 연구하고 시국을 토론하는 공론장으로 제공하였다.¹⁾ 호남사림의 누정 건립 열풍은 전국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6세기 전반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각읍 별로 누정이 소개되어 있다. 그것을 도별로 정리해 보면, 영남이 263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호남으로 170개나 된다. 영남의 군현수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호남의 누정 수는 자못 두드러지는 것이었다.²⁾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 1985~1997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걸쳐 조사·보고한 「전남지방 누정 조사보고」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6세기에 누정이 가장 많이 건립되었고, 그다음은 17세기와 개항 이후 순이었다. 이상의 누정 통계치는 16세기, 사람파, 성리학적 질서 구현과 인간 함양, 개인적 또는 집단적 활동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누정을 시단이나 가단의 메카로 설정하고, 그곳 출입자를 문학인으로 분류하는 기왕의 일부 학계의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

1)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할미디어, 2007.

2) 박준규, 「한국의 누정고」, 『호남문화연구』 17,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87.

겠으나 정치사회적 개혁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한 분야로 평가절하하는 약점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호남사람은 개혁의 핵심이나 시점상 꼭 필요한 사안을 예리하게 잘 꼬집어 선명하게 내세워 추진력을 갖게 하였다. 사람이 숭상해오던 소학·향약이 기묘사화로 폐기 상태에 접어들고 금기시되자, 하서 김인후(金麟厚)는 경연 때 아주 강한 어조로 실태를 질타하며 선비가 반드시 읽어야 할 글이라고 강조했다.³⁾ 하서의 예리함 가운데 단연 돋보인 것은 자신이 발탁하여 측근으로 앉혔다가 자신이 명하여 죽인 종종 면전에서 조광조를 포함한 기묘사림 복권을 가장 먼저 제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힘을 더해 준 이가 바로 퇴계 이황이다.

셋째, 개혁이 정제될 때나 반동 세력이 준동할 때 호남사람은 돌파구를 마련하여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놀재 박상은 종종반정 후 폐위된 신비를 복위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려 퇴행적인 세 공신을 퇴진시키고 느슨해진 기묘사림을 결집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⁴⁾ 이러한 특성은 임진왜란이 일어나 다들 도망가고 숨을 때 대대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근왕’이나 ‘실지 회복’을 주창하였던 점에서도 나타났다. 호남사람의 개혁에 대한 선명성이나 행동에 대한 실천력이 그 어느 지역 출신보다 높았던 배경은, 그들이 대부분 건국 이후 정치적 변동 속에서 절의를 고집하거나 정쟁에 연루됨으로써 받았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전라도로 이주해 온 인사의 후예여서였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의리 명분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특성이 사람의 성향과 맞아떨어져 돋보이게 하였다.

넷째, 호남사람은 수적인 면에서 전국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15세기 끝자락에서 16세기 벽두의 사람은 영남권이 강세였지만, 바로 이어 그 무게 중심이 호남으로 옮겨온다. 조광조와 뜻을 함께하여 개혁정치를 이끌었던 인물인 기묘사림은 대체로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서울 출신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전라도 출신으로 전체의 20% 가까이 되었다.⁵⁾ 왜 기묘사림이 중요하냐면, 선조대 사림 정권이 표방하였던 좌표가 조광조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명종대에서 선조대 중반(기축옥사, 임진왜란)까지 정계나 학계에서 현달하거나 유명세를 탄 인물 가운데 호남사람 출신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점은 학문적으로 이미 검증된 바 있는데,⁶⁾ 이 시기 호남 출신 급제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으며, 장원 급제자도 흔히 있었고, 고위 관료가 연이어 배출되었다고 한다. 허균의 『성소부부고』에 “중종

3) 김덕진, 「인종의 왕도정치 지향과 퇴계·하서의 활동」, 『퇴계학보』 156, 퇴계학연구원, 2024.

4) 이범직, 「놀재 박상의 신비복위소에 나타난 의리사상」, 『한국사상사학』 4·5, 한국사상사학회, 1993.

5) 고영진, 『호남사람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6) 김우기, 「16세기 호남사람의 중앙정계 진출과 활동」, 『한국중세사론총 : 이수건교수정년기념』(간행위원회), 2000.

때에는 호남 출신의 인재로서 드러난 자가 매우 많았다. 박상, 최산두, 유성춘·유희춘 형제, 양평손, 나세찬, 임형수, 김인후, 임억령, 송순, 오겸 같은 사람은 그중 가장 두드러진 이들이다. 그 후로도 박순, 이항, 양응정, 기대승, 고경명이 학문이나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여 잘 표현되어 있다.

여섯째, 1587년 녹도·손죽도를 침략한 정해왜란이 일어나 왜구의 약탈성이 노출되고 왜국의 전면 침략이 가시화되자, 호남사람은 자위력 증강과 위기의식 고양에 나섰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유팽로·김천일·양산숙·양대박 등이다.⁷⁾ 이들은 그 연장선에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키기 위해 곧바로 의병을 일으켰다. 이때 회재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누구보다 먼저 거의를 모색하고 관군 모병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난극복에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였다.⁸⁾

이러한 호남사람 활약의 덕택으로 조선 사회는 사상 최초로 사림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다. 호남사람이 척신정치 타파와 사림정권 수립에 가장 크게 공헌하였다는 점은 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어쩌면 5천 년 호남 지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한 시기가 이때였는가도 모른다. 여기에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 1526~1593)도 중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어서 사림 시대에 호남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회재가 어떤 위상이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단계별 진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1백 년 가까운 호남사람의 여정 속에서 회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이다. 호남사람은 몇 단계를 거쳐 성장해간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계보 정리에 치중한 나머지, 단계별 인물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필자는 호남사람이 여명기를 지나 크게 네 단계를 거친 후 소멸기를 지나 역사적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처음 시도해보는 시론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를 토대로 관련 연구자에 의해 차차 수정·보완되면 좋을성싶다.

여명기의 인물로는 나주·해남 쪽의 최부(崔溥, 1454~1504), 장성·영광 쪽의 송흠(宋欽, 1459~1547)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연산군의 폭정에 염증을 느끼고 관직에서 물러나 후진을 양성하였다.

제1세대 호남사람으로 연산군 대와 중종 대에 올곧은 행동으로 좌천과 유배를 번갈아 겪은 박상(朴祥, 1474~1530), 그리고 ‘호남 3걸’로 불리는 최산두(崔山斗, 1483~1536), 유성춘(柳成春, 1494~1522), 윤구(尹衢, 1495~1549)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은 김종직

7) 김덕진, 『정해왜란 1587』, 선인, 2025.

8) 김영현,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심미안, 2012, 54~57쪽.

김만호, 「회재 박광옥의 의병활동과 추송」, 『호남학』 68,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20.

· 김굉필과 최부를 사숙하였고, 중종 대 초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지만 주로 직급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직에 진출하여 사림 정치의 초석을 다지고 호남사림의 진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광조와 연결되는 양팽손(梁彭孫, 1488~1545), 기준(奇遵, 1492~1521), 박상·송흠에게서 수학한 송순(宋純, 1493~1582) 등도 제1세대 호남사림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제2세대 호남사림은 기묘사화 이후 등장한 이들이다. 박상에게서 수학한 임억령(林億齡, 1496~1586), 송흠에게서 수학한 나세찬(羅世縝, 1498~1551), 서울에서 내려온 이항(李恒, 1499~1576), 송순·최산두에게서 수학한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최산두에게서 수학한 유희춘(柳希春, 1513~1577) 등을 들 수 있다. 소쇄원 건설자 양산보(梁山甫, 1503~1557)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에는 관직 진출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진출 관직 분야도 인사와 언론 분야의 요직이어서 호남사림의 정치적 비중이 강화되고 있었다. 특히 송순을 중심으로 호남사림의 돈독한 동류의식이 발휘되었고, 삼사나 성균관의 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호남사림의 진출에 큰 힘이 되었다. 임억령과 시문 창화한 양응정(梁應鼎, 1519~1581)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세대 호남사림으로 박상의 조카 박순(朴淳, 1523~1589), 정항에게서 수학한 박광옥(朴光玉, 1526~1593), 이중호에게서 수학한 나사침(羅士忱, 1526~1596), 기묘명현 기준의 조카 기대승(奇大升, 1527~1572), 서경덕의 문인 정개청(鄭介淸, 1529~1590), 양응정에게서 수학한 최경회(崔慶會, 1532~1593), 고경명(高敬命, 1533~1592), 김인후·유희춘에게서 배운 정철(鄭澈, 1536~1593), 이항에게서 배운 김천일(金千鎰, 1537~1593), 윤구의 외손이고 이중호의 아들 이발(李潑, 1544~158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역동적인 삶을 살며 호남사림을 전국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이들 가운데는 상당수는 장원 급제자였다. 1526년에 박상이 문과중시에서, 1536년에 나세찬이 문과중시에서, 1540년에 양응정이 생원시에서, 1552년에 정엄이 생원시에서, 1553년에 박순이 문과에서, 1556년 양응정이 문과중시에서, 1558년에 고경명이 문과에서, 1562년에 정철이 별시문과에서, 1573년에 이발이 알성문과에서, 1574년에 정상이 별시문과에서 각각 장원급제했다. 거의 매년 장원급제가 배출될 정도였다.⁹⁾ 그리고 선조 대의 새로운 천거제에 의해 유일(遺逸)로 관직에 진출한 이도 있었는데, 나사침과 김천일 및 정개청이 거의 동시에 유일로 추천되어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 무렵 박광옥도 학생(學生)으로 추천되어 관직에 발을 내딛었다. 이들 모두는 명종 대 말기에 대 척신 투쟁을 펼쳤고, 선조 즉위와 함께 개혁정치를 추진하고 경연을 주도하였고, 사림의 동서 분당 이후에는 각기 동인과 서인으로 정치적 좌표를 설정하고 그 가운데는 각 정파의 수장이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담당한 이도 있었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부는 정치적

9) 고영진, 앞의 책.

격변과 국난극복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희생을 감당해야만 하였다.

제4세대는 정여립(鄭汝立, 1546~1589), 이황에게서 수학한 조대중(曹大中, 1549~1590), 양산보의 손자 양천경(梁千頃, 1560~1591), 양응정의 아들 양산숙(梁山燾, 1561~1593), 성혼에게서 수학한 강항(姜沆, 1567~1618)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생원·진사시를 합격한 예비 관료로서 또는 신진 관리의 위치에서 정쟁과 왜란의 소용돌이를 피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특히 서인의 좌장 역할을 한 정철의 부침에 따라 호남사람도 출렁거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묘사화¹⁰⁾ 때 무고죄로 창평의 양천경·천회 형제, 영광의 강해, 나주의 홍천경, 금구의 김극관·극인 형제 등이 국문을 받다가 양천경, 양천회, 강해 3인이 장살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세자를 옹립하자는 ‘건저의(建儲義) 사건’으로 정철이 실각하자 ‘정철 당’이라는 이유로 윤두수·근수 등 중앙의 서인계가 대거 관직에서 축출당하였는데, 그때 동래부사 고경명을 포함한 많은 서인계 호남사람도 피해를 입었다.¹¹⁾ 고경명 외에 김천일, 박광옥, 정심, 최경희 등도 줄줄이 관직에서 쫓겨나 고향에 머물며 친족·지인·문인들과 학문을 연구하고 시국을 토론하고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재빠르게 의병을 일으켰다.

소멸기의 호남사람으로는 안방준, 정홍명, 고부천, 윤선도 등을 들 수 있다. 조선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역사적 소임은 이들 세대를 끝으로 종식되었다. 그와 함께 호남 출신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학문적 파급력도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는 호남을 이끌어갈 인재가 기축옥사로 죽거나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순절하여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조선 사회는 이성(異姓)보다는 동성(同姓)을 중심으로 한 종법(宗法), 경쟁(競爭)보다는 정쟁(政爭)을 일삼는 파당(派黨), ‘오랑캐’ 나라라고 하지만 선진문물을 이룬 대청(大清)과 직면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호남의 진로도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지만, 그 기회는 뒤늦게 지쳐 있는 체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19세기 중반에야 찾아왔다.

이처럼, 호남사람의 진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다툼의 여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박광옥은 호남사람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삶의 궤적을 보인 제3세대 인물로서 사람의 보편적 기반을 토대로 당쟁과 왜란의 한복판을 누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의 진짜 활약상 속으로 들어가보자.

10) 신묘사화란 1591년에 정철이 유배가고 양천경·양천회·강해(강항 형)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1589년 발발한 정여립 사건의 진행 과정 중 1590년 전라도의 젊은 서인들이 정여립의 배후 조종자가 길삼봉이고, 길삼봉은 경상도 출신의 동인 명사 최영경이라고 하여, 최영경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후 최영경의 죽음은 정철이 양천경 등을 사주하여 사실무근의 말을 지어낸 결과라고 하여, 1591년 심문을 받는 도중 양천경 등이 장살당하고 말았다.

11) 김덕진, 「송강 정철의 학문과 정치활동」, 『역사와 경계』 74, 부산경남사학회, 2010.

3. 회재의 위상과 역할

1) 척신정치를 타파하다

사림의 기본적인 사유와 행동은 도학(道學)을 공부하여 민본정치와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림에게 앎과 행동화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덕목이었다. 그러기에 맥락적인 관점에서 사림의 존재 가치는 도학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도학을 부식하고 반도학을 타파하는 데 있었다. 전자(도학의 부식)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논문에서 부분부분 소개된 바가 있고 오늘 개별 논문에서도 상세히 다룰 것이니 그곳에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후자(반 도학 타파)와 관련하여서만 아직 소개된 적이 없어 여기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사림은 도학을 거스르거나 왕도정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을 가하였고, 불의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거나 눈을 감고 말하지 않으면 사림의 자격이 없고 사림의 축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회재도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회재는 열 살에 정황(丁煥, 1512~1560)의 문하에 들어가서 수학하였다. 정황은 남원 출신으로 정암 조광조의 제자이고 문과 급제 후 관직에 들어왔다. 명종 대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노수신·유희춘·김난상과 함께 절도안치 형을 받고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보면, 회재에게는 조광조의 학맥이 흐르고 을사사화의 혈흔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의 피와 투사의 혼이 내재되어 있었다.

조선의 유자는 학문을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가 입신양명을 떨치는 것이 본분이다. 회재도 어려서부터 유학과 문학을 공부하여 과거에 응시하여 소과를 합격하고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회재는 21세가 되는 1546년(명종 1) 소과에 합격하였다. 9월 실시된 진사시에서 2등으로, 생원시에서 3등으로 합격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출사를 도모하였고, 유희춘이 박광옥을 ‘참으로 학식이 있는 생원’으로 평하고 기효간이 유희춘에게 박광옥을 ‘호남의 인물 중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소개할 정도로 주위의 평판도 좋았다.

당시 사림파는 향약(동약)을 실시하여 지역 단결을 도모하고 향풍을 유교적으로 교화시키는 일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¹²⁾ 회재는 30살이던 1555년(명종 10) 11월에 향리에서 동지들과 선도동약(船道洞約)을 창립하였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1555년은 이황의 예안향약(1562년)과 이이의 해주향약(1571)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시기라는 것인데, 이는 이전에 실시된 태종 대 김문발의 칠석동약과 세종 대 이선제의 광주향약이 연장선에서 가능한 일이었다.¹³⁾ 또 하나는 그의 나이가 30세에 불과하

12) 이태진,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13) 필문이선제선생기념사업회, 『필문 이선제의 생애와 학문』, 심미안, 2024.

고 그가 행한 향촌 활동 가운데 가장 먼저라는 것인데, 이는 그가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였고 이해한 바를 성실하게 실천한 결과였다. 회재가 사는 선도동은 원래 사람이 많고 넉넉하게 지내며 풍속도 순박하였는데, 근래 폐습(弊習)과 폐풍(弊風)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을묘왜란마저 겪었다. 을묘왜란은 1555년 5월에 왜구가 영암(현재 해남 남창) 달랑성을 침략하여 무너트린 후 진도~해남~영암~강진~장흥~고흥을 약탈하여 전라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¹⁴⁾ 이를 계기로 미암 유희춘이 거주지를 본가 해남에서 처가 담양으로 옮겼다. 이 충격파가 회재의 선도동에까지 미쳐 예속(禮俗)을 해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 회재는 백록동 학규와 남전여씨향약의 규약을 참고하여 향약 조목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선도 지역의 공동체적 단결을 강화하고 유교적 의례를 확산시키려고 하였다.

향약 창립 1년 뒤 1556년(명종 11), 회재는 개산 아래에 개산송당(蓋山松堂)이란 서재를 지어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는 그곳에서 『주역』과 『주자가례』 연구에 정진하였고, 항상 찾아오는 수십 여인의 제자를 가르쳤다. 현재 유사경과 유술 부자, 정운룡, 박희수, 박윤협 등이 이곳에서 공부한 회재 제자로 찾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유사경·박윤협은 회재와 함께 창의하였다.

그리고 회재는 1560년(명종 15) 광주목사 유경심이 광주향교를 보수할 당시 건물을 짓고 학규(學規)를 제정하고 학전(學田)을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향교 앞에 세운 비석 「광주향교중신기」의 뒷면 글 음기를 지었다. 앞면은 한 살 아래 고봉 기대승이 지었다.¹⁵⁾ 유경심이 이임할 때 희경루에서 전송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 회재가 초청되어 즐겁게 보내고 시 한 주를 지어 주었다.¹⁶⁾

이처럼 회재는 명종 대에 소과에 합격한 후 예비 관료로서의 미래를 타진하고 있었지만, 대과에 급제하지 않은 때인데다가 척신의 추천을 받아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다. 대신 그는 지역 사회에 향약을 실시하고 서당을 설립하고 향교를 중수하여 자신의 내실을 기하고 공동체 단결을 도모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전파하는 등 사림파의 일반적 코스를 밟고 있었다. 향약이나 서당 및 향교를 통해 맺어진 인연과 사회적 인프라는 기득권층인 훈척에 도전하는 에너지의 근원이었고, 동서 분당 이후에는 당쟁의 진성 당원이면서(누구를 벌주라거나 임명하라는 외방 상소의 주동자)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의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명종 대의 경우, ‘사림 정신’의 핵심 가치에 도전하는 것이 척신(戚臣)과 친불(親佛)이었다. 그러므로 명종 대 사림은 척신정치 청산과 친불교 정책 폐기를 주창하는 것이 역사적 과제였다. 척신과 친불의 정점에 명종의 외척인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서 있었기에,

김덕진 외, 『광주 역사문화 발원의 재발견』, 선인, 2026.

14) 김덕진, 『을묘왜란 1555』, 선인, 2025.

15) 『광주향교지』(하), 2021, 973~979쪽.

16) 『회재유집』 1, 「희경루에서 목사 유태호를 전별하며」.

척신정치 청산과 친불정책 폐기 주창은 곧 문정왕후와 윤원형을 공격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대해 유림들은 이들 외척의 친불교 정책이 성리학에 기반한 국가 이념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친불정책을 반대하고 윤원형과 그 추종자들을 공격하였다. 바로 이 점을 회재도 놓치지 않았다.

문종의 외삼촌 윤원형의 전횡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누이 문정왕후가 궁궐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과를 부활하고 사찰을 후원하는 등의 친불정책을 밖에서 도운 사람이 바로 윤원형이다.¹⁷⁾ 회재는 1565년(명종 20) 불교를 옹호하는 윤원형을 논박하는 상소를 올렸다. 뜻을 같이하는 진사 박규(朴揆)¹⁸⁾와 불교를 물리치려면 먼저 윤원형을 공격해야 한다면서 그의 죄상을 격하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아쉽게 그 원고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연보). 이 무렵 회재는 광주에 있으면서 김언거의 풍영정 8경시를 지었고,¹⁹⁾ 박규와 도모하여 윤원형 논박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 직후 윤원형은 사망(1565년 11월)하고, 그의 사망 직후 명종이 사망(1567년 6월)하여 선조가 왕위에 오르고 척신정치가 종식되게 되었다.

윤원형을 논박한 1565년 가을에 회재는 모친상을 당하였다. 상중에 찾아와서 약물을 주고 위로를 해준 이가 광주목사 최응룡(崔應龍, 1566~1568년 재임)이다. 최응룡은 경상도 선산 출신이고, 퇴계 이황의 문인이다. 그는 광주목사 재임 중 1567년 6월 16일 희경루에서 방회를 열고 그 장면을 그림(『희경루방회도』, 보물 제1879호)으로 남겨놓았다. 회재의 희경루 방회 참석 가능성은 상중이기 때문에 제로일 것으로 여겨진다.

회재가 어머니 3년복을 마칠 무렵,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하였다. 그에 따라 척신정치를 타파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는 소멸되었다. 하지 새로운 정치를 펴야 할 필요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어서 알아보자.

2) 사람을 부식하다

당시 사람파에게 공부를 하고 후학을 가르치고 지인을 만나는 공간으로 별서(別墅)가 필요하였다. 그러하듯이, 회재도 43세 되던 1568년(선조 1)에 시내 위에 조그마한 별서를 짓고 수월당(水月堂)이라 이름하였다. 이 무렵 전라감사 송찬과 도사 민충원이 광주에 와서 회재로 하여금 제생들에게 시회를 열도록 하였다.²⁰⁾ 수월당은 수정(水亭)이라고도 하였는데, 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어 조경을 장식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여러 가

17) 한춘순, 「조선 명종대 불교정책과 그 성격」, 『한국사상사학』 44, 한국사상사학회, 2013.

18) 박규에 대해서는 『미암일기』 1568년 6월 11일자에 “전라도 광주의 박광옥·박규는 참으로 학식이 있는 생원이 되었다고 하였다.”고 나오고, 『광주읍지』에 본관은 함양이고 가계는 박이관-박명심-박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박규에 대한 더 이상의 행적은 찾아지지 않는다.

19) 『회재유집』 1, 「김칠계가 풍영정 팔경시를 지어달라고 하여」(1564년).

20) 『회재유집』 1, 「창에 경정산 구름이 떨어지다」.

지 일을 하였을 것이지만, 시회를 열어 고경명 같은 인물을 초청하였던 사례는 찾아진다. 회재와 7년 연하 고경명의 우정은 고경명이 금산성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수월당을 읊은 글이 타인들의 문집에서 그리 보이지 않은 점이다. 16세기 조선의 유명 사림파 인사들은 거의 개인용 누정이나 서재를 건립하였다. 그들은 경치 좋은 곳이나 인위적으로 조경을 한 곳에 누정이나 서재를 지어 자신의 정결한 신체 ‘세탁’이나 마음의 정진 및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지인과의 교유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 길을 회재도 충실히 걷고 있었다.

이때 회재는 개산(介山 또는 蓋山, 개감산, 개금산. 해발 180미터)에서 흐르는 계곡물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었다. 개산제(현재 전평제)는 천을 막아 물을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보(淤)가 아니라, 계곡을 막아 물을 가두어 아래로 흘려보내는 제(堤)여서 몽리 구역이 매우 넓었다. 축조 이유는 가뭄과 홍수에 쉽게 노출되어 수리에 취약한 마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고, 목적은 논을 확장하고 그곳의 벼농사 용도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의병 관련 기사를 보면, 고경명의 호남 의병이나 권율의 광주 관군에 회재가 적지 않은 군량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군량이 개산제의 몽리답에서 생산된 쌀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²¹⁾ 한마디로 호남 의병의 군량은 개산제 쌀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조성된 ‘넓은’ 농지는 임노동이나 작인 노동이 아니라 노비 노동이 투입되어 경작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노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목에서 『호남절의록』에 나와 있는 회재가 “의병청을 설치하고 정예 용사와 군량·군기 등을 모으고 가동을 내어 편오를 갖추고 자제들로 하여금 수송을 맡도록 하였다.”는 기사 또는 홍양호의 『회재유고』 발문에 나와 있는 “박공은 병으로 종군하지 못하고 남아 머물면서 군량을 조달하다가 공을 이루기 전에 먼저 죽었으니”라는 기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회재가 상당한 규모의 토지와 함께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기사이다. 당시 사림파는 저습지 황무지(광주~나주~무안에 이르는 영산강 변은 대표적 대상)를 개간하여 농지를 넓히고 하천이나 계곡에 보나 독을 막아 수리 시설을 축조하고 벼농사나 이앙법 등의 신농법을 보급하여 가정경제의 자산으로 활용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사림파의 이재법(理財法)을 회재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회재는 이듬해 1569년(선조 2) 44세 나이에 대신과 이조에 의해 학행으로 추천되어 내시교관이 되어 서울로 올라가 사직동 집에 거처하였다. 이로써 회재는 나이는 좀 들었지만, 본격적으로 신진사류(新進士流) 대열에 입문하게 되었다. 회재가 대선배이자 대학자인 일재 이항(李恒), 하서 김인후(金麟厚), 미암 유희춘(柳希春)을 사모하였다. 회재는 소년 시절부터 한 살 아래 고봉 기대승(奇大升)과 더불어 도의로 교우하였는데, 우정이 돈독하였고 한다. 이 외에 사암 박순, 제봉 고경명, 칠계 김언거, 서하당 김성원 등과 교유하였다. 이들은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될 때 대부분 서인으로 좌정한 사람이어서, 회재

21) 김덕진, 「회재 박광옥의 향촌활동」, 『임진왜란과 회재 박광옥 학술대회』(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19.

또한 서인이라는 당파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회재는 1574년(선조 7) 8월 운봉현감이 되었고, 9월에 드디어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운봉현감에 부임하여 향교 교육을 강화하여 유학 이해를 심화시켰고, 쌀 수백 섬을 학생 교육 경비로 내놓았다. 황산대첩비를 세워 건국자의 위상과 왜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영광군수 재임 시에도 향교 운영의 선진화를 기하였다. 광주 교수 재임 시에는 『가례』와 『심경』 등을 강론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광주향교 중흥 일에 뛰어든 바도 있다. 이러하듯이 회재의 일생에서 교육과 관련된 이력이 매우 많은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회재는 성절사 서장관으로 명나라 북경에 들어가 황제를 접견하고 돌아올 때 회암(晦菴, 주희)과 동래(東萊, 여조겸) 두 선생의 진상(眞像)을 구하여 돌아와 매월 초하룻날에 펴 놓고 바라보며 흠모하였다. 이 행위는 학문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는 의례였다고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회재의 성리학에 대한 열정과 실천력은 대단한 것으로 곳곳에서 포착된다.

명종 대에 보였던 회재의 ‘반 척신적인’ 결기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쾌거였다. 그러한 기조는 선조 대 사람 정권 수립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581년(선조 14)에 있었던 사헌부 대사헌 이식(李栻) 탄핵이었다.

이식이 1579년(선조 12) 감찰 기관인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이식의 비리가 2년 뒤 1581년(선조 14)에 드러났다. 비리 내용은 이식의 열녀(孽女)가 궁중에 들어가 숙원(淑媛)이 되었는데, 그녀가 이식과 타인 간에 오가는 뇌물의 중간통로 역할을 하였다는 소문이 돌아 사람들을 통분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당시의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척신들의 장기 가운데 장기였다. 그래서 이 당시 권력형 비리는 궁녀·내수사와 연결되어 있어 그 고리를 끊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식의 비리가 드러나자 사헌부의 관원인 장령 정인홍과 지평 박광옥(1580년 윤4월 지평 임명)이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식을 청반의 선비로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논핵하여 파직시키는 쾌거를 올렸다.²²⁾

그러면 대사헌 이식은 어떤 인물이고 왜 박광옥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는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추적되지 않지만, 구신(舊臣) 출신 인물이다. 선조 대 초기 정권은 크게 두 세력으로 형성되었다. 명종 대에 척신과 밀착하지 않고 사림을 옹호하며 관직에 있었던 원로들[구신-이준경, 홍섬, 권철, 김개, 홍담 등], 그리고 명종 대에 벼슬길에 나와서 척신을 비판하다가 쫓겨난 후 다시 기용되거나(박순, 허엽, 기대승, 윤두수, 심의겸 등) 명종 대 후반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선조 초기에 관직에 진출한(이이, 정철, 김효원, 김우옹, 이산해, 유성룡 등) 신진사류[신진]가 그들이다. 여기에 을사사화로 화를 입었다가 돌아온 윤희춘, 노수신, 김난상 등도 포함되었다. 처음 정치는 구신이 장차관 고위직에 앉고 신진이

22) 『선조수정실록』 15, 선조 14년 3월.

掌令鄭仁弘聞栻有交通宮禁之狀，乃與持平朴光玉，引嫌曰：“宮妾知名，古人所羞。而栻以清班之士，乃有此失，而臣等未及聞知，啓請出仕，自失風憲之職。請遞臣等”。

중간적인 낭관에 앉아서 구·신이 조화를 이루는 구도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개혁에 소극적인 구신과 구시대 청산에 적극적인 신진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급기야 신진사류 세력은 천거에 있어서 ‘낭천제(이조전랑이 정5품 당하관 인사를 추천하는 제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조전랑 자리에 있어서 ‘자천제’를 실시하여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구신 세력을 하나씩 배제하기 시작하였다.²³⁾

그 사이에 신진세력은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고(1575년), 구신인 이식은 여전히 살아남아 대사헌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런데 동서 분당 후 동인·서인 시비가 일어나자, 이식은 집의 홍훈(洪渾)·장령 정희적(鄭熙績) 등의 사헌부 관원들과 함께 동인편에 서서 심의겸을 소인이라 하고 정철과 김계휘를 사당이라고 하며 조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여 서인을 핍박하고 있었다.²⁴⁾ 바로 이때 신진사류인 박광옥은 구신인 이식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고, 서인인 박광옥은 동인을 옹호하는 이식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마침내 정인홍과 함께 탄핵하여 내쫓았다. 결국 박광옥은 신진세력을 부식하고, 더 나아가 서인을 옹호하기 위해 대사헌 이식의 탄핵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3) 서인을 옹호하다

권력을 견제할 사헌부는 두 파로 나뉘어 있었다. 수장인 대사헌과 그 아래의 집의·장령은 동인이고, 또 다른 장령과 그 아래의 지평은 서인이었다. 대사헌 이식을 탄핵한 1581년(선조 14)에 장령 정인홍과 지평 박광옥은 이조좌랑 이경중(李敬中)을 탄핵하려고 하였다. 이경중은 김효원과 이웃하여 친밀하게 지낸 동인계 인사이고, 이조좌랑은 문신 인사권을 행사하는 요직 자리이면서 자천제라고 하여 후임을 전임이 지명하는 특권 자리이다. 당시 사림의 권력 투쟁은 이조전랑 쟁탈전이었다. 이것 때문에 사림이 분당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경중의 탄핵 사유는 “후진가사(後進佳士)로써 명망이 있는 사람을 언제나 앞을 막아 가리고, 경망하고 방자하며 조행도 없이 진취만을 서두르는 무리들과 교결(交結)하여 기세를 부”린다는 것이다.²⁵⁾ 또는 “아름다운 선비로 청명(淸名)이 있는 자를 경중이 매번 방해

23) 김항수, 「선조 초년의 친구갈등과 정국동향」, 『국사관론총』 34, 국사편찬위원회, 1992.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 경인문화사, 2017.

24) 『선조수정실록』 13, 선조 12년 2월.

司憲府上筭, 論時弊, 分辨東西是非, 始顯斥沈義謙爲小人, 鄭澈・金繼輝爲邪黨. 於是, 新生之論爭起. 李栻・洪渾・鄭熙績等爲臺諫, 尤主張奮發, 欲按定國是, 以防西人再入之路.

25) 『선조실록』 15, 선조 14년 3월 8일.

司諫院啓曰: “憲府僚議不一, 各自引嫌而退. 臣等未及詳知李敬中過惡, 而但以素乏學識之人, 久作銓郎, 人言則有之, 誠若鄭仁弘等啓辭, 不可不論. 朴光玉鄭仁弘直據所聞, 將以激濁揚清, 別無所失, 請命出仕. 末世囂囂, 人情多惑, 每劾一人, 浮言朋興, 儕輩盡驚, 或有騷擾. 鄭琢權燧等之不敢率爾彈論者, 亦恐慮此患也. 但劾一郎官, 不是關重大事, 而乃敢與同僚立異, 先自騷

하여 막는다”는 혐의도 탄핵 사유였다. 남의 앞길을 막은 구체적인 사례가 불거졌다. 정인홍이 ‘명망 있는 사람’ 서인계 안민학을 추천하였는데 이경중이 합당하지 않다며 거절하였고, ‘아름다운 선비’ 정여립이 이조전랑이 되는 것을 이경중이 막았다고 한다. 정인홍·박광옥의 이경중 탄핵에 대해 사헌부 동료들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다. 새로 들어선 대사헌 정탁(鄭琢)과 장령 권수(權燾)가 이경중이 사류이니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면서 협조하지 않은 결과였다. 정탁은 대표적인 동인계 인사이다. 동료들의 비협조로 탄핵이 벽에 부딪혀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정인홍과 박광옥은 사표를 내버렸다. 다른 기관인 사간원은 이들의 행동이 “악한 자를 제거하고 선한 자를 천양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별다른 과실이 없으니 출사(出仕)를 명하여주라고 국왕에게 요청했다. 끝내 사표는 수리되고 말았다. 정인홍과 박광옥은 과격했다는 비난도 뒤따랐다. 권선징악을 분명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림이 지향하였던 논리였고 그것을 박광옥은 충실히 따랐고 그 점을 보는 이에 따라서는 과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부터 회재에게는 불리한 환경만 조성되었다. 곧바로 낙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1582년에 11월 임치도에서 배를 타고 밤새 노 젓기를 재촉하여 새벽에 고이도 점마곳에 도착하였다는 시가 있다. 그리고 1583년 10월 남평의 서민부(徐敏夫)와 함께 웅점사, 불회사, 증심사를 방문하였는데, 웅점사 시에 “어려서는 서책 지니고 승방을 찾았는데, 늙어서 다시 오니 보이는 것마다 슬프네”라고 읊었다. 급기야 1584년(선조 17) 서인의 좌장인 울곡 이이가 세상을 떠났다. 이이의 사망은 서인계에게는 충격이었다. 소식을 들은 회재는 “이 뒤로 한결같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는 데 뜻을 두어 비록 임금의 부름이 있다 해도 곧 병을 핑계 삼아 부임하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과 학문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 해에 제자들이 회갑 잔치를 열어주었고(그러면 실제 출생년은 널리 알려진 1526년이 아니라 1524년이 되는 것이다), 김언거의 부음을 듣고 만사를 지었다. 이후 밀양부사, 광주교수, 전주교수에 제수되었다.

1589년(선조 22) 7월 서인계 호남사림의 버팀목이었던 사암 박순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10월에 정여립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회재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불안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털면 나오듯이, 정여립 편지만 가지고 있어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형국이었어서였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불통이 날라왔다. 정여립 사건 직후, 이전에 정여립을 후원해주지 않아 이경중이 이조좌랑에서 탄핵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선조는 고인이 된 이경중을 후환을 예견한 사람으로 여겨 이조참판으로 추증하고, 그런 사람을 논핵한 사헌부의 관원을 색출하라고 하여 12월 전 장령 정인홍과 전 지평 박광옥을 삭탈 관직하였다.²⁶⁾ 이러한 실록 기사와는 달리 회재 연보에는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봉상시정을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적혀 있다. 이때부터 임진왜란 발발 때까지

擾, 大失鎮靜之意, 請命遞差.” 答曰: 依啓.

26) 『선조수정실록』 23, 선조 22년 12월.

上命史官, 考出論敬中憲府官員, 前掌令鄭仁弘前持平朴光玉, 削奪官職.

지 회재는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백수가 아니고 어디 관직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향에 내려와 있는 회재는 1590년(선조 23) 개산 집에서 선대 산소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자신의 현재 신세와 빼도 박도 못하게 동여매고 있는 동인의 압박을 연못 속의 물고기를 빗대어 시를 지었다.

「아이들의 <연못 물고기> 시를 차운하다」

연못에 갇혀 조개의 무시, 수달의 비웃음을 당하고
세월 속에 지느러미까지 상했으니 어찌 버티겠는가
문노라, 구경꾼 중에 그 누가 구해줄 힘이 있는가
천리 강호에 몸을 맡겨 서로의 존재를 잊고자 하노라

그러던 중 1591년(선조 24) 2월 건저의 사건이 발생하여 서인의 영수 정철이 다음 달 파직당하고 6월 유배형에 처해 졌고, 덩달아 서인계 인사들이 줄줄이 축출당하고 그 빈자리를 동인계 인사들이 차지하였다. 회재는 중앙절을 맞았다. 중앙절 호시절인데도 흥겨움은 번뇌로 인해 쉽게 생기지 않고, 오히려 시절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상황은 갈수록 어수선해져 자주 임금이 계시는 북쪽을 돌아보았다.²⁷⁾ 회재는 10월 강계로 유배가 있는 열 살 아래의 정철을 그리워하는 시 두 편을 적어 인편을 통해 보냈다. 하나는 「懷遠」이라는 시인데, “오직 공정하다고 스스로 믿었건만, 기어이 그대를 죽이고자 하였네”로 시작하여, 찬 바람 세차게 부는 북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철을 위로한 후, “굳은 절개로 마땅히 자신을 지켜낸다면, 저 밝은 태양이 반드시 밝게 비추리라”로 매듭을 지었다. 그리고 또 한 편은 「寄兩扇」인데, “오직 남쪽의 생산품을 챙겨서, 멀리 북쪽의 그대에게 보내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남쪽 부채로 고향 생각 잊지말라고 당부한 것 같다.

회재와 정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다시 몸을 일으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가는 길은 서로 달랐다. 회재는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켜 출정한 의병장 고경명·김천일과 광주목사 권율을 도와 왜군을 격퇴하게 하였지만, 전란이 한창인 1593년 10월 고향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철은 해배되어 강계에서 행재소 평양으로 달려가 선조를 호종하고 양호 체찰사에 임명되어 전쟁을 후방에서 지원하다 그만 강화도 객지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회재가 세상을 떠난 지 9년 지난 1602년 고향의 유림들이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고향 벽진 마을에 사우를 세웠다. 사우는 2년 뒤 증수되어 벽진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다시 80여 년 지나 ‘의열(義烈)’이란 이름을 조정으로부터 받았다. 반면에 정철은 죽자마자 최영경을 죽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아 관작을 삭탈하였다가, 인조반정

27) 『회재유집』 1, 「중앙절에」.

이후에야 복구되었다.

4. 맺음말

이 발표의 핵심은 호남사림의 형성과 성장 속에서 회재 박광옥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였고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1백여 년의 역사를 지닌 호남사림의 여정 속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기간을 회재가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척신정치 타파, 사림정권 수립, 동인과 서인의 분당, 임진왜란 등이 펼쳐졌다. 이 기간 회재의 역할이라면 다음과 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첫째, 자기에 충실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한 점을 들 수 있다. 학문에 정진하고 성현을 흠모하여 성리학을 깊게 이해하였고, 이해한 바를 향약이나 향교·서당 등을 통해 실천에 옮겨 지역 사회를 단결하고 지역민을 사랑하고 국가에 헌신하였다.

둘째, 기득권층을 싸고도는 척신을 공격하고 척신정치를 타파한 점을 들 수 있다.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 명종의 외삼촌 윤원형을 지역 사림들과 함께 논박한 바가 있다.

셋째, 새정치를 표방하는 사림세력을 부식한 점을 들 수 있다. 사림세력을 활동을 방해하면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사헌 이식을 탄핵하여 옷을 벗긴 바가 있다.

넷째, 혈연·지연·학연으로 연결된 서인을 옹호한 점을 들 수 있다. 동인계로서 동인은 옹호하고 서인을 핍박한 이조전랑 이경중을 탄핵한 바 있다. 이는 나중에 삭탈관직의 불씨가 되었고, 이후부터 백수가 되어 고향에 있다가 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켰다.

<참고문헌>

- 고영진, 『호남사람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 광주향교, 『광주향교지』(하), 2021.
-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할미디어, 2007.
- 김덕진, 『을묘왜란 1555』, 선인, 2025.
- 김덕진, 『정해왜란 1587』, 선인, 2025.
- 김덕진 외, 『광주 역사문화 발원의 재발견』, 선인, 2026.
- 김영현,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심미안, 2012.
-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 경인문화사, 2017.
- 필문이선제선생기념사업회, 『필문 이선제의 생애와 학문』, 심미안, 2024.
-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임진왜란과 회재 박광옥 학술대회』, 2019.
-
- 김덕진, 「송강 정철의 학문과 정치활동」, 『역사와 경계』 74, 부산경남사학회, 2010.
- 김덕진, 「인종의 왕도정치 지향과 퇴계·하서의 활동」, 『퇴계학보』 156, 퇴계학연구원, 2024.
- 김만호, 「회재 박광옥의 의병활동과 추승」, 『호남학』 68,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20.
- 김우기, 「16세기 호남사람의 중앙정계 진출과 활동」, 『한국중세사론총 : 이수건교수정년기념』 (간행위원회), 2000.
- 김향수, 「선조 초년의 친구갈등과 정국동향」, 『국사관론총』 34, 국사편찬위원회, 1992.
- 박준규, 「한국의 누정고」, 『호남문화연구』 17,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87.
- 이범직, 「눌재 박상의 신비복위소에 나타난 의리사상」, 『한국사상사학』 4·5, 한국사상사학회, 1993.
- 한춘순, 「조선 명종대 불교정책과 그 성격」, 『한국사상사학』 44, 한국사상사학회, 2013.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회재 박광옥의 학문과 실천, 그리고 공공성의 현대적 의미



[발표문-주제①]

회재 박광옥 한시에 나타난 교유의 형상화와 그 의미

박 명 희(전남대학교)



회재 박광옥 한시에 나타난 교유의 형상화와 그 의미

박명희(전남대학교)

1. 머리말
2. 박광옥의 시적 교유망 유형과 특징
3. 교유의 시적 형상화 양상
 - 1) 의례적 창화를 통한 형상화
 - 2) 우정과 정감의 형상화
 - 3) 애도와 기억의 형상화
4. 교유 형상화의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박광옥의 한시를 중심으로 그의 교유망 유형과 그 특징을 밝히고, 창화(唱和)·우정·애도의 측면에서 교유 관계가 시적으로 형상화되는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박광옥의 한시 자체를 중심으로 그의 교유 세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교유망이란 박광옥이 학문, 과거, 관직, 지역 활동, 유람과 시문 창화 등을 통해 형성한 인적 관계의 구조를 의미한다.

박광옥은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학문과 관직 활동을 이어간 문인 학자이자, 임진왜란기 호남 의병의 창의를 주도한 인물이다.¹⁾ 허목(許穆)은 박광옥의 「묘표」에서 “그 학문이 늦게 이루어졌는데, 《주역》과 예경(禮經)에 더욱 마음을 썼고, 또한 널리 배워 두루 달통하였다.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옥계(玉溪) 노진(盧禎)·사암(思庵) 박순(朴淳) 같이 학덕을 갖춘 여러 원로들에게 인정받았다.”²⁾라 하였고, 홍직필(洪直弼)은 《회재선생유집》 서문에서 “의리를 드높여 난리를 막는 것은 호남이 으뜸이다. 가령, 조중봉(趙重峯)·고제봉(高霽峯)·김건재(金健齋)와 같은 분은 몸으로 순국하여 더욱 드높으며, 맨 먼저 일을 선창하여 한 도의 의사들의 마음을 격발시킨 분으로 말하면 회재 박광옥 공이 있을 뿐이다.”³⁾라 하였다. 허목의 평가는 박광옥의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기대승·노진·박순 등

1) 박광옥의 생애에 대해서는 박명희의 선행 연구(《증보 국역 《회재유집》, 임진왜란 호남의병장의 기절(氣節) 기록 총정리》, 《증보 국역 회재유집》, 벽진서원보존회, 2026, 23-28쪽)에서 고찰하였다.

2) 許穆, 《記言別集》卷25, 「羅州牧使朴公墓表」, 其學晚而尤用心於易禮 亦博學多通 如高峯玉溪思庵諸老德所推許云.

3) 洪直弼, 《梅山集》卷27, 「懷齋集序」, 抗義紓亂者 惟湖南居先 有若趙重峯高霽峯金健齋 以身殉國 尤爲卓絕 而若其首事先倡 激發一路義士之心者 惟懷齋朴公光玉是已.

의병 세력을 결집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였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박광옥의 학문과 의병 활동은 모두 당대 인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다.⁴⁾

이상 박광옥이 어떤 인물인지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진왜란기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하나 박광옥의 삶과 활동의 토대는 문인 학자로서의 학문과 문학에 있었다. 특히, 박광옥은 전통시대 다른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한시를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창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회재유집》 권1에 총 223제 321수의 한시 작품이 전하고 있다. 이 321수의 작품은 대략 창작 연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데, 한 가지 주목되는 지점은 39세 때 지은 시부터 문집에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전 작품이 39세 무렵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그 이전에 한시를 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박성일(朴性一)의 「발문」이다. 박성일은 박광옥의 후손으로, 1799년(정조23)에 《회재유집》 초간본을 만든 인물이다. 박성일은 “…… 외손 임씨(林氏) 집에서 선생의 초고본을 찾아냈다. 그런데 좀이나 쥐에게 손상되기도 하고 타인이 베어가기도 하여 완전한 것이 거의 없었다.”⁵⁾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박광옥의 초기 한시를 비롯한 상당수 작품이 문집 편찬 이전에 이미 산일(散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박광옥의 한시가 전부 전하고 있지 않으나 현전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품 연구는 이루어졌다. 박광옥의 한시 작품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이종일이다. 이종일은 박광옥의 한시 19수를 소개하여 작품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⁶⁾ 박명희는 창작 연대가 확인되는 132제 187수를 대상으로 그의 생애와 현실 인식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박광옥 한시 연구를 본격화하였다.⁷⁾ 김태완은 약 50편에 이르는 만시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박광옥의 폭넓은 인간관계와 향촌 사회의 의례적 역할을 밝혔다.⁸⁾ 이들 연구는 박광옥 한시의 전모와 주요 작품군의 성격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으나 작품에 나타난 교유 인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망의 형성과 특징을 밝히거나, 교유 관계가 작품 속에서 어떠한 시적 장치와 정서 구조로 형상화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홍직필은 박광옥이 하서 김인후의 유품을 사모하고 기대승·박순·노진 등과 종유하며 도의를 강마하였다고 하였고,⁹⁾ 김호영 역시 기대승·고경명·박순·이이·노진 등과 도의지교를 맺었다고 기록하였다.¹⁰⁾ 이 기록들은 박광옥이 16세기 사림의 주요 인물들과 폭넓게 교유하였음을 보

4) 박광옥의 임진왜란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김만호의 논문(〈회재 박광옥의 의병활동과 추승〉, 《호남학》 6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0, 120-13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박광옥의 임진왜란기 행적은 김동수 교감·역주,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57-58쪽에 간략히 나와 있어 이것을 참조할 만하다.

5) 朴光玉, 《懷齋遺集》跋(朴性一), …… 有意蒐輯於外裔林氏家 得先生草稿詩集 或爲虫鼠所缺傷 或爲他人所割取 完存無幾. 한편, 박광옥의 문집 《회재유집》은 2026년에 증보 국역되어 간행되었는데, 그 간행 경위에 대한 내용은 앞의 박명희의 글(2026), 30-32쪽을 참조 바란다.

6) 이종일,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의 생애와 학문」, 《향토사랑 문화사랑》Ⅱ, 라이프, 2007, 47-74쪽.

7) 박명희, 「懷齋 朴光玉의 시를 통해 본 삶의 軌跡」, 《우리말글》 84, 우리말글학회, 2020, 315-351쪽.

8) 김태완,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의 만시(輓詩)와 애도(哀悼)의 서사(抒事)」, 《기독교와 문화》(구 한국기독교문화연구) 제20집, 2023, 301-340쪽.

9) 洪直弼, 《梅山集》卷27, 「懷齋集序」, 不佞嘗聞公願慕河西之遺風 而從遊于高峯思菴玉溪羣賢 講磨道義 其所造就 出於師友淵源之正…….

여준다. 그러나 일부 대표 인물만을 열거한 것이므로, 그의 교유망 전체와 관계 형성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광옥의 한시에는 작품의 시제와 소서, 증답과 창화의 과정, 송별·방문·애도·유람의 정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기존 기록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교유 세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교유 인물과 관계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박광옥의 교유망이 어떠한 기반 위에서 형성·확장되었으며, 그 관계가 작품 속에서 어떠한 정서와 시적 장치를 통해 형상화되었는지를 함께 고찰할 것이다. 논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한시의 시제·소서·본문과 부록 자료를 종합하여 교유 인물과 관계 형성의 계기를 확인하고, 학문적 연원과 과거(科擧)·관직의 인연, 지역적 기반과 유람·창화 활동을 중심으로 교유망의 형성과 특징을 밝히려 한다. 다음으로 교유시를 의례적 창화를 통한 교유, 우정과 정감, 애도와 기억을 매개로 한 교유로 나누어 전고·경물·창화·증답·송별·만시 등을 통한 형상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분석 대상은 《회재유집》 권1에 수록된 223제 321수의 한시를 기본으로 하되, 작품의 시제와 소서 및 부록에 실린 타인의 증답시(贈答詩)를 함께 참고하였다. 본고의 최종 목표가 실현된다면, 박광옥 한시 속 인물들의 교유를 통해 문학적·타문종과의 연계성·역사적·정치적인 의미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박광옥의 시적 교유망 유형과 특징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박광옥 한시의 시제·소서·본문과 부록 자료를 종합하여 교유 인물과 관계 형성의 계기를 확인한 뒤에 교유시를 선별하였다. 그 선별 기준은 첫째, 교유가 시의 중심인가? 둘째, 교유 인물이 형상화의 대상인가? 셋째, 교유 관계가 시의 의미를 이끄는가? 등이다. 그 결과 《회재유집》 권1에 수록된 교유시는 대략 총 92제 138수로 집계되었다. 138수는 전체 작품 321수에 대비했을 때 대략 43%에 해당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박광옥은 교유시를 적지 않게 지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학문적 연원과 과거·관직의 인연, 지역적 기반과 유람·창화 활동을 중심으로 교유망 형성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첫 번째 유형으로 학문적 성장과 관련한 초기 교유망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들 수 있는 교유망으로는 함께 공부한 학우, 동년(同年), 과거시험을 통한 인맥, 스승 또는 선배 등이다.

이와 관련한 작품으로는 〈백운동의 조운백을 찾아가다(白雲洞訪曹雲伯)〉, 〈10월 15일에 칠계가 시로 위로해 주어 두 수로 화답하다(陽月望日 漆溪詩以見慰 奉和二首)〉, 〈다시 화답하다(再和)〉, 〈김칠계가 풍영정 팔경시를 지어달라고 하여(金漆溪索諷詠八景詩)〉,

10) 洪直弼, 《梅山集》卷27, 「懷齋集序」, 不佞嘗聞公願慕河西之遺風 而從遊于高峯思菴玉溪羣賢 講磨道義 其所造就 出於師友淵源之正…….

〈김칠계 부인의 만사(金漆溪內子輓詞)〉, 〈김 훈도의 만사(金訓導輓詞)〉, 〈칠계의 〈등광한루〉 시에 차운하다(次漆溪登廣寒樓韻)〉, 〈경오년 늦겨울에 동년 5,6명이 사직동 술집에서 모였다. 선초가 선두로 시 한 수를 짓고, 여러 사람들이 화답했는데, 즉석에서 짓거나 혹은 추억하며 술회하다(庚午季冬 五六同年 期會于社稷洞酒闌 善初首題一絕 諸人和之 或卽席 或追述)〉, 〈송애 박선초의 시에 화답하다(奉和松崖朴善初)〉, 〈저녁에 금성현에 이르러 주인 이군에게 보이다(夕到金城縣 示主人李君)〉, 〈밤에 김화현에서 머무르며 동년 이백소 현감에게 보이다(夜投金化縣 示主倅李同年伯紹)〉, 〈고정지의 만사(高挺之輓)〉, 〈배상사의 만사(裴上舍輓詞)〉, 〈사상의 시를 차운해 금성 백 연형에게 드리다(次使相韻 呈錦城伯年兄)〉, 〈칠계의 부음을 듣고(聞漆溪訃)〉 등이다.

이들 시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조준룡(曹俊龍), 김언거(金彦居), 박호원(朴好元), 김석명(金碩明), 이개운(李愷胤), 고정지(高挺之), 배현(裴絢), 금성 백(錦城伯) 등이다.

이들 인물 중에서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는 금성 백이다. 우선 조준룡은 〈백운동의 조운백을 찾아가다〉와 〈경오년 늦겨울에……술회하다〉 시에 등장한다. 특히, 〈경오년 늦겨울에……술회하다〉 시 속의 ‘동년(同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년은 과거 급제의 동기생을 말한다. 박광옥은 그의 나이 21세(1546, 명종원년) 9월에 생원, 진사 회시에 모두 합격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동년은 21세 때 생원, 진사 회시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을 말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경오년, 즉 45세(1570, 선조3) 늦겨울에 과거 급제의 동기생 5,6명이 사직동 술집에서 모였던 것이다. 〈경오년 늦겨울에……술회하다〉는 그때 지었던 작품이다. 〈경오년 늦겨울에……술회하다〉 시제 속에는 선초라는 자를 가진 박호원만 등장하나 덧붙여진 ‘동년 제공시(同年諸公詩)’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 송하(宋賀)·이광복(李光福)·박개(朴漑)·조준룡·김운(金胤) 등도 그 모임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박호원과 관련해서는 〈송애 박선초의 시에 화답하다〉 시를 짓기도 하였다. 김언거와 관련한 작품은 〈10월 15일에……화답하다〉, 〈다시 화답하다〉, 〈김칠계가……하여〉, 〈김칠계 부인의 만사〉, 〈김 훈도의 만사〉, 〈칠계의……차운하다〉, 〈칠계의 부음을 듣고〉 등이 있다. 시제 속 ‘칠계’는 김언거의 호이다. 김언거는 1531년(중종26) 식년시에 병과로 급제한 뒤에 금산 군수·승문원 판교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말년에 광주(光州)에 풍영정(風詠亭)을 지은 인물이다. 나이로 따졌을 때 김언거는 박광옥보다 23년 위이다. 이러한 연배 차이 때문인지 박광옥은 〈10월 15일에……화답하다〉 시 두 번째 작품의 미련에서 “따라다니며 놀았던 군자들 많아 더욱더 기쁘니, 생압진과 칠계가 길이 통하기를 바라오.(從遊更喜多君子 生鴨津通漆水長)”라고 읊었다. 다시 말해 박광옥은 같은 동향(同鄉) 사람 김언거를 어려서부터 추종하며 함께 놀았던 것이다.¹¹⁾ 이 때문에 김언거는 학문적 성장과 관련한 초기 교유망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표 인물 중 한 명이다.

11) 박광옥과 김언거가 도의지교를 맺었다는 내용은 김언거의 문집 《칠계유집(漆溪遺集)》 속 「연보」에 나온다. 이 「연보」에서 “……박회재광옥 등 여러 선생과 함께 도의로 사귀어 서로 흥금을 털어놓고 시편과 간찰이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朴懷齋光玉諸先生 爲道義之交 肝肺相傾 詩篇簡牘 陸續不絕)”이라 하였다.

같은 동향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따라다니며 함께 놀았던 김언거이기 때문에 풍영정 풍경시를 지어달라고 요구할 때도 시를 지었고,¹²⁾ 김언거가 세상을 떴을 때도 시를 지었으며, 부인과 형 김언우(金彦瑀)가 세상을 떴을 때도 시를 지었다. 이렇듯 뜻깊은 교유 관계를 지녔기 때문에 박광옥은 김언거가 세상을 뜨자 「묘지」도 지었다.¹³⁾ 이석명과 이개운, 고정지, 배현 등도 학문적 성장과 관련한 초기 교유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¹⁴⁾ 그 근거는 각각의 시 구절에서 드러난다. 박광옥은 이석명과 관련한 시 〈저녁에……보이다〉 3구에서 “태수는 당년에 함께 글 읽던 친구였는데(太守當年絃誦伴)”라 말하였고, 이개운과 관련한 시 〈밤에……보이다〉 3-4구에서 “주인은 혹시 내 성명 아시는지 알고 싶소, 당시 소과 시험 합격자 중 최고 어렸지.(主人倘願知名姓 蓮榜當時最少身)”라 말했으며, 고정지와 관련한 시 〈고정지의 만시〉 1구에서 “힘들게 공부할 당시 동료이었는데(螢雪當時伴)”라 말하였고, 배현과 관련한 시 〈배 상사의 만사〉 3구에서 “한 책상에서 시문 공부를 위한 노력 몇 해던가(一榻詩書幾螢雪)”라 말하여 학문을 익힐 초기에 만났던 사람들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주요 호남 사람과 문인들의 교유망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작품으로는 〈시험을 마친 뒤에 사직동 집에 있었는데, 기명언이 옥당에서 편지를 보내 위로하니 우연히 편지 뒤에 쓰다(罷試後 在社稷洞第 奇明彦自玉堂致書相慰 偶題紙背)〉, 〈고이순이 수정에 있는 나를 찾아와 사성과 함께 조출한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순이 우선 한수를 쓰고, 나와 사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군현이 뒤에 이르렀다. 시첩을 벽 위에 두도록 하다(高而順 訪余於水亭 與師聖 共開小酌 而順先題一首 僕與師聖 繼之 李君賢後至使帖諸壁上)〉, 〈식영정 벽 위에 석천이 쓴 시가 있어 차운한 것을 문빛장에 부치고, 머물며 주인 김강숙에게 보이다(息影亭壁上 有石川所題詩 次韻付諸門扇 留示主人金剛叔)〉, 〈방장산을 유람하고 돌아온 뒤에 이순에게 주다(遊山歸後 贈而順)〉, 〈목사 김윤제의 만장을 지어 정계함의 요구에 응하다(金牧使允梯輓章 應鄭季涵之求)〉, 〈8월 그믐날 밤에 기잠부를 호연방 집으로 찾아가 만났는데, 별좌 김이정도 도착하였다. 《동호창화시축》을 보여주기에 ‘소’자 운을 사용해 소회를 부치다(仲秋晦夕 往訪奇潛夫于浩然坊第 金別坐而精亦到 出示東湖唱和詩軸 因用疏字韻)〉, 〈이해 초겨울에 잠부가 질병으로 사직하고 남쪽으로 돌아가다 도중에 종기가 일어나 고부에 사는 참봉 김경숙 집에서 죽었다. 2월에 나주 광구에 안장하니 만시를 지어 슬픔을 부치다(是歲孟冬 潛夫謝病南歸 路中腫發 卒於古

12) 박광옥이 지은 풍영정 팔경시의 시제는 〈김철계가 풍영정 팔경시를 지어달라고 하여〉이다. 시제에 따르면 이 시는 박광옥의 나이 40세(1565, 명종20) 때 지었다. 김언거가 말년에 풍영정을 세운 뒤에 박광옥에게 누정 주변의 여덟 풍경을 시로 지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는 현재 다섯 풍경시만 전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말미의 소주(小註)에 “그때 마침 상을 당해 미처 시를 다 마치지 못했기에 결국 보내지 못했다.(時適遭艱憂 未及終篇 不果送也)”라 하였다. 사실 박광옥은 이 시를 지은 그해에 어머니상을 당해 결국 시를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이다.

13) 김언거의 「묘지」는 《칠계유집》에 전한다.

14) 이석명, 이개운, 고정지, 배현 이 네 사람 중에서 약간의 이력이나마 알 수 있는 사람은 배현이다. 배현의 본관은 화순(和順)이고, 자는 질부(質夫)이며, 호는 은계옹(隱几翁)이다. 거주지는 광주(光州)로 1558년(명종13)에 식년시에 합격하였다.

阜地金參奉敬叔家 二月永窆于羅州之廣口 輓以寄哀》, 〈자양 시에 차운해 사중에게 보내다〔次子仰韻 呈土重案右〕〉, 〈유 부제학을 슬퍼하다〔柳副提學輓〕〉 등이다.

이들 시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김윤제(金允悌), 김언거, 유희춘(柳希春), 김성원(金成遠), 기대승, 고경명, 김천일(金千鎰) 등이다.

우선 김윤제는 〈목사 김윤제의……응하다〉 작품에 등장한다. 연배를 따졌을 때 김윤제는 박광옥보다 25년 더 위이다. 광주 출신으로, 나주 목사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는데, 정철(鄭澈), 김성원 등이 그 대표 제자이다. 〈목사 김윤제의……응하다〉 시제에 나오는 ‘정계함’의 ‘계함’은 정철의 자이다. 따라서 〈목사 김윤제의……응하다〉 작품은 김윤제가 1572년(선조5) 세상을 뜨자 제자 정철이 만장을 지어달라고 박광옥에게 요구해 짓게 되었다. 김언거와 관련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거론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유희춘과 관련한 작품은 〈유 부제학을 슬퍼하다〉이다. 이 작품 역시 만시이다. 유희춘은 해남 출신으로, 연배를 따졌을 때 박광옥보다 13년 더 위이다. 그리고 1577년(선조10), 즉 박광옥의 나이 52세에 유희춘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유 부제학을 슬퍼하다〉 작품을 지은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김성원과 관련한 작품은 〈식영정……보이다〉이다. 김성원은 광주 출신으로, 연배를 따졌을 때 박광옥보다 1년 더 위이다. 〈식영정……보이다〉 시는 시제 말미에 “방장산에서 노닐 때〔遊方丈時〕”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박광옥이 지리산을 유람하던 중에 식영정에 들렀다가 거기에 있던 임억령(林億齡)의 시에 차운해 김성원에게 주었다. 식영정은 김성원이 장인 어르신인 임억령을 위해 지은 누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광옥은 지리산을 유람하던 중에 그곳을 일부러 들렀던 것이다. 기대승과 관련한 작품은 〈시험을……뒤에 쓰다〉, 〈8월 그믐날……소회를 부치다〉, 〈이해……부치다〉 등이다. 기대승은 광주 출신으로, 연배를 따졌을 때 박광옥보다 1년 뒤이다. 기대승은 그의 나이 21세(1547, 명종2) 때 성균관에서 유학하면서부터 서울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고, 32세 때 문과에 합격하여 권지 승문원부정자를 시작으로 벼슬살이를 하였다. 〈시험을……뒤에 쓰다〉 시는 어느 해 박광옥이 서울 사직동 집에 있을 때 지었다. 박광옥이 무슨 시험을 마친 뒤에 사직동 집에 머물러있었는데, 기대승이 홍문관에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 그 편지 뒤에 쓴 것이다. 〈8월 그믐날……소회를 부치다〉 시는 어느 해 8월 그믐날에 박광옥이 기대승이 머물러있던 호연방에 찾아가 지었다. 그 자리에는 별좌(別坐) 벼슬에 있던 김취려(金就礪)도 함께 하였고, 박광옥은 《동호창화시축》에 나온 시운(詩韻)을 활용해 시를 지었다. 즉, 박광옥과 기대승, 김취려 이 세 사람이 함께 연 시회(詩會)에서 지은 작품이다. 〈이해……부치다〉 시는 기대승이 세상을 뜬 이듬해에 지었다. 기대승은 1572년(선조5)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박광옥의 나이는 47세였다. 기대승은 세상을 뜨기 전에 벌써 질병으로 인해 사직하고 고향을 향해 가다가 그만 고부에 사는 참봉 김경숙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 나주에 안장되었는데, 이때 지은 시가 〈이해……부치다〉이다. 즉, 만시이다. 고경명과 관련한 시는 〈고이순이……두도록 하다〉, 〈방장산을……이순에게 주다〉 등이 있다. 연배로 따졌을 때 고경명은

박광옥보다 7년 뒤이다. 광주 출신으로, 임진왜란 초기에 의병장으로서 활약 하다 세상을 떠났다. <고이순이……두도록 하다> 시는 박광옥이 세운 수월정(水月亭)에서 연 시회에서 지었다. 어느 날 고경명이 수월정에 있던 박광옥을 찾아와 사성 고경순(高敬順)과 조졸한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돌아가며 시를 지었는데, 가장 먼저 지은 사람은 고경명이었다. 그리고 박광옥과 고경순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균현이 이르러 그 시회에 참여한 사람은 총 네 명이 되었던 것이다. 시제의 말미에 ‘시첩’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 수월정에서 시회를 자주 열어 심지어 그 시를 엮은 첩(帖)까지 둔 것으로 추정한다. <방장산을……이순에게 주다> 시는 박광옥이 지리산을 유람하고 돌아온 뒤에 지어 고경명에게 준 것이다. 당시 박광옥의 지리산 유람은 지역 문인들 사이에서 큰 사안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고경명을 비롯하여 나주 출신 임복(林復), 담양 출신 양자징(梁子徵) 등이 박광옥의 지리산 유람을 축하하는 의미의 시를 지어 주었기 때문이다.¹⁵⁾ 또한 박광옥이 지리산을 유람하고 돌아온 뒤 지은 <방장산을……이순에게 주다> 시에 대해 고경명이 차운했는데, 《회재유집》에 <제봉이 차운한 시 2수(霽峯次韻二首)>라는 시제로 전한다. 김천일과 관련한 시는 <자양……보내다>이다. 연배로 따졌을 때 김천일은 박광옥보다 11년이 더 뒤이다. <자양……보내다> 시 속의 ‘자양’은 윤두수(尹斗壽)의 자이고, ‘사중’은 김천일의 자이다. 이 시는 창작 연도가 명기되어 있는데, 박광옥의 나이 63세(1588, 선조21) 때 지었다. 시제 뒤에 “어제 매죽헌을 보고 밤새 읊조리다가 문득 터득한 것이 있어서 기록하여 보이다.(昨見梅竹軒 詠夜間 適有所得錄示)”라 말했으니, 윤두수의 시를 매개로 김천일과 감상을 공유하며, 매죽헌의 풍류와 은일의 이상을 함께 향유하는 정신적 교감을 형상화하였다.

세 번째 유형으로 관료 생활 중에 맺어진 교유망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작품으로는 <관서로 부임해 가는 도사 이택가를 보내며(送李都事擇可赴關西)>, <토산 원님 박대수에게 보내다(寄兔山倅朴大受)>, <김희민은 상서 부직장이 되고, 내가 동청에서 내시를 교육시키면서 17,8개월 동안 서로 어울렸다. 계유년 7월 김군이 양주 현감이 되어 그 가는 길에 시로 회포를 담아 주다(金希閔爲尙瑞副直長 余教內侍于同廳 相從十有七八朔 癸酉七月 金君乞揚口縣 於其行 詩以寄懷)>, <낭천현에서 머물다 아침에 원님 채 어르신 초청에 따라 관청에서 식사를 하였고, 자리에서 채 판서의 유산시 운에 차운해 좌우 사람들에게 보이다(留狼川 朝赴主倅蔡丈之邀會 食于官廳 席次用蔡判書遊山詩韻 示左右)>, <관아 안에 베풀어진 조졸한 술자리에서 원님에게 올리다(衙內設小酌席上 呈主倅)>,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 원님이 병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다시 어제 운자로 보내드리다(朝有雨 主倅病未出見 復用昨日韻 送呈)>, <윤전 주지승이 일 때문에 양구 원님 김극효를 뵈

15) 박광옥이 지리산 유람을 떠날 때 고경명이 지은 시는 <경원이 동쪽으로 방장산을 유람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로 흥을 부치다(聞景瑗東遊方丈 詩以寄興)>이고, 임복이 지은 시는 <방장산을 유람한 박경원에게 주다(贈朴景瑗遊方丈)>이다. 또한 양자징이 지은 시는 <동갑 경원이 서하 주인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여(同景瑗訪棲霞主人 不遇)>, <경원이 장차 방장산으로 향한다 하여 시를 짓다(景瑗將向方丈山 有作)>, <또(又)> 등이다.

러 간다 하여 전날 전송한 시의 운으로 지어 전해 달라 부탁하다(田僧 將以事 往謁楊口 倅金君克孝 用前日送行詩韻 托傳)), 〈희경루에서 목사 유태호를 전별하며(喜慶樓 餞牧使 柳侯太浩)), 〈심방숙과 이별하며(別沈方叔)), 〈삼가 상관 정 사상의 시를 차운하다(敬次 上鄭使相)), 〈동곡이 충주 경영루에서 지은 시에 화답하다(奉酬東谷忠州慶迎樓韻)), 〈거듭 훌륭한 시를 받고 졸렬한 생각을 엮어서 화답하다(再承高作 強構拙思 奉和)), 〈석가 정에서 수령 윤백설에게 보이다(夕佳亭 示主倅尹伯說)) 등이다.

이들 시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이유근(李惟謹), 박대수(朴大受), 김극효(金克孝), 채유린(蔡有隣), 유경심(柳景深), 심의겸(沈義謙), 정언지(鄭彦智), 윤기(尹祁) 등이다.

우선 이유근과 관련한 시는 〈관서로……보내며〉이다. ‘택가(擇可)’는 이유근의 자이다. 본관은 함평(咸平)이고, 호는 죽담(竹潭)이다. 1561년(명종16)에 문과에 합격한 뒤 대구 부사를 지냈으며, 명나라 서장관으로 갔을 때 시로 감복시켜 명나라 황제로부터 연주옥패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박대수와 관련한 시는 〈토산……보내다〉이다. ‘토산’은 황해도 금천군(金川郡) 지역에 있었던 현 이름이다. 박대수에 대한 이력은 분명하지 않다. 이 작품은 시제에 부기된 기록에 따르면, 박광옥의 나이 47세(1572, 선조5) 때 지었다. 김극효와 관련한 시는 〈김희민은……답아 주다〉와 〈윤전 주지승이……달라 부탁하다〉 등 두 편이다. 〈김희민은……답아 주다〉 시에서 ‘희민’은 김극효의 자이다. 또한 부친 때부터 왕족과 인연이 있었으며, 김극효는 광해군의 처이모부이기도 하다. 이 시는 함께 근무하며 쌓은 우정을 바탕으로 지방 수령으로 떠나는 김극효를 송별하며 지었다. 〈윤전 주지승이……달라 부탁하다〉는 승려 윤전을 매개로 김극효에게 시를 전하며 우정을 이어간다. 채유린과 관련한 작품은 〈낭천현에서……사람들에게 보이다〉, 〈관아 안에……올리다〉, 〈아침에……보내드리다〉 등이다. 채유린에 대한 이력은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박광옥이 〈낭천현에서……사람들에게 보이다〉 시제 다음에 “주인의 이름은 유린이고, 자는 중부로, 곧 판서의 증손이다. 호는 소래후인이라 하였다.(主人名有隣 字仲孚 乃判書之曾孫也 號蘇萊後人云)”라는 내용을 통해 약간의 정보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세 작품은 박광옥이 금강산을 유람하던 중에 지었다라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시에서는 박광옥이 관아에 초청되어 함께 식사하고 선대의 시에 차운하며 문학적 교유를 나누었고, 두 번째 시에서는 관아에서 마련한 술자리에서 시를 주고받으며 교유를 심화시켰으며, 마지막 세 번째 시에서는 병으로 만나지 못한 상대에게 다시 차운하여 시를 보내며 안부와 우정을 전하였다. 유경심과 관련한 시는 〈희경루에서……전별하며〉이다. 시제에 나온 ‘태호’는 유경심의 자이다. 이 시는 당시 광주목사로 재직 중이던 유경심을 희경루에서 전별하면서 지었다. 희경루는 1451년(문종원년), 무진군(茂珍郡)에서 광주목(光州牧)으로 승격한 것을 기념해 지은 누각이다. 이 누각은 광주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데, 때문에 수많은 문인들이 제영시를 남겼다.¹⁶⁾ 그런데 〈희경루에서……전별하며〉 시는 누정 제영시는 아니고, 유경심을 떠나보

16) 희경루의 건립 경위는 김덕진의 논문(「15세기 光州牧 邑號陞降과 喜慶樓」, 《조선시대사학보》 91권, 조선시대사학회, 2019, 7-32쪽)을 참조하고, 희경루의 제영시 연구는 김영국의 논문(「광주목 희경루

내며 지은 전별시이다. 이 시를 받은 유경심 역시 차운시를 지어 우정을 나타내었다. 심의겸과 관련한 시는 〈심방숙과 이별하며〉이다. 시제 속 ‘방숙’은 심의겸의 자이다. 이 시는 시제 부기에 따르면 심의겸이 감사에서 교체되어 서울로 돌아갈 때 지었다. 심의겸은 명종비 인순왕후의 동생으로, 특히 1575년 서인의 영수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광옥은 〈심방숙과 이별하며〉 시에서 송별의 정과 함께 재회를 기약하는 우정을 드러내었다. 정언지와 관련한 시는 〈삼가……차운하다〉, 〈동곡이……화답하다〉, 〈거듭 훌륭한……화답하다〉 등이다. 이 시는 정언지가 먼저 시를 지었고, 박광옥이 그 뒤를 이어 차운하였다. 마지막으로 윤기와 관련한 시는 〈석가정에서……보이다〉이다. 시제 속 ‘백설’은 윤기의 자이다. 박광옥은 윤기를 찾아 자신의 삶과 처세에 대한 심회를 나누었다.

네 번째 유형으로 유람할 때 동행하거나 처음 만나 맺은 교유망을 들 수 있다. 박광옥은 45세 4월에 삼각산, 8월에 지리산, 9월에 화순 적벽 등을 유람하였다. 그리고 48세 때 송응실(宋應實)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였고, 51세 때는 전북 남원 일대를 유람하였다. 이렇듯 여러 곳을 유람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역시 시로써 교유했는데, 특히 지리산·금강산·남원 일대와 관련한 시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시는 〈각의에게 주다(贈覺義)〉, 〈송응실과 함께 말을 타고 사직동 마을 문을 나와 동소문으로 향하며 말위에서 읊다(與宋君應實 聯鞍 出社稷洞里門 向東小門 馬上口)〉, 〈이날 낮에 단발령 뒤 냇가에서 말을 세웠다. 비가 내려 잠시 길 왼쪽 초막에서 피했는데, 곧 회양부 방백을 지대하는 곳이다. 이어 이영을 거두어 취해 우구를 만들어 마침내 장안사로 들어가니 날이 벌써 어두컴컴해졌다. 23일 장안사로부터 명연을 거쳐 지나 표훈사에서 쉬었다가 마침내 정양으로 올라가 개심대로부터 오던 통천 군수 이응기를 만났다. 원통사의 백족시 한 절구를 꺼내 보여주어 운을 따라 시를 짓다(是午 歇馬于嶺後川邊 雨作 暫避于路左草舍 乃淮陽府支持方伯之所 因撤取盖草 爲雨具 遂入長安寺 日已昏黑矣 卅三 自長安寺 過鳴淵歷 憩表訓寺 遂上正陽 遇通川倅李應期來自開心臺 出示元通寺白足詩一絕 依韻有作)〉, 〈표훈사 지원 스님 방에서 묵었다. 지원 스님이 소장한 시축 중에 양응빙의 오언절구가 있어서 즐겨 네 구절 시를 지어서 주다(表訓寺宿智圓房 圓之所藏詩軸 有楊應聘五言絕句 衍作四句詩 贈之)〉, 〈낭천현에서 머물다 아침에 원님 채 어르신 초청에 따라 관청에서 식사를 하였고, 자리에서 채 판서의 유산시 운에 차운해 좌우 사람들에게 보이다〉, 〈관아 안에 베풀어진 조출한 술자리에서 원님에게 올리다〉,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 원님이 병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다시 어제 운자로 보내드리다〉, 〈주지승 윤전의 시축에서 ‘계’ 자 운을 차운해 주다(住持僧允田詩軸 次溪字韻 贈之)〉, 〈윤전 주지승이 일 때문에 양구 원님 김극효를 뵈러 간다 하여 전날 전송한 시의 운으로 지어 전해 달라 부탁하다〉, 〈재상 경차관 김여기가 금산 군수 임언실, 서산인 정수초 부자, 변중간과 함께 백장사 앞 대전 시냇가에 가서 가을 산을 구경하고, 저녁에 백장사에서 묵었다. 이튿날 아침에 김여기가 우선 장수로 향해 출발하였고, 변중간은 뒤에 떨어져 실상사 서재로

외 그 제영], 《한국언어문학》 93집, 한국언어문학회, 2015, 157-18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들어갔다. 나는 언종·정수초와 함께 말을 나란히 탔는데, 인월천 가에 도착해 말에서 내려 작별하며 읊시 한 수를 지어 읊어 두 사람에게 주었다(災傷敬差官金君汝器 與林錦山 彦實鄭山人遂初父子邊君仲幹 往賞秋山於百丈寺前大田溪邊 夕宿右寺 明朝 汝器先發向長水 仲幹落後 入實相書齋 俺與彦宗遂初 共轡 到引月川邊 下馬 作別 吟得律詩一首 贈兩君)) 등이다.

이들 시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각의(覺義), 임희무(林希茂)·정복현(鄭復顯), 송보진(宋葆眞), 이명생(李命生), 지원(智圓), 채유린, 윤전(允田) 등이다.

우선 각의와 관련한 시는 〈각의에게 주다〉이다. 각의는 지리산의 승려이다. 임희무·정복현과 관련한 시는 〈재상 경차관 김여기가……주었다〉이다. 이 시는 51세 남원 일대를 유람할 때 지었다. 임희무의 자는 언실(彦實)이고, 수초(遂初)는 정복현의 자이다. 이 시에는 김여기(金汝器)와 변중간(邊仲幹) 등이 등장하나 임희무와 정복현이 박광옥과 마지막까지 동행하였다. 송보진과 관련한 시는 〈송응실과…… 읊다〉이다. 송보진에 대한 이력은 분명하지 않은데, 응실은 그의 자로 추정한다. 이명생과 관련한 시는 〈이날 낮에……시를 짓다〉이다. 시제 속 ‘응기’는 이명생의 자이다. 당시 이명생은 통천 군수를 지내고 있었다. 지원과 관련한 시는 〈표훈사 지원 스님……지어서 주다〉이다. 지원은 금강산 표훈사의 중이다. 채유린과 관련한 시는 총 3편이 있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윤전과 관련한 시는 〈윤전 주지승이……달라 부탁하다〉이다. 이 시는 앞 김극효를 언급할 때 이미 거론했는데, 윤전과의 교유를 중심으로 보아 다시 한번 들었다. 윤전은 금강산 어느 절의 주지승이다.

이상 박광옥이 시를 통해 형성한 교유망의 유형을 총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외에 네 가지 유형에는 들지 않으나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교유 인물들도 있다. 박광옥은 시를 통해 여러 명의 승려들과 교유했는데, 승려와 시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천보사의 승려 - 〈천보사의 절 중에게 주다(天寶寺贈僧)〉
- 각의 - 〈각의에게 주다〉
- 행사 - 〈중흥사 주지승 행사가 찾아와서(中興寺住持僧行思來訪)〉
- 지원 - 〈표훈사 지원 스님……지어서 주다〉
- 윤전 - 〈윤전 주지승이……달라 부탁하다〉
- 성혜 - 〈성혜에게 주다(贈性慧)〉
- 영규 - 〈밤에 역리 둔손 집 뒤 초가 암자에서 묵으며 영규 스님에게 주다(夜宿驛吏屯孫家後草庵 贈靈圭僧)〉
- 심원 - 〈심원 스님에게 주다(贈心源僧)〉
- 법진 - 〈거문고 타는 법진 스님(琴僧法眞)〉
- 진각 - 〈진각에게 주다(贈眞覺)〉
- 일현 - 〈일현이 어등산으로부터 찾아와 나에게 자신의 거쳐 방장산에서 이야기를 나누

자 요청하여 내가 승낙했고, 인하여 시를 지어 주다(一玄自魚登來訪 要余於所居方丈作話 余諾之 因贈以詩)》외 두 편

또한 앞의 네 가지 유형에 들지 않았으나 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박광옥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인물도 있는데, 가령 서무부(徐懋夫)·민부(敏夫), 주생(周生), 정 주부(鄭主簿), 곽예(郭藝), 박공도(朴公度)·배질부(裴質夫) 등이 그들이다. 또한 정철(鄭澈)과 관련해 두 편의 시 〈먼 데 사람이 생각나서(懷遠)〉, 〈부채 두 개를 보내며(寄兩扇)〉 등을 지었는데, 그 접점이 불분명해 역시 네 가지 유형 속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박광옥의 시적 교유망 유형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유형이 다양하고, 그 교유 인물 또한 특정한 몇 명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유형 속 인물은 크게 호남 사림, 중앙 관료, 지방 수령, 과거 동년, 승려, 유람 동행자, 호남 외의 다른 지역 사림, 후배 문인 등등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박광옥의 교유는 학문적 동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호남 사림을 중심축으로 하여 관료 사회, 지역 문인, 승려, 유람 공동체에까지 확장된 복합적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폭넓은 교유 기반이 다음 3장에서 살펴볼 다양한 교유시의 형상화 방식이 성립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교유의 시적 형상화 양상

앞 2장에서 살폈듯이 박광옥의 교유망은 지역, 인물, 신분 등으로 나누어 봐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유망은 의례적 창화·우정·애도이라는 세 개의 주요어로 압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세 개의 주요어를 중심에 두고 교유시를 창화의 교유, 우정과 정감, 애도와 기억의 교유 등으로 나누어 전고·경물·창화·증답·송별·만시 등을 통한 형상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1) 의례적 창화를 통한 형상화

박광옥의 교유시 중에는 창화를 통해 학문 공동체 등을 형성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박광옥이 어떤 의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창화를 통해 교유한 것을 주로 언급할 것이다. 창화란 한쪽에서 먼저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읊으면 다른 쪽이 그에 맞춰 화답하여 서로 주고받는 것을 뜻하며, ‘창수(唱酬)’ 또는 ‘수창(酬唱)’이라고도 한다.

의례적 창화를 통해 교유한 작품으로 〈화순 사는 상사 조경중의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여러 선생들이 파천황이라는 제목으로 제생들에게 시험을 보였는데, 최선림이 급제한 것

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본떠 짓다(和順曹上舍景中慶席 諸先生以破天荒爲題試諸生 爲崔善林得第也 擬作)), <창에 경정산 구름이 떨어지다(窓落敬亭雲)>, <내시들이 입학하여 강론을 시험 볼 때, 교관 안경숙 사흘 과 함께 상서원에 모였다. 상서원 부직장 김언무 호신 가 숙직을 하다가 내한 조원이 보내온 절구를 나에게 보여주며 화답 요구하여(考講入學內侍 與安教官敬叔 士欽 會于尚瑞院 院副直長金彥武 虎臣 入直 示余以趙內翰瑗所寄絕句 求和)>, <박중인 문하생들이 함께 장수를 기원하는 잔치를 마련해 초청받았다. 술이 거나할 때 협지가 절구 두 수를 선창하여 그 일을 읊었다. 좌중이 운자에 의거하여 화답하고, 마침내 나에게 이어줄 것을 부탁함에 졸렬함을 잊고 써서 보이다(朴仲仁門下諸生 共設壽席見邀 酒半 協之先唱二絕句 以詠其事 座依韻相和 遂囑余繼之 忘拙書示)>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화순 사는……본떠 짓다> 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오산을 궁벽한 데에 비기지 마소	莫把烏山擬僻荒
산천 일대가 나주 광주와 접했나니	山川一帶接羅光
원래부터의 운수란 막힘과 뚫림 잦은 법	由來氣數多通塞
이로부터 고을의 예악이 찬란하리라	從此彬彬禮樂鄉 ¹⁷⁾

이 시는 축하시로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 교류를 통해 화순 지역 사림 공동체를 형상화한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시제에서 전남 화순과 관련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렸는데, 기구를 통해 화순의 옛 이름 ‘오산’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시는 그 내용보다 시제를 통해 작품을 짓게 된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시제에 따르면, 이 작품을 지을 당시 함께 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함께 한 사람으로는 조경중을 비롯한 여러 선생들, 제생들, 최선림 등이다. 조경중은 화순 출신으로, 1567년(선조1)에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 정랑과 이조 정랑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최선림의 ‘선림’은 최경장(崔慶長)의 자이다. 최경장 역시 화순 출신으로, 기대승의 문인이다. 1564년(명종19)에 문과에 급제하여 담양 부사 등 여러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때 형 최경운(崔慶雲), 동생 최경회(崔慶會) 등과 함께 의병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는 그 창작 연도를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으나 최경장이 문과에 급제했을 때 지은 것이기 때문에 1564년에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최경장이 문과에 급제하자 조경중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곳에는 조경중 외에 다른 여러 선생들과 제생들이 있었다. 박광옥은 그 자리를 마치 관망하는 듯이 읊었다. 화순은 나주 광주와 접해 있다는 것과 운수에 대해 소견을 말한 뒤에 마지막 절구에서 “이로부터 고을의 예악이 찬란하리라”라

17) 朴光玉, 《懷齋遺集》 卷1, <和順曹上舍景中慶席 諸先生以破天荒爲題試諸生 爲崔善林得第也 擬作> 한시 번역은 2026년 벽진서원보존회에서 간행한 《증보 국역 회재유집》을 따랐다. 이하 인용한 시도 동일하다.

하였다. 이 결구가 바로 박광옥이 이 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박광옥은 최경장의 개인 문과 급제를 공동체의 경사로 확대했는데, 개인의 성공을 공동체의 영광으로 형상화하였다.

〈창에 경정산 구름이 떨어지다〉시는 시험장에서 지은 응제시(應製詩)이자 차운시(次韻詩)이다. 그 창작 배경은 시제에 붙은 소주에 나타내었는데, “감사 송찬(宋贊)·도사 민충원(閔忠元)이 광주에 도착해 이를 제목으로 삼아 제생들에게 시험을 보이니 원운을 써서 이를 짓다.”라 하였다. 다시 말해 감사 송찬과 도사 민충원이 광주에 도착해 “창에 경정산 구름이 떨어지다(窓落敬亭雲)”라는 제목으로 제생들에게 시험을 보였고, 박광옥이 그 원운을 따라 시를 지은 것이다. ‘窓落敬亭雲’은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오언율시 《최 팔노인의 물가 정자를 지나며(過崔八丈水亭)》의 함련 2구이다. 이 시의 압운자는 ‘군(君)’, ‘운(雲)’, ‘문(聞)’, ‘군(群)’이다. 박광옥은 이 압운자를 활용해 총 3수를 연작시를 지었다.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박광옥을 비롯한 제생들은 중국 시문 전통을 공유한 학문 공동체로서, 이백의 경정산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문학적 공감과 학문 공동체의 연대를 형상화했다.

〈내시들이 입학하여……요구하여〉시는 학문과 문학을 매개로 한 관료 문인들의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광옥의 「연보」 44세 조에 “12월에 내시부 교관에 임명되다.”¹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는 내시 교관에 임명된 뒤에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제에 등장하는 인물은 안사흠(安士欽)·김언무(金彦武)·조원(趙瑗) 등 총 세 명이다. 안사흠은 박광옥과 같은 내시 교관이고, 김언무는 상서원 부직장이며, 조원은 일반적인 문인 관료이다. 이 세 사람 중 중심인물은 김언무이다. 박광옥은 상서원에서 김언무를 만났고, 김언무가 조원의 시를 보여주며 화답을 요청하자 이에 응해 시를 지었기 때문이다. 안사흠은 함께한 인물이고, 조원은 시를 매개로 교류한 인물이다. 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부새 낭관이 좌액문에서 돌아오니	符璽郎從左腋歸
작은 사랑에 봄은 고요하고 벼슬아치들 드물어	小廊春靜吏人稀
이 땅이 용지와 가까운 줄 알려거든	欲知茲地龍池近
담장 너머 뻗뻗이 선 나무들 빛을 보시게	牆外森森樹木輝 ¹⁹⁾

이 시는 상서원이라는 관료 공간에서 지은 것이라서 그런지 궁궐과 관련한 한자가 몇 개 나온다. 기구에서 말한 ‘부새랑(符璽郎)’은 옥새와 부신을 관장하는 상서원의 관원들을

18) 朴光玉, 《懷齋遺集》附錄 上卷 「年譜」 44歲, 十二月 除內侍敎官. 박광옥이 44세 12월에 내시 교관에 제수되고, 이듬해 1월에 서울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경오년 2월 13일에 사직동 집에 있으며 짓다〔庚午仲春十三日 在社稷洞第作〕〉시의 시제 소주에 나오는데, “지난해 12월 21일에 이조 낭관을 천거할 때 내시 고관에 제수되어 1월 15일에 출발하여 27일에 서울에 들어갔다.”라 하였다.

19) 朴光玉, 《懷齋遺集》卷1, 〈考講入學內侍 與安敎官敬叔 士欽 會于尚瑞院 院副直長金彦武 虎臣 入直示余以趙內翰瑗所寄絕句 求和〉

지칭하고, ‘좌액(左腋)’은 좌액문으로, 승정원이나 상서원 근처의 협문을 뜻한다. 그리고 전구에서 말한 ‘용지(龍池)’는 원래 궁궐 안의 연못을 뜻하나 문맥상 임금이 계신 곳을 은유하였다. 상서원이 대궐 깊숙한 곳, 즉 임금의 지척에 위치한 핵심 관청임을 나타내었다. 박광옥은 이처럼 관료 생활 속에서도 시를 통해 학문적 소통과 우의를 이어갔으며, 창화를 매개로 한 문인 관료 집단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상화하였다.

〈박중인 문하생들이……써서 보이다〉시는 박중인(朴仲仁)의 문하생들이 마련한 수연(壽宴)에 참석하여 지은 창화시이다. 이 시 속에는 박중인 외에 협지(協之), 즉 권오기(權五紀)도 나온다. 어느 날 박광옥은 박중인의 문하생들이 마련한 수연 잔치에 초청되었고, 술을 마시 분위기가 무르익자 권오기가 먼저 절구 두 수를 선창하였다. 그리고 이어 다른 사람들도 화답시를 지었고, 마침내 박광옥 차례가 되자 시를 지었다. 박광옥은 총 3수를 지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좋은 날 계곡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勝日溪邊置酒尊
모두가 장수를 빌며 은혜를 칭송하네	冠童迭壽各稱恩
과분한 자리에 마음까지 흐뭇해져서	叨叅亦覺幽情暢
즐기다 보니 앞마을에 황혼이 들도다	一任前村樹色昏 ²⁰⁾

기구 내용을 보면, 아마도 수연 장소는 계곡이었던 듯하다. 승구에서는 수연의 분위기를 읊었고, 전구에서는 박광옥 자신이 잔치에 초청된 것이 과분하다라고 말하여 겸손의 자세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 절구에서 잔치가 황혼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수연 잔치의 주인공인 박중인도 같은 압운자로 시를 지었는데, “좋은 때에 만나 술을 함께하게 된 것은, 문하생이 도모한 일이지 어찌 나의 은혜인가. 온화한 바람과 맑은 경치에 노랫가락 높으니, 즐겁게 우정을 나누는 사이에 황혼이 깃들도다.〔令節相逢共一尊 諸生謀事我何恩 和風晴景笙歌迴 好把歡情到日昏〕”²¹⁾라 하였다.

2) 우정과 정감의 형상화

박광옥 교유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람들과 만나 우정과 정감을 쌓은 작품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박광옥의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주요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공간, 만남과 이별, 시회, 창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네 개의 매개체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가령, 어떤 공간에서 시회를 열었다면, 공간과 시회 둘 다 매개체가 되어 우정과 정감을 형상화한 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회와 창화 역시 상

20) 朴光玉, 《懷齋遺集》卷1, 〈朴仲仁門下諸生 共設壽席見邀 酒半 協之先唱二絕句 以詠其事 座依韻相和 遂囑余繼之 忘拙書示〉1.

21) 朴光玉, 《懷齋遺集》卷1, 〈朴仲仁門下諸生 共設壽席見邀 酒半 協之先唱二絕句 以詠其事 座依韻相和 遂囑余繼之 忘拙書示〉附 朴仲仁詩.

향에 따라 접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네 개의 매개체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이다. 공간의 경우, 수월정과 식영정, 지리산과 같은 공간을 매개로 우정과 정감을 쌓은 교유시를 말한다. 한편, 시회를 매개로 삼은 교유시는 공간과 무관하게 시회를 열어 우정과 정감을 나눈 것을 말한다. 또한 창화를 매개로 한 교유시의 경우, 시회를 굳이 열지 않았더라도 시를 주고받은 것을 주목해 작품을 선정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창화는 곧, 우정과 정감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1회성 수답(酬答)이 아닌 최소 3회 이상의 수답이 있었는지를 보고 작품을 선정했다.

첫째, 공간이 매개체가 되어 우정과 정감이 형상화된 주요 작품으로는 〈백운동의 조운백을 찾아가다〉, 〈식영정 벽의 석천 시에 차운하여 김강숙에게 보이다〉, 〈방장산을 유람하고 돌아온 뒤에 이순에게 주다〉 등을 들 수 있다.

〈백운동의 조운백을 찾아가다〉시는 2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조준룡과 관련된다. 조준룡은 박광옥과 생원, 진사 회시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으로, 〈경오년 늦겨울에 동년 5,6명이 사직동 술집에서 모였다. 선초가 선두로 시 한 수를 짓고, 여러 사람들이 화답했는데, 즉석에서 짓거나 혹은 추억하며 술회하다〉시와도 관련된다는 것을 역시 2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백운동의 조운백을 찾아가다〉시는 총 2수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첫 번째 작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흰 구름 깊은 곳을 조용할 때 찾아가서	白雲深處赴幽期
잠시 속세 갇힌 잡아 맑은 못에 씻어보네	暫把塵纓洗淥池
쌓인 버릇 씻지 못해 머무를 수 없어서	結習未除留不得
돌아오니 꿈만 같고 또 어리석은 듯하다	歸來如夢又如癡 ²²⁾

이 시는 백운동이라는 은일 공간을 매개로 하였다. 백운동은 서울 인왕산(仁王山)에 있는 계곡을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 따르면 “인왕산 기슭에 있는데, 추부(樞府) 이염의(李念義)가 살던 곳이다.”²³⁾라 하였다. 이러한 백운동을 박광옥은 기구에서 “흰 구름 깊은 곳”이다라 하여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박광옥은 조준룡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았으나 속세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기에 은일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식영정……보이다〉시는 식영정 공간을 매개로 한 시이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맑은 새벽에 석림에서 출발해	淸曉石林發
저물어 창송정에 이르렀네	暝到蒼松亭
거사를 엄숙히 생각해보니	森然憶居士

22) 朴光玉, 《懷齋遺集》卷1, 〈白雲洞訪曹雲伯〉1.

23) 《新增東國輿地勝覽》卷3「漢城府」, 白雲洞 在仁王山麓 樞府李念義舊居.

별이 된 지 오래 되었구나
바람은 외로운 베개 어루만지고
달은 작은 뜰에 떠올라 걸렸네
아이가 어떤 나그네냐 묻길래
한번 웃고 문지방에 이 시 썼네

久矣爲列星
風臥撫孤枕
月生離小庭
草童問何客
一笑題山扃²⁴⁾

이 시는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박광옥이 지리산을 유람하던 중에 들러 지었다. 수련 2구에서 말한 ‘창송정’은 식영정의 또 이름이라고 보면 된다. 식영정 뒤로 푸른 소나무가 있어서 박광옥이 일부러 그렇게 부른 것이라 생각한다. 박광옥은 석림에서 출발해 식영정까지 이르렀다. 식영정에 간 목적은 바로 김성원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박광옥은 식영정에서 우선 임억령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 당시 임억령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함련 2구에서 “별이 된 지 오래되었구나”라 하였다. 경련에서는 식영정 주변의 ‘바람’, ‘달’ 등의 자연물을 언급하여 누정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미련을 보면, 박광옥은 김성원을 결국 만나지 못하였다. 박광옥은 식영정이라는 공간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임억령을 기억하고 현재의 김성원과 시를 통해 교류하였다. 즉, 식영정은 과거 문인과 현재 문인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다.

〈방장산을……이순에게 주다〉 역시 2장에서 잠깐 언급하였다. 그 내용은 “두류산 명승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더니, 수많은 골짜기와 바위는 수놓은 비단인 듯하다네. 동쪽 암자의 밝은 달 밤 빼고 나면, 학천의 나는 폭포는 꿈속에서도 시끄러워.”²⁵⁾이다. 이 시는 곧, 지리산 이야기로 그 내용을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절구에서 지리산 유람 이후에도 꿈속에 남은 달밤과 폭포의 기억을 제시함으로써, 공간에서 얻은 감흥을 고경명과 공유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즉, 자연 경관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시키는 매개로 기능한다.

둘째, 박광옥은 만남과 이별을 매개로 삼아 우정과 정감을 시로 형상화하기도 했다. 우선 만남을 매개로 한 주요한 시로는 〈밤에 김화현에서 머무르며 동년 이백소 현감에게 보이다〉, 〈저녁에 금성현에 이르러 주인 이군에게 보이다〉, 〈이날 낮에 단발령 뒤 냇가에서 말을 세웠다. 비가 내려 잠시 길 왼쪽 초막에서 피했는데, 곧 회양부 방백을 지대하는 곳이다. 이어 이영을 거두어 취해 우구를 만들어 마침내 장안사로 들어가니 날이 벌써 어두컴컴해졌다. 23일 장안사로부터 명연을 거쳐 지나 표훈사에서 쉬었다가 마침내 정양으로 올라가 개심대로부터 오던 통천 군수 이응기를 만났다. 원통사의 백족시 한 절구를 꺼내 보여주어 운을 따라 시를 짓다〉, 〈김홍택의 방문에 감사하며〔謝金君弘澤見訪〕〉 등이 있다.

24) 朴光玉, 《懷齋遺集》卷1, 〈息影亭壁上 有石川所題詩 次韻付諸門扇 留示主人金剛叔〉

25) 朴光玉, 《懷齋遺集》卷1, 〈遊山歸後 贈而順〉, 逢人爭問頭流勝 萬壑千巖錦繡痕 除却東庵明月夜 鶴泉飛瀑夢中喧.

〈밤에……보이다〉시는 48세 때 금강산을 유람하던 중에 동년 이개운이 현감으로 있는 김화현을 찾아가 지은 방문시(訪友詩)이다. 시제에서 언급한 이백소의 ‘백소’는 이개운의 자라는 것을 2장에서 이미 알렸다.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온종일 말 타고 달려 얼굴에 가득한 먼지	盡日驅馳滿面塵
밤에 화관에 머무르며 잠깐 머뭇거렸네	夜投華館乍逡巡
주인은 혹시 내 성명 아시는지 알고 싶소	主人倘願知名姓
당시 소과 시험 합격자 중 최고 어렸지	蓮榜當時最少身 ²⁶⁾

승구에서 말한 ‘화관’은 현감이 머무르는 관아를 이른다. 온종일 금강산 일대를 유람하다가 김화현의 관아에 이른 박광옥은 잠시 머뭇거렸다고 했다. 그 까닭은 혹시 젊은 시절에 이미 알고 있던 현감이 혹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음을 전구와 절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박광옥의 동년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저녁에……보이다〉, 〈이날……짓다〉시 역시 금강산을 유람하던 중에 지었다. 특히, 〈저녁에……보이다〉시는 앞에서 본 〈밤에……보이다〉시와 유사하다. 금강산을 유람하던 중에 친구가 수령으로 있는 고을을 찾아 묵으며 우정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이날……짓다〉시는 금강산 유람 중 이응기와 만나 그가 보여준 승려의 시에 차운하며 문학적 교류를 나눈 작품이다. 〈김홍택의 방문에 감사하며〉시는 김홍택이 박광옥을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사방시(謝訪詩)이다. 작품의 핵심은 벗의 방문에 대한 감사와 인간적 정감이다. 학문적 토론이나 공간 체험보다 명리를 초월한 우정과 상호 신뢰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제 이별을 매개로 한 작품을 보겠다. 그 주요 작품으로는 〈벼슬에 부임해 가는 채 낭천을 보내며(送蔡狼川赴官)〉, 〈김희민은 상서 부직장이 되고, 내가 동청에서 내시를 교육시키면서 17.8개월 동안 서로 어울렸다. 계유년 7월 김군이 양주 현감이 되어 그 가는 길에 시로 회포를 담아 주다〉, 〈고사성의 시를 차운해 일현이 광덕산으로 가는 것을 전송하다(次高師聖韻 送一玄之廣德山)〉, 〈희경루에서 목사 유태호를 전별하며〉, 〈부안으로 부임해 가는 과거급제 동기생 김윤중을 보내며(送金允中年兄赴任扶安)〉, 〈심방숙과 이별하며〉 등이 있다.

〈벼슬에……보내며〉시는 채 낭천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길에 지어준 작품이다. 함련 1구에서 “두 곳의 밝은 마음은 호수 밖 달 볼 것이고(兩地明情湖外月)”라 표현하여 공간을 초월한 정신적 교류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김희민은……담아 주다〉시제 속 김희민의 ‘희민’은 김극효를 가리킨다고 2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김극효는 박광옥이 내시교관을 지낼 때 교류한 인물인데, 이제 지방 수령으로 떠나게 되어 송별시를 지어 주었다. 미련 1구에서 “꿈속 혼은 정말로 그대 깃발 따르니(魂夢正隨征旆去)”라 말하여 심정적으

26) 朴光玉, 《懷齋遺集》卷1, 〈夜投金化縣 示主倅李同年伯紹〉

로는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고사성의……전송하다〉시는 시승 일현이 광덕산으로 떠나는 길을 전송하며 지은 작품이다. 미련에서 “이별한 뒤 다시 편지 끊어진다는 것 아니, 시름하며 기러기들 강 건너는 소리 듣네.〔別後更知書信斷 愁聞鴻鴈度江城〕”라 말하여 편지가 끊길 것을 염려하며, 공간적으로 멀어져도 정신적 교유는 계속된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희경루에서……전별하며〉는 2장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다. 이 작품은 총 3수로 이루어진 연작시인데, 세 번째 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남녀노소 손 붙잡고 전별연에 달려가니	老少扶携趁餞筵
백성들의 마음은 원래 모두가 똑같아	民情自是有同然
떠나는데 달리 줄 선물 없어서 부끄럽나니	贈行却愧無他產
시문이 일전 가치 없다 말하지 마소	休道詩文不直錢 ²⁷⁾

기구를 통해 당시 유경심이 광주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 전별연에 모여들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박광옥은 기구에서 유경심의 송별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지역민 전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 절구에서 시를 가장 귀한 전별의 예물로 인식하는 문인의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박광옥의 송별시를 받은 유경심 역시 시를 지어 화답하는데, “다정한 어르신들이 송별 잔치 베풀어주니, 가을바람에 돌아갈 생각이 더욱 아득하네. 3년간 정사 안 돌봐 남긴 혜택 없어서, 일백 전보다 더 큰 술잔이 되레 부끄럽소.〔父老多情設祖筵 秋風歸思轉茫然 三年坐嘯無留惠 却愧深盃勝百錢〕”라고 읊어 겸손한 자세를 내보였다.

〈부안으로……보내며〉시는 박광옥이 49세(1574, 선조7) 때 지었는데, 과거 급제 동기생 김윤중의 부안 부임을 축하하며 전송한 작품이다. 마지막 절구를 통해 부안에서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의 신망을 받으며 임기를 마치기를 기원하였다. 〈심방숙과 이별하며〉시는 2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심의겸이 감사에서 교체되어 서울로 돌아갈 때 지었다. 총 3수로 이루어진 연작시인데, 특히 두 번째 시의 수련부터 경련까지 “현인 추천하고 세상 근심하니 조정에서 벼슬할 자태인데, 지금은 지역에서 다만 작은 일을 행할 뿐이네. 공평하게 세금 거두어 소작인들 기뻐했고, 정치에서 우선 선악 구별하여 선비 풍토 바꾸었지. 공과 사 논의할 제 외로운 충성심 허여했고, 등용되고 버림받을 때 큰 절개 분명히 했네.〔推賢憂世廟廊姿 方面如今特小施 賦就廉平佃戶悅 政先旌別士風移 孤忠正許公私際 大節須明用舍時〕”라 읊어 심의겸의 정치적 식견과 인품, 관료로서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셋째, 시회가 매개체가 되어 우정과 정감이 형상화된 주요 작품으로는 〈고이순이 수정에 있는 나를 찾아와 사성과 함께 조출한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순이 우선 한 수를 쓰고, 나와 사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균현이 뒤에 이르렀다. 시첩을 벽 위에 두도록 하다〉, 〈일월이 찾아와 함께 수정에 이르러 또 앞 시에 차운하다〔一元見訪 共到水亭 又次

27) 朴光玉, 《懷齋遺集》卷1, 〈喜慶樓 餞牧使柳侯太浩〉3.

前韻)), 〈수월정에서 일원과 함께 짓다(水亭 與一元 共賦)〉, 〈경오년 늦겨울에……술회하다〉, 〈8월 그믐날 밤에 기잠부를 호연방 집으로 찾아가 만났는데, 별좌 김이정도 도착하였다. 《동호창화시축》을 보여주기에 ‘소’ 자 운을 사용해 소회를 부치다〉 등이 있다.

〈고이순이……두도록 하다〉, 〈일원이……차운하다〉, 〈수월정에서……짓다〉 등 시는 2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박광옥이 43세 때 세운 수월정과 관련된다. 이 중에서 〈고이순이……두도록 하다〉 작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년간 몸져누워 마음 편치 않았는데	臥病多年意未平
청명절이 가까워져서 갑자기 놀랐네	忽驚時節近清明
들판 정자에는 수많은 버들만 있나니	野亭惟有千條柳
오늘도 의연히 모두 옛정을 지냈구나	今日依然總舊情 ²⁸⁾

이 시는 자칫 누정 수월정이 우선 언급되어 공간이 매개체가 되어 우정과 정감을 나타내었다라고 볼 수도 있으나 중심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시를 짓는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시회가 매개체가 된 작품에 포함시켰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수월정에서 열린 시회와 술자리를 배경으로 고경명·고경순·이군현 등과의 문인 교유를 그렸다.

〈일원이……차운하다〉, 〈수월정에서……짓다〉 시 모두 일원이 등장한다. ‘일원’은 이만인(李萬仁)의 자이다. 이 두 시 모두 앞의 〈고이순이……두도록 하다〉 시와 연관을 지어 보아야 한다. 즉, 〈일원이……차운하다〉, 〈수월정에서……짓다〉 시를 통해 수월정 시회에 참여한 사람은 박광옥을 비롯하여 고경명·고경순·이군현·이만인 등 최소 다섯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오년 늦겨울에……술회하다〉 시는 과거 급제 동기생들이 모여 학연 공동체의 교유를 보여준 대표적인 작품이다. 총 2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은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박광옥의 나이 45세 때 지었다. 과거 급제 동기생 5,6명이 사직동 술집에 모여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럽게 시회를 열어 우정을 돈독히 하였다. 〈8월 그믐날……소회를 부치다〉 시도 2장에서 잠시 언급하였다. 이 작품 역시 시회를 열어 박광옥과 기대승, 김취려가 우정과 정감을 나누었다. 작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정 퇴청 3년간 발길은 더욱 멀어졌으나	退食三年跡益疏
잠시 동호에서 두 마음이 겸허했다는 것 아네	東湖暫覺兩懷虛
훗날 어부와 나무꾼 되어 웅졸함 숨길만하나	漁樵他日堪藏拙
지금의 경제제민을 문득 그대들에게 맡기네	經濟而今却付渠 ²⁹⁾

28) 朴光玉, 《懷齋遺集》卷1, 〈高而順 訪余於水亭 與師聖 共開小酌 而順先題一首 僕與師聖 繼之 李君賢後至 使帖諸壁上〉

29) 朴光玉, 《懷齋遺集》卷1, 〈仲秋晦夕 往訪奇潛夫于浩然坊第 金別坐而精亦到 出示東湖唱和詩軸 因用疏字韻 寄懷〉

기구의 내용을 통해 보면 박광옥은 기대승, 김취려와 자주 만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시회는 오랜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알 수 있다. 박광옥은 전구와 결구를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었다. 즉, 나는 훗날 어부와 나무꾼처럼 숨어 살아도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기대승과 김취려에게 맡긴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신의 은거 의식과 벗들의 경제 의식을 대비하여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교유 의식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박광옥은 연속된 창화를 매개 삼아 우정과 정감을 시에 형상화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삼가 상관 정 사상의 시를 차운하다〉, 〈동곡이 충주 경영루에서 지은 시에 화답하다〉, 〈거듭 훌륭한 시를 받고 졸렬한 생각을 엮어서 화답하다〉 등이 있다. 앞 2장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세 작품 모두 정언지와 관련된다. 정언지는 1578년(선조 11)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했는데, 박광옥도 같은 해 12월에 충청도 도사를 배수 받았다. 두 사람은 곧, 충청도라는 같은 지역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창화까지 하게 된 것이다. 정언지가 직급으로는 더 높기 때문에 박광옥은 시제에서 ‘사상’이라는 칭호를 썼다.

〈삼가……차운하다〉 시는 정언지의 작품에 차운한 것으로, 박광옥은 공무 수행으로 인한 객지 생활의 고단함과 향수(鄉愁)를 노래하였다. 〈동곡이……화답하다〉 시는 정언지가 충주의 경영루에서 지은 시에 박광옥이 차운하여 화답한 작품이다. 충주의 산수와 국가 경영에 대한 포부를 함께 노래하였다. 다음은 마지막 창화시 작품 〈거듭 훌륭한……화답하다〉의 내용이다.

산하로 띠를 두른 별도의 지역에 만들어진	襟帶山河別作區
많은 성가퀴의 분장된 성 사방 모퉁이 장엄하네	粉城千堞壯方隅
이날의 농사는 왕도정치를 알게 하고	桑麻此日知王政
당시의 다툼은 패도정치를 비웃게 하네	蠻蠲當時笑霸圖
월악산에 구름 끼니 하늘이 비 내리려는 것이요	月岳雲蒸天欲雨
금대에 사람 떠나고 새들만 헛되이 지저귀네	琴臺人去鳥空呼
난향을 지니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자 했는데	願將蘭佩要泡母
골짜기에서 향이 사라지니 자취도 달아나도다	洞裡香消跡如蕪 ³⁰⁾

이 시는 정언지가 다시 시를 보내오자 박광옥이 거듭 화답한 재차 창화시이다. 박광옥은 시를 통해 충주의 산하와 민생을 노래하면서 왕도정치의 이상을 강조하고 패도정치를 비판하는 역사의식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시문을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창화를 통해 문학적 공감뿐 아니라 유교적 정치관과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교유를 형상화하였다.

30) 朴光玉, 《懷齋遺集》卷1, 〈再承高作 強構拙思 奉和〉

3) 애도와 기억의 형상화

본고에서 집계한 《회재유집》 권1에 전하는 만시는 총 31제 44수이다.³¹⁾ 이 만시 중에서 교유시로서 살필 수 있는 작품을 나열하면 〈상사 박시숙을 생각하며(懷朴上舍時叔)〉, 〈상사 박방로의 만사 2수(朴上舍邦老輓詞二首)〉, 〈낙안 김 상사의 만사(樂安金上舍輓詞)〉, 〈김철계 부인의 만사〉, 〈정 주부의 만사 2수(鄭主簿輓詞二首)〉, 〈곽익의 이름은 예인데, 집은 벽파정 동쪽에 있다. 사용한 법도는 자상하고 신중했는데, 혁혁한 효험은 없다 해도 요행의 꾀는 쓰지 않았다. 내가 어버이상을 치르느라 병으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의사는 이때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여러 차례 찾아와 진찰해 주어 자못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는 숙환으로 작고하였다. 그 장례식에서 아들 인수 등이 만가를 구해 구전에 빙넌다 하기에 근체 읊시 1수를 써서 그 마음에 부응하다(郭醫 藝其名 家在碧波亭之東 用法詳慎 雖無赫赫之效 而不爲僥倖之計 余居憂 病幾不保 醫時年過七十 屢來診視 頗深感荷 未久 醫以宿病作故 其葬也 子麟壽等 求輓歌 以賁九泉 書近律一首 以副其情云)〉, 〈박비현이 장인 기공을 위해 만시를 구하여(朴丕顯 爲岳丈奇公求輓)〉, 〈박덕로가 양어머니의 장례에서 만가를 구하여(朴德老 葬養母 求歌以輓之)〉, 〈박자위·천기·천경이 어머니를 위한 만시를 구하여(朴子緯·天紀·天經 爲先夫人 求輓)〉, 〈김 훈도의 만사〉, 〈목사 김운제의 만장을 지어 정계함의 요구에 응하다〉, 〈이해 초겨울에 잠부가 질병으로 사직하고 남쪽으로 돌아가다 도중에 종기가 일어나 고부에 사는 참봉 김경숙 집에서 죽었다. 2월에 나주 광구에 안장하니 만시를 지어 슬픔을 부치다〉, 〈상사 이길이가 죽은 처를 위해 만시를 요청하여(李上舍洁 爲亡室 求輓詞)〉, 〈유 부제학을 슬퍼하다〉, 〈고정지의 만시〉, 〈배 상사의 만사〉, 〈철계의 부음을 듣고〉 등이다.

〈상사 박시숙을 생각하며〉는 박민중(朴敏中)을 애도한 시이다. 박민중은 박상(朴祥)의 둘째 아들로, 1536년(중종31) 향년 35세에 세상을 떠났다. 작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들보 달이 실없이 나그네 회포 움직이니
이 사람과 같은 시절을 함께 못해 애석하다
높은 재주 지닌 채 청년에 죽어 다 슬퍼했고
뜻 맞아 묶은 풀 슬퍼한 이들 유독 많았지
흩어진 서책들은 구름처럼 아스라해지고
겨울 뒤의 동산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였네
당시에 지은 글 수집 못했다 한하지 말고
만시에 해당하는 맑은 시 스스로 만족하게나

樑月無端動客思
斯人惆悵不同時
才高共惜青年沒
志契偏多宿草悲
書帙散來雲杳杳
林園冬後雪離離
莫恨當時未採筆
清詩自足當哀辭³²⁾

31) 김태완은 앞의 논문 315쪽에서 박광옥의 만시 편수를 총 37제 51수라고 하였다. 이러한 집계는 본고와 상이한데, 각자 범위 설정이 달라 그런 것일 수도 있다.

32) 朴光玉, 《懷齋遺集》卷1, 〈懷朴上舍時叔〉

박민중이 세상을 떴을 때 박광옥의 나이는 겨우 11세였다. 따라서 이 만시는 박민중이 죽고 나서 곧바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이유로 시제 속에 ‘만시’ 또는 ‘만사’라는 말을 넣지 않고, ‘회(懷)’ 자를 넣었다고 생각한다.

수련에서는 박민중과 시절을 함께 하지 못해 애석하다라고 하였고, 함련에서는 박민중이 높은 재주를 지닌 채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서 슬프다고 하였다. 이어 경련에서는 박민중이 남기고 간 서책과 그 무덤을 언급하여 죽은 사람을 추억하였고, 마지막 미련에서는 박민중이 남긴 시가 최고의 애사(哀辭)라고 말하여 깊이 애도하였다. 박광옥은 고인의 인품과 학문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애도하였다. 사실 박민중은 연배를 따졌을 때 박광옥이 직접 교유한 것은 아니다. 즉, 간접적으로 교유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평소 박민중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주 들어 그를 생각하는 애도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상사……2수〉시는 박방로(朴邦老)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초혼과 종이돈 등의 장례 전고, 달·구름·봄풀 등의 자연 이미지를 활용하여 죽은 벗을 기억 속에 지속시키는 교유를 형상화하였다. 〈낙안……만사〉시는 김수(金粹)의 생애와 학문, 인품을 회고하고 역사적 전고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의 죽음을 사림 사회의 기억으로 확장시켰다. 〈김철계 부인의 만사〉시는 고인을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우자를 잃은 김언거의 슬픔에 공감하며 그 상실감을 함께 감내하는 방식으로 교유를 형상화하였다. 〈정……2수〉시는 정 주부의 생전의 문안과 방문 약속을 회상하고, 형제·부자 관계의 전고와 가족적 어법을 활용하여 고인과의 친밀한 관계 및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기억의 교유를 형상화하였다. 〈곽의의……부응하다〉시는 곽의라는 의사가 세상을 뜬 것을 애도한 것이다. 작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훌륭한 처방 다 검색해 스스로 스승 얻었으니
어찌 꼭 풍속 따라 변하는 의료인 되겠는가
탕제의 약 효험은 동남쪽 지역까지 알려졌고
거상 중에도 사람 구원해 살리는 은혜 많았지
살아생전 매번 사람들 믿고 원망하지 않았고
죽은 뒤에야 의술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았네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누굴 의지할까
구천에서 부질없이 슬퍼하지 말라고 알려주네

檢盡名方自得師
何須隨俗變爲醫
湯劑惠及東南地
救活恩多草土時
每信生前人不怨
從知身後術應垂
如今緩急還堪恃
報道窮泉莫謾悲³³⁾

33) 朴光玉, 《懷齋遺集》卷1, 〈郭醫 藝其名 家在碧波亭之東 用法詳愼 雖無赫赫之效 而不爲僥倖之計 余居憂 病幾不保 醫時年過七十 屢來診視 頗深感荷 未久 醫以宿病作故 其葬也 子麟壽等 求輓歌 以賁九泉 書近律一首 以副其情云 臘月二十八日 用而順韻〉

이 시는 문인 간의 교유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의사 사이의 인간적 교유를 읊었다. 박광옥은 의사 곽예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두 사람과의 교유를 시제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박광옥이 어버이상을 치르느라 하마터면 죽음에까지 이를 뻔했으나 나이 70세가 넘은 곽예가 정성껏 돌보아서 죽음은 면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런 곽예가 세상을 떠났으니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애도시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박광옥은 미련 1구에서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누굴 의지할까”라는 말을 함으로써 곽예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드러내었다. 〈곽의의……부응하다〉 시는 박광옥이 특정한 신분예 국한되지 않고 애도시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박덕로가……구하여〉 시는 박덕로의 요청에 따라 그의 양어머니를 추모한 작품으로, 고인의 삶을 애도하는 동시에 상실을 겪은 벗의 슬픔에 공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혼도의 만사〉 시는 김언거의 형 김언우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김언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은일적 삶과 담담한 인생관을 높이 평가하였다. 〈목사……응하다〉 시는 정철의 요청에 따라 김윤제의 만장을 지어 그의 생애와 덕행을 기렸다. 김윤제의 청렴한 관료상과 효행, 선정을 기리고, 은퇴한 뒤에 이상적인 선비의 삶을 살았다고 읊었다. 〈이해……부치다〉 시는 기대승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작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민락의 좋은 소리 멀어지니	閩洛徽音遠
신기한 다른 이론 생겨났어라	新奇異論生
하늘이 그 도맥 붙들고자 하여	天教扶道脈
그대가 다시 밝은 운 받았었지	君復應休明
재주 컸으나 운명은 어긋났으며	才大命還舛
이치 궁구하니 마음 평안했네	理窮心自平
어이해 오랜 수명 못 누렸는지	如何蓄遐壽
뒤에 죽을 나는 통곡 터트리네	後死竟吞聲 ³⁴⁾

이 시를 통해서 박광옥이 기대승을 어떤 인물로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박광옥은 기대승을 가리켜 도맥(道脈), 즉 유학의 도를 이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박광옥과 기대승과의 교유는 서울에 있을 때 더욱더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기대승은 박광옥이 시험을 치른 뒤에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였고, 거처 호연방에서 시회를 열어 우정을 더욱더 돈독히 다졌다. 그런 기대승이 질병 때문에 사직하고 고향을 향해 가다가 세상을 떠나 시로 슬픔을 드러내었다. 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탄성(吞聲)’이라 말했으니, 참았던 슬픔을 한꺼번에 밖으로 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사……요청하여〉 시는 이길(李洁)의 아내를 위한 만시이지만, 실제로는 이길과의 교

34) 朴光玉, 《懷齋遺集》卷1, 〈是歲孟冬 潛夫謝病南歸 路中腫發 卒於古阜地金參奉敬叔家 二月永窆于羅州之廣口 輓以寄哀〉

유를 보여준 작품이다. 부모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어린 자식을 남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 미련에서 장자(莊子)가 아내가 죽었을 때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른 고사를 인용하여 비록 그의 초탈한 경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인간의 정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비판받을 수도 있다 하였다. 〈유 부제학을 슬퍼하다〉 시는 유희춘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고정지의 만시〉 시는 젊은 시절 함께 학문을 연마한 고정지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고정지는 2장에서 정리한 교유망의 첫 번째 ‘학문적 성장과 관련한 초기 교유망’ 속에 포함시켰던 인물이다. 박광옥은 이 만시를 통해 자신과 고정지 사이에 형성된 학문적 우정과 도의적 교유를 회상하였다. 〈배 상사의 만사〉 시는 젊은 시절 함께 시문을 공부했던 배현을 애도한 것이다. 배현 역시 2장에서 정리한 교유망의 첫 번째 속에 포함시킨 인물이다. 박광옥은 배현과 함께한 학문 수련과 가난, 질병 등의 기억을 시 속에 담아 애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칠계의 부음을 듣고〉 시는 김언거의 죽음 소식을 듣고 지은 것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박광옥은 김언거의 부인과 그 형의 만시를 지었고, 이제 김언거의 만시까지 지은 것이다. 특히, 〈칠계의 부음을 듣고〉 시에서는 김언거의 죽음을 장자의 생사관으로 승화시켜 애도의 정을 형상화하였다.

4. 교유 형상화의 의미

본고는 2장에서 박광옥의 시적 교유망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한 뒤 3장을 통해 교유의 시적 형상화 양상을 창화·우정·애도의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명하였다. 그 결과 박광옥의 교유망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적 형상화 양상 역시 여러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박광옥이 평생 동안 교유한 사람이 시 작품 속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앞 1장 머리말에서 언급했던 “홍직필은 박광옥이 기대승·박순·노진 등과 종유했다고 하였고, 김호영도 기대승·고경명·박순·이이·노진 등과 도의지교를 맺었다”라고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홍직필과 김호영이 언급한 사람 중에서 박광옥의 시 작품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광옥의 문인들 박희수(朴希壽)·정운룡(鄭雲龍)·유사경(柳思敬)·임협(林俠)·이경룡(李慶龍)·유술(柳述)·박윤협(朴允協)·박윤성(朴允惺)·박사무(朴思懋) 등도 시 작품 속에 모두 등장하지 않는다.³⁵⁾ 따라서 한시를 통해 확인한 교유망은 박광옥의 전체 교유망이 아니라 현전 한시가 보여주는 문학적 교유망임을 밝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광옥 교유시의 형상화를 통해 문학적·타 문종과의 연계성·역사적·정치적인 의미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학적인 측면에서 박광옥은 창화와

35) 박광옥의 문인은 《증보 국역 회재유집》, 720-726쪽에 정리되어 있다.

증답을 통해 문인적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박광옥의 교유시는 그가 단순히 시를 간헐적으로 지은 사대부가 아니라, 시회·차운·증답·응제·송별·만시 등 다양한 시적 관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문인이었음을 보여준다. 박광옥에게 한시는 이미 형성된 친분을 기록하는 수단에 머물지 않았다. 시회와 창화는 공동체를 결속하고, 증답과 송별시는 관계를 지속하며, 만시는 죽은 벗의 삶과 문학을 보존하였다. 따라서 박광옥의 교유시는 그가 16세기 호남과 중앙의 문인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시문을 생산하고 유통한 능동적인 문학 주체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박광옥의 교유망과 교유시 형상화를 통해 문중 간 교유와 호남 사림의 연계를 엿볼 수 있는 의미를 남겼다. 박광옥과 박상 문중의 교유는 단일 인물과의 우연한 친분이 아니라, 문중의 여러 구성원에게 이어진 지속적 관계였다. 박광옥은 박상의 아들 박민중을 뜻이 맞았던 문인으로 기억하며 애도하였고, 박상의 동생 박우의 장남 박개와는 과거 동년 및 풍류의 관계를 이어갔으며, 차남 박순과는 학문과 도의를 매개로 교유하였다. 박민중·박개·박순은 모두 박상을 중심으로 가까운 혈연관계에 놓인 인물들이므로, 이들과의 교유는 박광옥이 박상 문중과 장기간에 걸쳐 중층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는 16세기 호남 사림의 교유가 개인 대 개인의 사립에 머물지 않고, 문중의 학문적 전통과 사회적 명망을 매개로 세대와 친족 관계를 따라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박광옥은 박상 문중 구성원들과 과거 동년, 시문 교유, 애도, 도의적 교류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으며, 그의 한시는 이러한 문중 간 연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라 할 수 있다.³⁶⁾

셋째, 박광옥의 교유망과 교유시 형상화를 통해 임진왜란 의병 창의를 인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광옥의 교유망은 호남 사림, 중앙 관료, 지방 수령, 과거 동년, 승려, 유람 동행자와 후배 문인까지 포괄하였다. 가령, 고경명은 임진왜란 때 함께 호남 의병을 주도한 인물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전쟁 중에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다. 박광옥과 고경명은 수월정에서의 시회를 함께 가졌고, 지리산 유람 전후에 증답이 있었다. 이를 통해 전쟁 이전부터 시문과 유람을 함께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임진왜란 때의 협력이 이전부터 축적된 상호 신뢰와 지역 사림의 동질성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김천일과도 문학적으로 교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양 시에 차운해 사중에게 보내다> 시는 이미 언급했듯이 김천일과 관련된다. 이는 김천일 역시 임진왜란 때만 만난 의병장이 아니라, 전쟁 이전부터 문학적 취향과 사대부적 삶의 이상을 공유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변사정(邊士貞)·정담(鄭湛)·남병(南鎬) 등 무인·의병

36) 박광옥은 평소에 박상의 문집 《눌재집》을 즐겨 읽었던 듯한데, 《회재유집》 권1에 이를 말해주는 작품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가한 중에 《충암집》을 보다 놀재가 스님에게 준 시에 차운하다(閑中 見沖庵集 次訥齋贈僧詩韻)》, 《한가한 중에 놀재의 시를 보고 차운하다(閑中 覽訥齋詩 次之)》, 《장차 개골산을 유람하려고 할 때에 박·김 두 선현의 <강천산> 운으로 이 시를 짓다(將遊皆骨 用朴金兩先正剛泉詩韻 賦此)》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박광옥이 평소 박상을 어떤 인물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인물과의 교유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 세 사람은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박광옥의 시 작품에 등장한다.³⁷⁾ 변사정은 남원 유람에 함께한 인물이자 임진왜란 의병장이고, 정담은 창화를 주고받은 무인이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권율(權慄) 휘하의 장수들과 함께 전쟁에 임하였다. 그리고 남병은 임진왜란 때 군량과 장비를 관장하며 왕을 호종했으며, 이러한 공으로 중부도사(中部都事)에 제수되었다. 또한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지휘 아래 노량해전에서 싸웠다. 그렇다고 할 때 임진왜란 이전의 문인·관료·무인 관계망이 위기 상황에서 의병 활동의 인적 토대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박광옥의 교유망과 교유시 형상화를 통해 조심스럽게 말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정치적 가치의 공유이다. 박광옥의 정치적 교유는 단순한 당파적 결속보다 유교적 정치가치의 공유에 바탕을 두었다. 그는 시를 통해 청렴한 행정, 현인의 등용, 민생의 안정, 충절과 출처의 의리를 이상적 정치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그의 교유 인물 가운데 박순·심의겸·정철·윤두수 등 후일 서인계의 중심이 된 인물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서인계 사람과의 정치적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승·유희춘·고경명·정언지 등을 포괄한 그의 교유망 전체는 당파보다 학문·지역·관직·도위가 중첩된 사람적 연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박광옥의 한시는 개인적 서정을 표현하는 작품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록한 문학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를 통해 스승과 벗의 학문을 논하고, 친구와의 우정을 나누며, 죽은 이를 기억하고 애도하였으며, 유람과 송별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이어갔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유는 박상 문종과 같은 문종 간의 연계, 호남 사림의 결속, 임진왜란 시기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는 인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박광옥의 교유시는 한 개인의 교유를 넘어 16세기 호남 사림 사회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학 자료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회재유집》 권1에 수록된 한시를 중심으로 박광옥의 교유망 유형과 그 특징을

37) 박광옥의 문집 《회재유집》 권1을 살펴보면, 변사정은 <재상 경차관 김여기가 금산 군수 임언실, 서산인 정수초 부자, 변중간과 함께 백장사 앞 대전 시냇가에 가서 가을 산을 구경하고, 저녁에 백장사에서 묵었다. 이튿날 아침에 김여기가 우선 장수로 향해 출발하였고, 변중간은 뒤에 떨어져 실상사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언종·정수초와 함께 말을 나란히 탔는데, 인월천 가에 도착해 말에서 내려 작별하며 읊시 한 수를 지어 읊어 두 사람에게 주었다(災傷敬差官金君汝器 與林錦山彦實鄭山人遂初父子邊君仲幹 往賞秋山於百丈寺前大田溪邊 夕宿右寺 明朝 汝器先發向長水 仲幹落後 入實相書齋 俺與彦宗遂初 共轡 到引月川邊 下馬 作別 吟得律詩一首 贈兩君)> 시에, 정담은 <일현의 화답시를 보고 다시 앞 시에 차운하다(逸軒見和 復次前韻)> 시에, 남병은 <남병이 광주로 돌아가는데, 그로 인해 친구를 탄식해 우연히 짓다(南鎬歸光州 因憶親舊 偶成)> 시에 각각 등장한다.

살피고, 교유 관계가 작품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가 박광옥의 생애와 시 세계, 또는 만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본고는 교유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의 인적 관계망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을 함께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먼저 박광옥의 교유망은 학문적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인맥, 호남 사림과의 교유, 관료 생활에서 맺어진 관계, 유람 과정에서 확장된 교유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교유 대상은 호남 사림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 관료, 지방 수령, 과거 동년, 승려, 유람 동행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박광옥이 16세기 호남 사림 사회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교유의 시적 형상화 양상은 크게 의례적 창화, 우정과 정감, 애도와 기억의 세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박광옥은 과거 급제 축하, 시회, 수연 등 의례적 상황에서는 창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드러냈고, 송별과 방문, 증답과 유람에서는 우정과 정감을 깊이 있게 형상화하였다. 또한 만시에서는 죽은 이를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인의 학문과 인품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역사 속에 남기려는 의식을 담아냈다. 이처럼 그의 교유시는 인간관계를 기록하는 동시에 관계의 의미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박광옥의 교유시는 문학적 의미를 넘어 사회·역사적 의미도 지닌다. 그의 교유는 놀재 박상 문중을 비롯한 여러 문중과의 연계를 보여주며, 호남 사림의 결속과 지역 문화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평상시에 형성된 문인·관료·사림의 교유망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협력하는 인적 기반으로 기능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학문과 도의를 중시하는 사림적 가치가 교유를 통해 공유되고 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박광옥의 한시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에 머물지 않는다. 그의 시에는 학문을 함께 논한 스승과 벗, 과거와 관직을 통해 만난 문인, 지역 사림과 문중, 승려와 의병 동지 등 다양한 인물들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창화와 증답, 송별과 만시 등의 형식을 통해 지속되고 심화되었다. 따라서 박광옥의 교유시는 한 개인의 교유 세계를 넘어 16세기 호남 사림 사회의 문학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역사적 실천을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문학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記言別集》

《梅山集》

《漆溪遺集》

《懷齋遺集》

《증보 국역 회재유집》, 벽진서원보존회, 2026.

김덕진, 「15세기 광주목 읍호승강과 희경루」, 《조선시대사학보》 91, 조선시대사학회, 2019.

김동수 교감·역주,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김만호, 「회재 박광옥의 의병활동과 추송」, 《호남학》 6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0.

김영국, 「광주목 희경루와 그 제영」, 《한국언어문학》 93, 한국언어문학회, 2015.

김태완,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의 만시(輓詩)와 애도(哀悼)의 서사(抒事)」, 《기독교와 문화》 20, 2023.

박명희, 〈증보 국역 《회재유집》, 임진왜란 호남의병장의 기절(氣節) 기록 총정리〉, 《증보 국역 회재유집》, 벽진서원보존회, 2026.

-----, 「懷齋 朴光玉의 시를 통해 본 삶의 軌跡」, 《우리말글》 84, 우리말글학회, 2020.

이종일,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의 생애와 학문」, 《향토사랑 문화사랑》Ⅱ, 라이프, 2007.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회재 박광옥의 학문과 실천, 그리고 공공성의 현대적 의미



[발표문-주제②]

회재 박광옥의 관직 생활과 인적 네트워크

나 영 훈(국립목포대학교)



회재 박광옥의 관직 생활과 인적 네트워크

나영훈(목포대)

1. 머리말
2. 박광옥의 가계와 학문적 기반
 - 1) 부계 친족과 통혼 관계
 - 2) 학문적 토대: 유헌 정황과 기묘사림 학맥의 계승
3. 명종대 향촌 활동과 지역 사족 관계망의 형성
 - 1) 생원진사시 입격과 향촌 활동
 - 2) 호남 유헌과의 교류망과 지역 네트워크
4. 선조대 관직 진출과 중앙과의 관계망 구축
 - 1) 선조초 관직 진출과 활동
 - 2) 동방과의 교류 양상
5. 맺음말

1. 머리말

회재 박광옥(懷齋 朴光玉, 1526~1593)은 16세기 후반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사족이자 학자 관료였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령의 나이에도 광주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지원하고, 제봉 고경명·건재 김천일 등과 함께 호남 의병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때문에 박광옥은 주로 임진왜란기 의병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되어 왔다.¹⁾ 그러나 박광옥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은 전란기에 의병 활동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임진왜란 당시 그가 광주와 호남 사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전란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친족적 기반, 학문적 계보, 향촌 활동, 과거 동방과 관직 동관을 통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었다.²⁾

그동안 박광옥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임진왜란기 의병 활동과 관련하여 그를 호남 의병의 후원자 또는 지역 사림의 원로로 파악하는 것이다.³⁾ 다른 하나는 광주 지역의 향촌 교화와 관련하여 향약 제정, 서당 운영, 향교 중수

1) 박광옥의 위상은 사후 평가에서 대부분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활동한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수의 문집에서 박광옥을 의리지사로 평가하는 것도 박광옥이 임란 의병 활동에 집중한 것에서 기인한다. 조선은 절의와 도덕, 학문을 중시하는 유교국가로서 절의 활동에 집중해 평가하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회재유집』의 서문을 작성한 매산 홍직필은 “의리를 높여 난을 막은 것이 호남의 으뜸이다. 중봉 조헌, 제봉 고경명, 건재 김천일과 같은 분은 몸으로 순국했다면 맨 먼저 일을 선창하여 한 도의 의사들의 마음을 격발시킨 분은 회재 박광옥 공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2) 호남 사림 내에서 박광옥의 위상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김태완도 제기한 바 있다(김태완,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의 만시(輓詩)와 애도(哀悼)의 서사(抒事)」, 『기독교와문화』20, 2023).

3) 김만호, 「회재 박광옥의 의병활동과 추송」, 『호남학』48, 2019.

등에 참여한 유현으로 조명하는 것이다.⁴⁾ 마지막으로 회재집을 통해 박광옥의 생애와 시문을 정리한 연구이다.⁵⁾ 이러한 연구사적 기반 아래 박광옥의 생애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다만, 박광옥을 임진왜란기의 의병 관련 업적과 향촌사회에서의 활동에만 집중해 살펴보았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사족으로 성장하게 된 동력의 하나인 관료로서의 역할과 위상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광주를 대표하는 사족으로서 박광옥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광옥의 학문이 어떠한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고, 어떤 지역 내 교류망을 통해 향촌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또 관직 진출 이후 어떤 관계망 속에서 중앙 관료로서 역할했는지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박광옥의 생애와 인적 네트워크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생애 초기의 친족 관계에 주목하여, 음성박씨 부계 친족과 외가 해평윤씨, 처가 이천서씨가 그의 사회적 기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조광조의 학맥을 이은 유현정향과의 관계를 통해 박광옥이 기묘사림 계열의 학문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검토한다.⁶⁾ 다음으로 1546년 생원시와 진사시에 입격한 이후 명종대의 향촌 활동을 살펴본다. 이 시기 박광옥은 향약 제정, 서당 운영, 향교 중수 등에 참여하면서 광주 지역에서 사족적 위상을 확립하였고, 하서 김인후·사암 박순·고봉 기대승·제봉 고경명·칠계 김언거·옥계 노진 등 호남의 유현들과 교류하며 지역 사림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넓혀 갔다. 마지막으로 선조 즉위 이후 박광옥의 관직 생활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인적 관계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박광옥은 학행으로 천거되어 내시교관에 임명되었고, 이후 문과 급제와 여러 관직을 거치며 중앙 관료사회에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생원·진사시 동방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으며, 동일한 관직을 지낸 동관들과도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동방·동관 관계는 박광옥의 인적 기반이 향촌 사회에만 머물지 않고 중앙 관료사회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박광옥이 임진왜란 이전부터 광주를 넘어 호남을 대표하는 사족이자 학문적·정치적 네트워크를 갖춘 관료로 성장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이를 통해 16세기 후반 호남 사족이 친족, 학맥, 향촌 활동, 과거와 관직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중앙 관료사회를 연결해 가는 양상을 박광옥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4) 김덕진, 「회재 박광옥의 향촌 활동」, 『임진왜란과 회재 박광옥 학술발표자료집』, 2019.

5) 이종일,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의 생애와 학문」, 『향토문화』23, 2003 ; 박명희, 「懷齋 朴光玉의 시를 통해 본 삶의 軌跡」, 『우리말글』84, 2020.

6) 정향과 관련해서는 주운진, 「流配詩에 나타난 游軒 丁燦의 의식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선아, 「16세기 호남사림 丁燦의 학맥과 知今書舍 강학」, 『민족문화논총』79, 2021가 참조된다.

2. 박광옥의 가계와 학문적 기반

1) 부계 친족과 통혼 관계

박광옥은 광주의 음성박씨이다. 1577년(선조 10) 박광옥이 쓴 족보의 서문에 의하면, 음성박씨는 고려대 합문지후(閣門祗候)를 지낸 선조를 시조로 한다고 했는데, 명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박광옥 당시에도 족보가 분실되어 선대를 알기 어려웠는데, 1543년(중종 38) 외손이 영남에서 얻은 족보와 종친 가운데 서울에 거처한 이가 기록한 족보를 토대로 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⁷⁾ 이후 박광옥의 4대조 태학 생원 박계양(朴繼陽)이 광주에 살면서 정착했다고 한다.⁸⁾ 박광옥의 조부는 박자회(朴子回)이다.

미수 허목에 의하면, “큰아버지 박봉(朴鵬)은 한림(翰林)이었고 아버지 박곤(朴鯤)은 사예(司藝)이었으며, 선생은 남방 고을에서 존중되므로 명족(名族)이라 부른다.”고 하여서 음성박씨가 광주의 명족이 된 것은 백부와 부친의 현달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 박곤은 1495년(연산군 1) 생원시에 입격하고, 1501년(연산군 7) 문과에 급제했다. 성균관 사예를 지냈다. 형인 박봉은 1495년(연산군 1) 생원과 진사에 모두 입격했고, 1504년(연산군 10) 문과에 급제했다. 다만 백부와 부친은 이후 관직 생활을 지속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인 박곤은 1532년(중종 27) 사망했는데 박광옥이 7세 때였다. 두 형이 있었는데, 큰 형은 박광정(朴光鼎)으로, 1540년(중종 35)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그러나 큰 형 역시 1548년(명종 3) 사망하였다.

박광옥이 광주의 사족으로 자임하고 학문을 익혀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처럼 부친 박곤과 백부인 박봉이 문과에 급제하며 쌓아둔 양반 사족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이다. 조선전기 4조 이내에 관인을 두어야 ‘양반’으로 인정받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박광옥의 차후 성장에 가문의 토대가 주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박광옥이 광주의 사족으로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음성박씨 부계친족의 영향은 물론 통혼 관계 역시도 중요했다. 조선은 상당 기간 외가에서 자라서 외조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광옥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외가나 처가의 영향과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⁹⁾

박광옥의 외가는 해평윤씨로, 찰방 윤인손(尹仁孫)의 여식이다. 『만성대동보』에 따르면 윤인손은 윤혼의 아들이자 윤연명의 손자이다. 윤연명은 소속옹주와 혼인했는데 소속옹주는 태종의 딸이다. 즉 윤연명은 부마로서 해평군에 봉해졌다. 그 아들이 윤혼이며 윤인손은 소속옹주의 손자이기도 하다. 윤인손은 윤사종과 윤계종을 낳았고 딸은 음성박씨 박곤

7) 『회재유집』권2, 족보서(族譜序).

8) 『국조인물고』권27, 명류, 허목 찬, ‘박광옥묘표’.

9) 조선중기까지의 혼인에서 남귀여가가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남성이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병인,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 - 반친영(半親迎)의 실체와 그 수용여부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58, 2005를 참조할 것.

에게 출가하였다. 즉, 박광옥의 외가는 해평윤씨로 왕실 부마가이기도 하다.

유사경이 지은 행장에 따르면 박광옥의 부친인 박곤이 7세에 일찍 사망하였기에 박광옥은 두 형과 함께 모친을 모시며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큰 형이 사망한 이후 가문을 이어받아 모친을 모시고 효성을 극진히 했다고 한다. 모친은 항시 집안 식구를 가법에 따라 통솔했고 자손을 도리에 따라 가르쳤다고 한다. 1565년(명종 20)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박광옥은 모친을 극진히 모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광옥은 1545년 이천서씨(利川徐氏) 서욱(徐勗)의 딸과 혼인하였다.¹⁰⁾ 서욱은 서훈(徐渾)의 아들이자, 서지(徐祉, 1468~1537)의 손자였다.

박광옥의 통혼 관계에서 보다 주목되는 것은 박광옥의 사위들로, 박광옥과 사돈 관계를 맺은 집안들이었다. 박광옥은 아들이 없었지만 딸이 넷이 있었고 딸들을 당대 명가이자 평소 교분이 깊었던 이들과 혼맥을 통해 관계를 유지해갔다. 특히 첫째 사위인 유사경은 가장 먼저 혼인해와 박광옥과 더불어 여러 사안을 논의하고 함께 해갔다. 1592년 임진왜란의 위기는 둘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알려준다. 또한, 둘째 사위 노사첨은 옥계 노진의 자제로, 넷째 사위 임협은 풍암 임복의 자제로 모두 당대에 호남은 물론 중앙에서도 영향력 있는 학자이자 관료들이었다. 이들은 호남지역에 외가로서 박광옥의 영향이 자리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째 사위는 예조정랑 문화유씨 유사경(柳思敬, 1556~미상)이다. 1556년(명종 11) 광주 양과동에서 태어났다. 유사경은 1585년(선조 18)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1605년(선조 38)에는 문과에 급제하기도 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장인인 박광옥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군량과 병기 수집의 일을 도맡았다. 특히, 전라감사 이광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는 상소를 박종정, 정운룡 등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문과에 급제한 이후인 1606년(선조 39) 예조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낙향했다. 『육유당일기(六有堂日記)』가 필암서원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한편, 유사경은 1604년 중수된 양과동 동약에 전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¹¹⁾ 박광옥의 행장이나, 그를 위한 여러 글들은 대부분 유사경이 지은 것이었다. 또한 그 아들 유술은 박광옥에게 학문을 배우기도 하여서 문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유사경은 첫째 사위이자, 문인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둘째 사위는 사인 풍천노씨 노사첨(盧士詹)이다. 노사첨은 풍천노씨로 옥계 노진(盧禎, 1518~1578)의 아들이다. 노진은 경남 함양 출생이다. 그러나 순흥안씨 안처순의 딸과 혼인하면서 남원의 처가에 거처하였다. 노진의 종가는 여전히 남원에 위치하고 있다. 노진은 남원을 중심으로 호남지역 여러 사족들과 교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주의 사족 박광옥과도 혼맥을 맺은 것으로 생각된다. 옥계 노진은 아들이 7명있다. 첫째 노사훈, 둘째 노사회, 셋째 노사흔, 넷째 노사악, 다섯째 노사전이며, 여섯째가 노사첨이다. 노사첨은

10) 『회재유집』 부록 하권, 행장, 유사경 찬.

11) 「양과동적입의서(良菰洞籍立議序)」, 유사경 찬. 양과정 내 편액.

후사가 없어서, 형 노사회의 아들 노근을 후사로 삼았다. 노근은 생원이다.

이처럼, 옥계 노진은 회재 박광옥이 평소 교분을 두텁게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자식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노진의 장인은 기묘명현인 안처순이었다.¹²⁾ 노진의 부친은 노우명으로, 모재 김안국의 추천으로 참봉에 올랐다. 증조 노숙동은 예문관제학, 조부 노분은 예문관교리로 모두 학문이 뛰어났다. 노진은 1537년(중종 32)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소재 노수신 등과 교분을 깊이 했다고 한다. 1546년(명종 원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560년 형조참의로 당상관이 되었다. 선초 초년 대사헌, 예문관제학,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 고관으로 제수되었으나 거의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다만 아쉽게도 노사침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노사침은 아들이 없어서 노사회의 아들인 노근을 후사로 삼았는데 노근은 생원을 지냈고 아들이 여섯 있었다. 첫째가 노형서(盧亨緒)이다.¹³⁾ 당대 호남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며 학문을 연마한 평생의 동지인 옥계 노진과 자식을 나눈 사이였다는 점에서, 풍천노씨와의 통혼은 박광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셋째 사위인 김용지(金隆址)와 그 아들 사인 김기(金圻)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자료가 없어 알기 어렵다.

마지막 사위는 선교랑 나주임씨 임협(林俠, 1573~1598)이다. 사위 임협의 부친은 풍암 임복(林復, 1521~1576)이며, 조부는 임봉(林鵬, 1486~1553)이다. 임봉은 좌승지를 지냈고, 임복은 승문원정자를 지낸 문과급제자였다. 풍암 임복과 박광옥은 사돈지간으로 깊은 인연을 지냈다. 임복은 나주 회진현 사람이다. 임복의 부친 임봉이 승지를 역임하며 고관을 지냈기에 가문이 현달했다. 임봉 역시 1540년(중종 35) 사마시에 입격, 1546년(명종 원년) 별시에 급제하였다. 임복은 을사사화 이후 억울하게 죽은 안명세를 비호한 일로 유배를 떠나기도 했다. 임복의 부친 임봉이 1552년 광주목사로 부임하며 함께 광주에 거처했는데 이때 박광옥과의 인연이 더 깊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복은 1576년 사망했고, 당시 임협은 4살에 불과했다. 임협은 1573년(선조 6) 출생해, 1598년 전염병으로 26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임복과 사전에 자식을 혼사시키기로 했는지는 불분명하나, 임복과 박광옥의 인연으로 어린 자식들의 혼사를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임협의 묘갈명은 청음 김상헌이 썼다.¹⁴⁾

임협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박광옥의 외손이 된다. 박광옥과 임협이 사망한 뒤였기에 어린 두 아들은 모친인 음성박씨의 영향을 깊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둘째 아들 임위의 묘지명을 보면 부친이 일찍 사망했기에 모친인 음성박씨의 손에서 자랐다고 한다. 맏아들인 임타는 서산군수를 지냈다. 임타에게는 임일유(1611~1684), 임상유, 임장유 등 여러 아들이 있는데, 임일유는 창계 임영의 부친이기도 하다. 차남 임위

12) 『국조인물고』권15, 경재, 이정귀 찬, 노진 비명.

13) 6남인 노사침(盧士詹)은 목사(牧使) 박광옥(朴光玉)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아들이 없어 노사회의 아들 노근(盧)을 후사(後嗣)로 삼았다(『국조인물고』권15, 경재, 이정귀 찬, 노진 비명).

14) 『국조인물고』권42, 士子, 김상헌 찬, 임협 묘갈명.

는 효종대 현인을 초탁할 때 천거로 관직에 올랐다. 음서로 지평에 올랐으니 ‘남대’였다. 학문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임위는 사계 김장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다. 송시열은 임위와 동문의 벗이라 하여 묘지명을 썼다.¹⁵⁾

이처럼, 박광옥은 아들은 없었지만, 여러 딸들을 지역의 유력가 자손들과 혼인함으로써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특히, 첫째 사위 유사경은 아들과 같이 자신의 학문을 이어갈 후계자로 여긴 듯 하며, 풍천노씨 노사첨과 나주임씨 임협은 그들의 부친인 옥계 노진, 풍암 임복 등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들과 교류를 긴밀히 했던 방증이기도 했다.

2) 학문적 토대: 유헌 정황과 기묘사림 학맥의 계승

박광옥은 1535년 10세에 유헌(游軒) 정황(丁煥)에게 학문을 배웠다고 알려졌다.¹⁶⁾ 정황은 정암 조광조의 문인이다.¹⁷⁾ 정황은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를 거치며 사림으로 성장해갔던 인물이었다. 1535년은 박광옥이 10세, 정황이 24세의 나이였다. 정황이 1536년 문과에 급제하면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기에 학문의 수양 기간은 1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황의 『유헌집』에 남아있는 문인록에는 박광옥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물론 문인록에 모든 제자가 수록되는 것은 아니어서 박광옥이 문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인록에 기재된 문생들은 송림 정륜, 만헌 정염(丁焰, 1524~1609), 대소현 조종도(1537~1597), 송암 이로(1544~1598) 등이 확인되며, 또한 권유, 정지, 김유일, 김유경, 김술, 박초, 정한영 등이 있다.¹⁸⁾ 아쉽게도, 박광옥의 행적에서 이들 동문들과의 교류 흔적은 찾지 못했다.

다만 만헌 정염이 1524년생으로, 남원에서 활동하였고 미암 유희춘의 문하에서도 수학했으며 옥계 노진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향인 박광옥과도 일정한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양사형, 변사정 등과 남원의 의병을 일으키는데 기여한 바로 보아서도 박광옥과의 인연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박광옥이 정황에게 수학했다는 연보의 기록은 그가 조광조 이후 호남 사림의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황 문인록에서 박광옥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가 직접적인 사승 관계로 단정하기보다는 박광옥의 초창기 학문 형성에 영향을 준 하나의 계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박광옥의 학문은 다시 여러 문인들에게 전달되었다. 박광옥의 문인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근 간행된 『회재유집』에 문인들을 정리한 바 있어서 참고가 된다.¹⁹⁾ 우선, 놀

15) 임위는 송시열이 묘지명을 썼다(『국조인물고』권35, 휴일, 송시열 찬, 임위 묘지명).

16) 『회재유집』, 부록 상권, 연보.

17) 유헌 정황은 조광조의 문생록에 등재되어 있어서, 조광조의 문인으로 활동한 것이 일부 확인된다. 그는 8세에 형과 함께 조광조에게 수학했다고 한다. 다만, 8세가 된 1519년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능주에 유배되어 사사되었기에 얼마나 배웠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조광조의 여러 문인들과 교류한 흔적이 있다. 특히 조옥, 이문건, 이희민 등 조광조 문인들과 교류했다.

18) 주윤진, 「流配詩에 나타난 游軒 丁煥의 의식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재 박상의 손자인 박희수(朴希壽)가 회재와 제봉에게 수학했다고 한다. 하곡 정운룡은 장성 사람으로, 하동정씨이다. 박곤의 딸이 정운룡의 모친이다. 정운룡의 외조가 박곤으로, 박광옥은 외삼촌이되는데 박광옥에게 수학했다고 전한다. 임협은 나주임씨로 박광옥의 사위이며, 제자였다. 풍암 임복의 아들로 나주임씨이다. 유사경은 문화유씨로, 사위이면서 문인이었다. 1576년 사마시에 입격했다. 유술은 유사경의 아들이자, 박광옥의 외손이다. 이 외에 음성박씨 친족들이 박광옥에게 학문을 배웠다. 박윤협은 박봉의 손자로 박광옥의 종질이기도 하다. 박윤성은 박봉의 손자로, 역시 박광옥의 종질이다. 박사무는 박광조의 아들이자 박한의 손자로 종숙 박광옥에게 배웠다.

일반적인 문인록과 유사하게, 회재의 문인 역시도 부계 친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통혼으로 맺어진 인연들도 학문을 이어간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위들이다. 박광옥은 아들이 없었기에 사위를 통해 외손에게 학문을 전승했던 것이다.

3. 명종대 향촌 활동과 지역 사족 관계망의 형성

1) 생원진사시 입격과 향촌 활동

1546년(명종 1) 생원과 진사에 동시 입격한 박광옥은 21세의 어린 나이였다. 그리고 그 해는 인종이 사망하고 어린 명종이 즉위하면서 대비인 문정왕후와 소윤인 윤원형 일파가 권한을 막 잡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대운과 소운의 대립은 결국 을사사화로 이어져 대운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피화를 입으며 정치적 탄압을 받는 시점이 명종 즉위 직후 3년 안에 발생한 일이었다.²⁰⁾ 을사사화의 피화인 가운데 호남 사람도 적지 않았다. 미암 유희춘 등 다수의 인물이 유배를 떠나가거나 낙향하는 현실 속에서 박광옥 역시 관직에 큰 미련을 두지 않고 향촌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생원과 진사의 입격은 문과와 달리 관직을 보장해주는 시험은 아니다. 그러나 관직은 문과 급제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음관들이 있었고 음관들은 천거를 통해 관직 생활을 영위했다. 조선 초기의 음관은 문음이 더 많았지만 16세기로 가면서 문음보다는 천거를 통해 인재를 뽑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천거를 통한 음관의 다수가 아무래도 1차적으로 시험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생원진사에서 발탁하는 경우가 많았다.²¹⁾ 어린 나이에 생원진사에 입격한 박광옥에게도 관직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 시기 박광옥은 관직에 나

19) 『회재유집』 습유 권4, 문인록.

20) 김우기, 『조선중기 척신정치연구』, 집문당, 2001 ; 한춘순, 「명종대 을사사화(乙巳士禍) 연구」, 『인문학연구』2, 1998.

21) 조선후기의 사례이지만 박현순, 「조선후기 蔭官의 初入仕 임용」, 『규장각』58, 2021 ; 나영훈, 「조선후기 방회의 구성과 방임의 사회적 위상」, 『한국학』47, 2024를 통해 생원진사의 음관 초입사 진출을 이해할 수 있다.

가지 않고 꾸준히 향촌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또 지역 사족들과 교류하면서 향촌 사회를 유교적으로 교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첫째로 선도마을 향약을 제정한 일이었다. 1555년(명종 10) 30세에 성리학을 바탕으로 향촌에서 교화를 일으키기 위해 박광옥은 마을 사람들과 향약을 제정하였다. 그는 <백록동학규>와 <남전여씨향약>을 참조해 그 약조를 만들었고 매월 초하루에 향약을 강론하고 실천해 윤리를 돈독하게 하고자 했다고 한다. 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²²⁾

또한, 이듬해인 1556년(명종 11)에는 광주의 개산 뒤쪽에 서실을 지어서 ‘개산송당(蓋山松堂)’이라 하고, 문생을 모아 강학을 하였다고 한다. 당시 사암 박순, 옥계 노진 등 두 선생이 박광옥을 높이 평가해 덕을 이룬 군자라 했으며, 고봉 기대승도 도의로 사귀어 왕래했다고 한다.²³⁾

더 나아가, 1560년(명종 15)에는 향교를 중수하는데 일조했다. 당시 광주목사로 유경심(柳景深, 1516~1571)이 부임하자, 그를 도와 광주향교의 부흥에 일조한 것이다. 향교의 규모를 넓히고 학규를 세웠으며, 사전과 노비를 출연하여 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일조했다. 1563년(명종 18) 38세에는 광주의 사족들은 향교 정문 동쪽에 비석을 세워 향교의 중건 사실을 기록하면서 박광옥에게 글을 요청하였다. 앞면의 글을 고봉 기대승이 지었으며 뒷면은 회재 박광옥이 지었다. 당시 광주의 큰 스승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한편, 박광옥은 명종초 일찍 사마시에 입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종대 척신 정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있었기에 출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반대 활동으로 향내에 있으며 유소 활동을 한 것이다. 박광옥은 1565년(명종 20) 40세에 척신 윤원형을 논박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때 진사 박규(朴揆, 1533~?)와 의론을 모아 논박했으나 윤원형이 실각하여 올리지는 못했다고 전한다. 다만 상소의 초안이 사라져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박광옥은 1568년(선조 1), 광주의 수월정(水月堂)에서 시회를 열기도 했다. 이때 개산 일대에 정자를 하나 지어 수월정이라 했는데, 여기에 제봉 고경명과 매정 이만인 등의 현인을 불러 시를 읊었다고 전한다.

이상의 활동은 잘 알려진 박광옥의 향촌 활동으로, 이들 활동을 토대로 박광옥은 20~40대에 향촌사회에서 명망있는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쌓아가고 있었다. 특히, 박광옥이 향촌에서 활동한 명종대, 16세기 중후반은 호남사림의 학문적 거장들이 대거 등장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는 호남 사림을 대표하는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일재 이항 등 학문적 위업을 달성한 이들도 있었고 사암 박순, 송강 정철, 제봉 고경명 등 정치적 입지를 다져간 인물들도 다수 존재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거나 이들과 교류가 깊던 당대 명망있는 지역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박광옥

22) 『회재유집』권2, 선도마을 향약 서문.

23) 『회재유집』부록 상권, 연보.

24) 『회재유집』권2, 향교 비석 뒷면에 새긴 글.

의 위상 역시 높아졌다.

2) 호남 유현과의 교류망과 지역 네트워크

명종대 향촌에 머물며 여러 활동을 한 박광옥은 당시 호남의 여러 유현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 수월정의 시회는 이러한 교류 관계에 대해 알려준다. 이 외에도 호남의 여러 공간에서 시문을 남기며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명종대에서 선조대, 박광옥이 활동한 16세기 중후반은 사람들이 부상하는 시기였고 그 가운데 호남 출신의 학자들이 학문적 논쟁을 통해 성장해가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하서 김인후를 비롯해 고봉 기대승과 일재 이항 등 당시 조선성리학을 이끌고 갔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호남 출신이 많았다.

이 무렵 향촌에서 교류했던 이들로는 하서 김인후(1510~1560), 사암 박순(1523~1589), 고봉 기대승(1527~1572), 제봉 고경명(1533~1592) 등 당대 호남의 주요 인사들과도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특히 고경명과 잦은 교류를 보였는데 이는 회재유집의 시문에서 다른 이들에 비해 고경명과 주고받은 시문이 많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수 허목은 묘표를 지으며 박광옥이 고봉 기대승, 옥계 노진, 사암 박순 등과 친밀히 지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회재유집』을 보면, 호남 출신으로, 제봉 고경명, 사암 박순, 미암 유희춘(柳希春, 1513~1577), 칠계 김언거(金彦琚, 1503~1584), 매정 이만인(李萬仁, 미상), 죽계 최경장(崔慶長, 1529~1601), 죽재 양사기(楊士奇, 1531~1586), 연파 박개(朴漑 : 1511~1586), 풍암 임복, 고암 양자징(梁子徵, 1523~1594), 서하 김성원(金成遠, 1525~1592), 남계 김윤(金胤, 1506~1571), 도탄 변사정(邊士貞, 1529~1596) 등과의 교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호남의 학단을 이끌었던 주요 사족이기도 했다. 예컨대, 양자징은 하서 김인후의 사위이자 문인이었고, 최경장은 고봉 기대승의 문인이었으며, 박개는 사암 박순의 형이었다. 또한 김성원은 하서 김인후의 문인이자 식영정의 주인이었고, 변사정은 일재 이항과 옥계 노진의 문인이었으며 김언거는 풍영정 주인이었다. 즉, 이들은 모두 광주와 호남을 연고로 하여 박광옥과 교류를 맺으며 지역의 학자로서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문집에 남은 시문을 보면, 제봉 고경명과 칠계 김언거, 매정 이만인, 도탄 변사정 등과 상대적으로 많은 교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언거는 광주 출생으로 광산김씨이다. 1525년(중종 20)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1531년(중종 26) 문과에 급제하였다. 김언거는 1560년(명종 15) 낙향한 이후 광주에 풍영정을 지었다. 풍영정에는 퇴계 이황을 비롯해, 하서 김인후, 남명 조식, 규암 송인수, 미암 유희춘, 면앙정 송순, 신재 주세붕, 고봉 기대승, 송강 정철, 회재 박광옥 등 당대 명현이 방문해 김언거와 교류를 쌓았다. 『칠계집(漆溪集)』을 보면 84명과 교류한 흔적이 확인된다. 박광옥보다 20세 연상이었음에도, 박광옥이 많은 의지를 했던 인물이었다. 김언거와도 많은 시문을 주고 받았을 뿐만 아

나라, 김언거의 부인, 김언거의 형 김언우의 만사를 지었고, 김언거 묘지 역시 박광옥이 지었다.

한편, 변사정은 일재 이항과 옥계 노진의 문인으로, 본관은 장연이다.²⁵⁾ 남원 운봉의 도탄에 살았다. 임란 당시 남원에서 정염, 양사형 등에게 의병장에 추대되기도 했다. 1583년 학행으로 경기전 참봉이 되었다. 『도탄집(桃灘集)』이 있다. 운봉의 용암서원에 제향되어 있는데 운봉 5현으로 박광옥과 함께 제향되었다. 율곡과 우계를 위해 상소를 올리기도 하는 등 서인계와 가까운 활동을 했다. 변사정은 호남 운봉 지역의 유현으로, 박광옥과도 깊은 친분을 유지했다. 문집에 남아 있는 인연은 실제의 인연보다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기 박광옥은 광주 지역에 머물면서도 호남의 여러 유현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 하서 김인후, 사암 박순, 고봉 기대승, 제봉 고경명, 칠계 김언거, 옥계 노진 등과의 관계는 박광옥이 광주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 호남 사림 사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경명·김언거 등과의 지속적인 시문 교류와 정자·향교·서당을 매개로 한 교류는 박광옥의 향촌 활동이 개인적 수양이나 지역 교육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호남 사림이 학문과 교화를 매개로 결속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사족적 질서를 구축해 가는 과정의 일부였다.

4. 선조대 관직 진출과 중앙 관료와의 관계망 구축

1) 선조초 관직 진출과 활동

회재 박광옥은 1546년 생원과 진사에 동시에 입격하였다. 당시 박광옥은 21세로 동기 중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했다.²⁶⁾ 다른 동기들과 달리 명종 초년 정치에 염증을 느껴 출사하지 않았던 박광옥은, 20년이 훌쩍 넘어서야 관직에 나아갔다.

박광옥은 선조가 즉위한 지 2년만인 1569년(선조 2), 조정에서 학행이 뛰어난 선비를 뽑을 때 대신과 이조낭관의 추천을 받아 ‘내시교관’에 제수되었다.²⁷⁾ 선조는 명종대 척신 정치를 끝내고 쇄신한 정치 풍조를 다지고자, 퇴계 이항에게 『성학십도』를 받아 도학정치를 펼치고자 했다. 특히, 동고 이준경 등 사람과 친분이 깊은 이들이 재상으로 정국을 주도했고 을사사화 이후 피화를 입은 이들이 다수 복권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²⁸⁾ 이러한 정

25) 변사정에 대해서는 김봉곤, 「16세기 지리산권 유학사상(1) -남원, 함양의 안처순(安處順), 노진, 변사정(邊士貞)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32, 2012가 참조된다.

26) “주인은 혹시 내 성명 아시는지 알고 싶소. 당시 소과 시험 합격자 중 최고 어렸지.”(『회재유집』권1, 밤에 김화현에서 머무르며 동년 이백소 현감에게 보이다), 이를 통해 박광일은 소과 합격 당시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를 쓰기도 했다.

27) 『회재유집』부록 상권, 연보.

28) 선조초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나종현, 「명종말~선조초 고봉 기대승의 정치 활동」, 『한국학논총』 59, 2023 등이 참조된다.

치적 상황에서 박광옥 역시 오랜 향촌에서의 수양을 끝내고 자신의 학문적 이상을 정치적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조정에서 박광옥의 존재를 알고 관직을 제수한 것에는 조정의 고관이자 동향으로 친분을 다져온 인연들이 작용했다. 특히, 사암 박순은 선조초 고관으로서 호남의 여러 인재를 중앙으로 천거하는 중심 인물이었다. 평소 회재의 학문적 깊이와 실천을 인지하고 있던 것도 박광옥이 이 무렵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배경이자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내시교관은 종9품의 관직으로, 궐내에서 내시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직이었다. 이는 동몽교관과 함께 음관에게 주는 초임사직이면서 한편으로 학문적으로 성취를 이룬 이들에게 주로 제수하는 관직이었다. 왕실에서 생활하는 내시들의 교육을 담당해야했으므로 학문적으로 엄정해야했고 예에도 밝아야 했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박광옥이 받은 내시교관의 직은, 박광옥이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인물이란 점을 조정에서 감안해 내린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시교관으로 제수된 박광옥은 궐 안의 상서원 인근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문집에 보면 이 무렵 상서원 근처의 국화를 감상하거나, 상서원 관원들과 교류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³⁰⁾ 또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사직동에서 거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박광옥의 옛 집이 있었다고 한다. 박광옥은 서울에도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박광옥은 1574년 운봉현감에 제수되며 수령으로 나가기까지 5년을 한양에 거처하면서 내시교관으로 근무하고 또 인연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1574년 박광옥은 운봉 현감에 제수된 지 한달이 안되어 문과에 급제하였다.³¹⁾ 박광옥은 늦은 나이였기에 문과에 큰 뜻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암 박순이 강력히 권고해 문과를 봤다고 전해진다. 박광옥은 내시교관에서의 근무로 인해, 종6품의 참서관으로 ‘승록’하여서 종부시에 주부에 제수되었는데, 두 달만인 8월에 당시 수많은 사족들이 바라던 수령에 제수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곧 바로 문과에 급제하고 10월, 현감으로 부임하였다.

1574년 8월 운봉 현감에 제수된 박광옥은 1578년 5월까지 약 4년을 수령으로 재직하였다. 박광옥은 운봉에서 특히 향교를 세워 고을이 윤흥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박광옥은 향교를 세워 몸소 공자에 제사를 지냈을 뿐 아니라 곡식을 내어 향교의 운영에 밑바탕이 되게 하였다. 또한 1577년에는 운봉에 있던 황산이 태조가 고려말 황산대첩으로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황산대첩비’를 세워 태조의 위업을 세우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이

29) 내시교관에 대해서는 신동훈, 「조선후기 내시교관(內侍敎官)의 관료와 임용 양상」, 『한국문화』114, 202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생원진사의 초임사직이나 학행이 뛰어난 이들의 초임사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 특히 내시교관의 직속처는 상서원 인근이었는데 이에 따라 상서원 관료들과도 친분이 있었다. 이때 특히 사미당 김극효(金克孝, 1542~1618)와 17~18개월에 걸쳐 교분을 쌓기도 했다(『회재유집』권1, 시, 김희민이 상서 부직장이 되고, 내가 동청에서 내시를 교육시키면서 17, 8개월 동안 서로 어울렸다. 계유년(1573, 선조6) 7월 김군이 양구 현감이 되어 그 가는 길에 시로 회포를 담아 주다). 김극효는 안동김씨로 청음 김상헌과 우의정이 된 김상용의 친부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내시교관인 안사흠(安士欽)이나, 상서원 부직장 김호신 등과 시문을 교류하기도 했다.

31)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권8(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러한 활동으로, 운봉에서는 박광옥의 행적을 기려 비석으로 남겼고 또한 지역의 ‘용암사’에 제향하여 운봉의 인물로서 박광옥을 기억하고 있었다.³²⁾ 박광옥은 수령으로 있던 운봉에서, 집안의 역점 사업이었던 음성박씨 족보 편찬과 간행 역시 시도할 수 있었다.³³⁾

1578년 5월에는, 전라도사에 제수되었고 곧이어 충청도사에 제수되었다. 1580년부터 다시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며 양사대간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특히, 1581년에는 이조좌랑 이경중과 대사헌 이식을 논박하기도 했는데 이식은 동서분당 당시 동인의 편에 선 인물로, 서인들의 관직 진출을 막았던 인물이기도 하다.³⁴⁾ 이 무렵, 석담에서 율곡 이이를 찾아가 교유했던 흔적도 찾을 수 있는데, 이 무렵 박광옥은 서인계와 친분을 다져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호남의 많은 사족들은 사암 박순, 송강 정철 등의 영향으로 서인계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광옥 역시 이러한 인연으로 서인과 교류하였고 또 그 영향으로 후손들 역시 서인-노론계로 자리하면서 성장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81년 8월 영광군수에 제수되며 다시 외관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다. 영광에서는 1582년 11월까지 1년 정도 재직하였는데 이때에도 학풍을 일으켜 향교를 창립했다고 전한다.³⁵⁾ 이에 따라 군민들이 그 치적을 기록해 선정비를 세우게 되었다. 한편, 1585년에는 밀양부사에 제수되었고, 1586년 파직되었는데 이때에도 고을 사람들이 유예비를 세워 박광옥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한다.³⁶⁾ 이처럼, 박광옥은 운봉, 영광, 밀양 등 수령을 역임한 지역에서 모두 선정비를 세워 추모할 만큼 지역사회와 교화 활동에서 업적을 세웠던 것이다.

1587년에는 낙향해 광주에서 생활했고 관직에 제수되어도 사양하고 나가질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592년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해에 박광옥은 67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목사를 만나 계책을 세우고 의병을 조직하는데 힘썼다.³⁷⁾ 그러나, 1593년 10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호남 의병 가운데 고경명과 김천일이 대표되는 가운데 이들과 함께 초기 국면에서 노령임에도 앞장서 의병을 만들고 후방에서 군수를 조달했던 공로가 인정되어 사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박광옥을 추모했으며, 특히 그의 생애 마지막 위업인 광주에서의 의병 규합에 찬사를 보내며 그를 대표하는 평가 역시도 의병장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선조 즉위 이후 박광옥의 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선조 초년 조정은 학행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자 하였고, 박광옥 역시 학행으로 천거되어 내시교관에 임명되었다. 이는 박광옥이 향촌 유현에서 중앙 관료사회로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였

32) 『전고대방(典故大方)』, 1695년(숙종 21) 남원 운봉에 박광옥, 변사정, 노형필의 충절을 기려 용암서원을 설치하였다.

33) 『회재유집』 부록 상권, 연보. 한편, 문집 간행과 족보 편찬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친족이 수령으로 나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34) 『선조실록』권15, 선조 14년 3월 14일(정축).

35) 『국조인물고』권27, 명류, 허목 찬, 박광옥 묘표.

36) 『국조인물고』권27, 명류, 허목 찬, 박광옥 묘표.

37) 박광옥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김만호, 「회재 박광옥의 의병활동과 추숭」, 『호남학』48, 2019에 자세히 세다.

다. 이후 그는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중앙의 인사들과 교류하였고, 1574년에는 문과에도 급제하였다. 이어 운봉현감, 전라도사, 충청도사, 예조정랑, 사헌부 지평, 성균관 직강, 영광군수, 밀양부사 등을 역임하며 관료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이러한 관직 생활은 박광옥이 단순한 지방 사족이 아니라 중앙 관료사회와도 연결된 인물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2) 동방과의 교류 양상

1569년 이후, 중앙에서의 관직 생활은 한양에서 새로운 인연과 교류를 가져왔다. 특히 오랜 세월 인연을 이어왔던 1546년 사마시 동기들은 큰 힘이 되었다. 박광옥은 오랜만의 서울 생활에, 20년 전의 사마시 동기들과 잦은 교류를 보였고, 또 동향의 친구들과도 교류를 맺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낯선 한양 생활은 이들과 교류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사마시 동기는, ‘동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큰 인연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마시 동기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기도 하는데 이를 ‘동방계’라고 부르며 이러한 계획의 인연을 따로 계첩을 작성해 보관하기도 했다.³⁸⁾

1546년 사마시는 다른 사마시와 동일하게 생원 100명, 진사 100명이 선발되었다. 전국의 우수한 학자들이 서울에 모여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고, 곧 이어 회합을 가졌다.³⁹⁾ 사마시 입격자들의 동문의식은 ‘동방’ 혹은 ‘동년’이라 하여서 특별한 인연으로 인식했다. 박광옥 역시 사마시 입격 이후, 명종대의 정국으로 인해 향촌에 내려와 있어서 다른 입격자들과 중앙에서 꾸준한 교류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인연의 끈은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광옥의 동기생 200명은 문과에 급제해 더 높은 출사를 하기도 했고, 음관으로 천거되어 관직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으며 그대로 향내에 머물며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우선 박광옥과 인연이 깊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동향’의 인연을 함께 한 동기생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 동향의 인연은 보통 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⁴⁰⁾ 더욱이 함께 사마시에 합격한 동향의 인연은 더욱 각별했을 것이다.

표 2 1546년 사마시 입격자의 거주 분류

도명	서울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횟수	109	37	25	10	6	6	5	1	1

* 명수가 아니라 횟수이다. 생원과 진사에 모두 입격한 이들이 포함되어서 실제 인원수

38) 나영훈, 「조선 후기 방회의 구성과 방임의 사회적 위상」, 『한국학』47, 2024

39) 사마시 동기 입격자들은 장원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회합 모임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나영훈, 위의 논문).

40) 예컨대, 영남의 경우 영남동도회라 하여서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이들끼리 회합을 하기도 했다 (나영훈, 「17세기 在京 嶺南 官僚의 同道會와 결속 배경」, 『장서각』49, 2023).

는 200명이 안 된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명의 동기생 가운데 서울 출신이 절반을 넘는 109명이었고, 이어서 전라도가 37명, 경상도가 25명, 충청도가 10명이었다. 이 외에 경기도, 황해도 각 6명, 강원도 5명, 평안도와 함경도는 1명에 불과했다. 16세기 중반 중종대를 막 지난 시점에 서울을 제외하면 전라도 출신의 입격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중종대 기묘사림의 성장에 전라도 지역 사족들의 관여가 많았고 또 출사한 사람들 역시 많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경상도나 충청도 지역의 급제자가 전라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었던 시기에 비하여, 16세기 호남 지역이 학문적으로 성숙하고 그것이 또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졌던 하나의 정황으로 이해된다.

표 3 1546년 전라도 출신 사마시 입격자의 군현 분류

군현	광주	담양	보성	영광	전주	임실	진원	함평
횟수	3	3	2	3	11	2	2	1
군현	고창	구례	금산	나주	남원	능주	무장	영암
횟수	1	1	2	2	1	1	1	1

전라도 출신 가운데에는 전주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여러 거주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데, 광주 3명, 담양 3명, 나주 2명, 진원 2명, 능주 1명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출신이 10회(9명)이다. 광주에는 박광옥과 함께 성주이씨 이억인, 나주에는 강화노씨 노련, 광산김씨 김경현이 확인되며, 담양에는 흥양이씨 이천과 남원양씨 양성해, 신평송씨 송해관이 있다. 능주에는 능성문씨 문검이 있으며, 장성(진원)에는 청계 진원박씨 박원순과 광산김씨 김응정이 확인된다.

이 외에도 남원에는 남양방씨 방덕린, 구례에는 개성왕씨 왕옥, 동복에는 진양하씨 하언의, 보성에는 장흥임씨 국담 임희중, 영광에는 보성노씨 노대익, 영성정씨 정원, 영암에는 여흥민씨 용계 민덕봉이 있는데 이들 역시 호남 동향으로 박광옥과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영암의 용계 민덕봉(1514~1573)은 1560년(명종 15) 문과에 급제했고, 1573년(선조 6) 명사를 영접하다가 객사에서 사망하였는데,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1569년 박광옥이 서울로 올라와 관직 생활을 할 때 같이 서울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인연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보성의 국담 임희중 역시 보성 출신의 사족으로, 그 아들은 삼도 임계영(1528~1597)이다. 임희중의 아들인 임계영은 임진왜란 당시 박광전, 문위세 등 지역 사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들 역시 박광옥과 친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직접적으로 호남 출신의 동기생 가운데 박광옥과 친분이 있던 이들도 확인된다. 회재유집에 보면, 나주의 김경현과 진원의 박원순은 교류 양상이 확인되는 이들로 특히 가까운 사이였다. 특히 나주의 김경현(金景憲)은 두 차례에 걸쳐 시문을 썼다. 1571년과

1574년이다. 특히 1574년에는 부안으로 부임하는 동기생 김경현을 전송한 시를 쓰며 수령으로 나가는 것은 기쁘지만 교류의 인연이 끊어진 것에 대한 슬픔을 전하고 있다.⁴¹⁾

또한 청계 박원순(朴元恂)은 진원박씨로 전라도 장성군 진원면 사람이며, 호남의 이름난 군자로 불렸다. 청계정에 그의 기문이 있으며,⁴²⁾ 하서 김인후의 문하로 알려졌다. 또한 호남의 유현인 망암 변이중의 스승이기도 했다. 박광옥은 장성에 거처하던 박원순의 집에서 머물러 잠을 자기도 하는 등 동년이자 동향으로 박원순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³⁾

이 외에도 회재유집에는 1546년 동방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확인된다. 동방 가운데 문을 주고 받으며 친분을 과시했던 이들은 앞서 살펴본 박원순과 김경현, 그리고 안동사람인 구봉령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의 친구들이었다. 이는 문집의 시가 수록된 기간이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던 때와 맞물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⁴⁴⁾ 회재가 1569년 내시교관이 되고 1574년까지 꾸준히 궐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서울의 동방들과 교유했던 것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박광옥은 이들 외에도 수많은 동기들과 교유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타깝게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동기생과의 인연이 문집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의 교류 양상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이때 교류한 이들은 장주 김첨경, 송월당 박호원(朴好元, 1527~1584), 청계 박원순, 송하, 이개윤, 이광복, 죽담 이유근, 이자, 졸암 이충작, 백담 구봉령, 임정수, 조준룡, 조탁 등이다.

장주 김첨경(金添慶, 1525~1583)은 1546년 진사시에 입격하고, 1549년 문과에 급제해 승문원에 들어갔다. 1567년 선조의 즉위 이후, 동부승지,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고 1572년 천추사로 갔다 와서 대사간, 대사헌, 호조참판을 거쳐 예조판서까지 이르렀다. 박광옥과는 진사시 동방으로, 선조초 박광옥의 서울 생활에 많은 교류가 있었다. 천추사로 떠나기 전에 석별의 시를 전해주기도 했다.⁴⁵⁾

송월당 박호원(朴好元, 1527~1584)은 1546년 식년시에 입격하고 1552년(명종 7) 문과에 급제하였다. 1557년 홍문관 부수찬을 역임하고, 1562년 임궽정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포상을 받기도 했다. 1565년 동부승지를 역임했으며, 1576년(선조 9) 대사헌에 오르고, 호조판서까지 지냈다. 박광옥은 1571년 서울에 있을 당시에 사직동에서 박호원과 여러 동년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기도 하였다.⁴⁶⁾

41) 『회재유집』권1, 시, 송김윤중년형부임부안(送金允中年兄赴任扶安).

42) <청계정기문> 1789년 정언 김성갑이 지었다.

43) 『회재유집』권1, 시, 이열지와 함께 말을 타고 하청사로 향하다가 저녁에 박신이의 집에서 잠을 잤다.

44) 『회재유집』권1의 첫 번째 시는 1564년(명종 19), 사마시 동방 급제자인 조준룡(운백)에게 쓴 시이다. 마지막 시는 1591년이였다. 다만 전체 223수의 시 가운데 서울에 있던 1569년 이후부터 1580년 무렵까지 약 10여년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직 생활을 했던 당시의 교류 양상을 보기에 적합하다.

45) 『회재유집』권1, 시, 천추사 이억상이 안주에서 병들어 죽어 과거급제 동기생 이군정이 발탁되어 부임하며 이별의 시를 요청하여

46) 『회재유집』권1, 시, 경오년 늦겨울에 동년 5, 6명이 사직동 술집에서 모였다.

죽담 이유근(李惟謹, 1523~1606)은 함평이씨로 나주 사람이다. 사마방목의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시험을 서울에서 본 것으로 이해된다. 이유근은 이종의 손자로 백호 임제, 회재 박광옥과 교유한 인물이기도 했다. 1561년(명종 16) 문과에 급제하기도 했다. 조부는 이종인이다. 이유근은 박광옥과 1546년 진사시 동기이면서 역시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관서 지방으로 전별하면서 ‘평생 친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⁴⁷⁾ 동방의 인연뿐 아니라 동향의 인연이 겹쳐 있는 이가 바로 이유근이었다.

백담 구봉령(具鳳齡, 1526~1586)은 능성구씨로 경상도 안동 사람이다. 일찍이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다. 1560년 문과에 급제했으며 1567년 학문이 뛰어나 사가독서를 하기도 했다. 1573년(선조 6) 직제학이 되었다. 이어 1577년 대사간에 오르고, 1581년 대사헌이 되었다. 구봉령은 이황의 문인으로 차후 남인의 행보를 걸었지만 선조 초년 당시에는 봉당이 갈라지기 전이기에, 동방의 인연이 있던 박광옥과 교류를 지속했다. 구봉령은 1580년 성절사 서장관으로 떠나는 박광옥에게 전별시를 써주기도 했다.⁴⁸⁾

이 외에도, 서울에 있는 기간 동안 다양한 동기들과 인연을 주고 받으며 함께 모임을 갖기도 하고 산천을 유람하기도 하고, 외관으로 파견될 때에는 주변의 동기들을 찾아가 시문을 주고 받기도 했다.⁴⁹⁾ 혹은 석별의 아픔을 나누며 떠나는 동기들에게 전송하는 시문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동년의 인연 가운데, 이들의 친분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단연 1570년 12월 사직동 집에서 가진 회합이었다. 이때 박광옥은 동방이었던 송애 박호원, 송하, 이광복, 조준룡은 물론, 동향의 인연인 박개(朴漑 : 1511~1586), 남계 김윤(金胤, 1506~1571) 등 6명이 사직동 술집에 모여 회합하였다. 사직동은 박광옥의 집이 있는 공간이었다. 박호원이 선두로 시 한 수를 짓고, 여러 사람들이 화답했는데, 즉석에서 짓거나 혹은 추억하며 술회하다. 연파 박개는 사암 박순의 형으로, 이들 모임이 동방의 모임이면서 동향의 인연도 함께 모였던 친목 모임으로 보인다. 박광옥이 특히 서울 생활에서 의지를 많이 했던 인연으로 생각된다.

박광옥은 1574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과 급제자 역시 동방의 인연이 생기는 기회였다. 이때 박광옥과 함께 문과에 급제한 이는 모두 15명이었다. 사마시에 입격한 이후 거의 30년이 되어서 문과에 급제하였다. 당시 박광옥은 관직에 큰 뜻이 없어서 문과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었으나, 동향의 사암 박순이 권장해 문과에 응하였고, 급제하게 되었다.

이 당시 문과는 종계변무를 처리한 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별시였다. 그리고, 함께 합격한 이들은 대체로 1540년대생으로, 몇몇을 제외하면 박광옥보다 15년 정도 연하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의 유력 사족의 자제들이 많았고 자신의 관직 역시 현달하였다. 창주 정상은 병조판서 정식의 후손이며, 율리 이희(李熹, 1532~1592)는 참의

47) 『회재유집』권1, 시, 관서로 부임하는 도사 이택가를 전송하며

48) 『회재유집』습유 3권, 성절사 서장관 박경원 광옥을 전송하면서.

49) 『회재유집』에 보면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동기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김화현감 이개윤(李愷胤)을 만나거나, 통천군수 이자(李滋)를 만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1546년 사마시 동기였다.

이인문의 후손이었다. 남암 신진(申津, 1527~미상)은 좌찬성 신광한의 아들로, 영의정 신숙주의 증손이기도 했다. 보정 황우한(1541~1606)은 좌찬성 황효원의 후손이었다. 황우한은 대사헌을 지냈다. 서담 황진(黃璉, 1542~1606)은 공조판서 우참찬까지 이르렀다. 우파 이광(李洸, 1541~1607)은 좌의정 이행의 손자였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과 동기들은 대체로 좋은 집안에 이른 나이에 급제해 이후의 관직도 현달했다.

그러나, 박광옥은 자신들보다 어린 문과동기생들과는 친분이 크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문집에서의 교유에서 15명 누구도 박광옥과 개별적 연락과 인연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문과 급제자들이 당대 명문가의 자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과 인연이 있었다면 문집에 수록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문과 동기였던 우파 이광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박광옥은 문과 동기는 사마시 동기와 달리 동방의 인연을 크게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광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감사로 박광옥과 함께 호남에 있었다. 그리고, 박광옥의 사위인 유사경이 쓴 상소에 보면, 당시 전란을 맞이한 이광의 행보에 대한 비판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박광옥이 이광을 동방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적나라한 비판을 가한 것이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박광옥의 상소는 그렇지 않았다.

이처럼, 박광옥의 중앙 관료 생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관직 자체보다 그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된 인적 네트워크이다. 그는 1546년 생원·진사시에 함께 입격한 동방들과 지속적으로 교유하였다. 회재유집에 보이는 박호원, 김첨경, 이유근, 박원순, 김경현, 조준룡 등과의 시문 교류는 사마시 동방 관계가 단순한 과거 합격자의 형식적 인연이 아니라, 실제 교유와 친목의 기반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 사직동에서 동년들과 모임을 갖고 시를 주고받은 사실은 박광옥이 중앙 관료사회 안에서도 사마시 동방 관계를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박광옥은 동일한 관직을 지낸 동관들과도 관계를 맺었다. 내시교관 재직 시기에 함께 근무한 인물들과의 교류는 그가 서울 관직 생활 속에서 새로운 관료적 인연을 형성해 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관 관계는 혈연이나 지역, 학맥과는 다른 성격의 네트워크였다. 박광옥의 인적 기반은 부계 친족과 혼맥, 학맥과 향촌 교유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 동방과 관직 동관이라는 관료사회 내부의 관계망으로까지 확장되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박광옥은 임진왜란 당시 고령의 나이에도 광주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지원하고 호남 의병의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16세기 중반 이후 그가 친족·혼맥·학맥·향촌 활동·과거 동방 관계를 통해 축적해 온 사회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다.

먼저 박광옥의 초기 성장에는 음성박씨 부계 친족과 통혼 관계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

하였다. 박광옥의 부친 박곤과 백부 박봉은 문과에 급제한 인물로, 음성박씨가 광주 지역의 명족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여기에 외가 해평윤씨, 처가 및 사위들을 통한 혼맥이 더해지면서 박광옥의 사회적 관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특히 유사경은 사위이자 문인으로서 박광옥의 행적을 정리하고 그 학문과 활동을 계승한 인물이었다. 노사첨과 임협을 통한 풍천노씨·나주임씨와의 혼맥 역시 박광옥이 호남의 주요 사족 및 유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학문적으로 박광옥은 유현 정황에게 수학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조광조 이후 호남 사림의 학문적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다만 정황의 문인록에서 박광옥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수학 기간도 길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사승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정황과의 관계는 박광옥의 초기 학문 형성에 영향을 준 하나의 계기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박광옥의 문인으로서는 부계 친족과 사위, 외손 등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그의 학문이 혈연과 혼맥을 매개로 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1546년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입격한 이후 박광옥은 곧바로 중앙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명종대 향촌 활동에 주력하였다. 이는 을사사화 이후 사림계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위축되던 시대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었다. 박광옥은 선도마을 향약을 제정하고, 개산송당에서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광주향교 중수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은거가 아니라, 광주 지역에서 성리학적 교화 질서를 실천하고 지역 사족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가는 과정이었다. 특히 향약, 서당, 향교는 각각 향촌 질서의 운영, 학문 전승, 공적 교육기관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박광옥의 향촌 활동이 지역사회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박광옥은 광주에 머물면서도 호남의 여러 유현들과 폭넓게 교유하였다. 제봉 고경명, 철계 김언거, 사암 박순, 고봉 기대승, 옥계 노진 등과의 관계는 박광옥이 광주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 호남 사림 사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고경명·김언거 등과의 지속적인 시문 교류와 정자·향교·서당을 매개로 한 교유는 그의 향촌 활동이 개인적 수양이나 지역 교육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호남 사림이 학문과 교화를 매개로 결속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사족적 질서를 구축해 가는 과정의 일부였다.

선조 즉위 이후 박광옥의 활동은 중앙 관료사회로 확장되었다. 그는 학행으로 천거되어 내시교관에 제수되었고, 이후 문과 급제와 여러 관직을 거치며 관료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운봉현감, 영광군수, 밀양부사 등 외관 수령으로 재임할 때에도 향교 정비와 학풍 진작에 힘썼다는 점에서, 그의 관직 생활은 향촌 교화 활동의 연장선에 있었다. 박광옥은 단순히 중앙 관료사회에 진입한 지방 사족이 아니라, 향촌에서 축적한 학문적·사회적 위상을 관직 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한 인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1546년 사마시 동방과의 교류이다. 박광옥은 1569년 이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김첨경, 박호원, 이유근, 김경현, 박원순, 구봉령 등 사마시 동

방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이들과 시문을 주고받고 사직동에서 동년들과 회합한 사실은 사마시 동방 관계가 단순한 과거 합격자의 형식적 인연이 아니라 실제 교류와 친목의 기반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1574년 문과 동방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박광옥의 중앙 관료사회 내 인적 기반이 문과 동방보다 사마시 동방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박광옥을 임진왜란기의 의병장 또는 향촌 유현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의 생애와 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광주를 대표하는 사족이었고, 호남 사림 사회 안에서 학문적·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나아가 선조대 관직 진출과 사마시 동방과의 교류를 통해 중앙 관료사회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박광옥이 호남 의병 활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전란 이전의 사회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광옥의 사례는 16세기 후반 호남 사족이 친족, 혼맥, 학맥, 향촌 활동, 과거와 관직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중앙 관료사회를 연결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회재 박광옥의 학문과 실천, 그리고 공공성의 현대적 의미



[발표문-주제③]

회재 박광옥의 의리 정신과 그 실천

박 학 래(국립군산대학교)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의 의리 정신과 그 실천

박학래(朴鶴來, 국립군산대 철학과)

1. 들어가는 말
2. 학문 연원과 도학 정신의 계승
 - 1) 학문 연원으로서 사승(師承) 관계에 대한 재검토
 - 2) 폭넓은 교유와 도학 정신의 계승
 - 3) 실천적 학문 연찬과 강학
3. 도학 사상에 기초한 의리 정신의 실천
 - 1) 낭천제(郞薦制)를 통한 관직 진출
 - 2) 향촌 교화에 주력한 지방관
 - 3) 공론(公論)에 입각한 정치 실현
 - 4) 근왕(勤王)에 기초한 충의(忠義) 정신의 발현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를 관통하며 국난 극복의 전면에는 의병(義兵)이 있었고, 의병의 중심지 중 한 곳은 호남(湖南)이었다. 이에 따라 호남은 국가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불의에 항거하고 구국(救國)을 위해 헌신한 의병을 가장 많이 배출한 ‘의향(義鄕)’으로 기억되고 있다.

본 발표문에서 주목하는 회재(晦齋) 박광옥(朴光玉, 1526~1593)도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창칼을 들고 의병의 전면에서 활약하지는 않았지만, 의병도청(義兵都廳)을 세워 의병을 규합하고 무기와 식량을 조달하는 등 의병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 문인이었다. 이에 따라 박광옥은 지금까지 일반에게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주도한 문인으로만 기억되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광옥은 말년에 펼친 의병 활동 이전에 호남 사림의 유풍(遺風)을 계승하여 도학 정치의 실현에 앞장선 당대 대표적인 호남의 문인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성리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자신의 근거지인 광주 지역의 유풍(儒風)을 복돋우는 데 앞장섰고, 관직에 나아간 중년 이후에는 여러 지역의 지방관을 맡아 향촌 교화에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림 정치의 중심이었던 청환직(淸宦職) 등을 맡아 공론(公論) 정치를 주도하는 등 의리 정신의 구현에 앞장섰다. 이 시기에 활동한 호남 사림과 마찬가지로 박광옥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은 의리 정신의 실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단순한 의병 활동가가 아니라 사회기(士禍期)를 거쳐 사림정치(士林政治)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활동하며 의리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한 대표적인 호남 사람이었고, 그의 의병 활동은 그가 평생토록 추구한 의리 정신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박광옥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회재집서(懷齋集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박광옥의 삶을 이끈 처음, 즉 시조리(始條理)는 의리지학(義理之學)이었고, 의리 정신을 기반으로 지속해서 일구어낸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그의 삶의 마지막, 즉 종조리(終條理)는 목숨을 바쳐 순국하는 것이었다고 정리하였다.¹⁾ 다시 말해 홍직필은 박광옥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의리 정신이었다고 평가한 것이다.²⁾ 이처럼 박광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의리 정신과 그 실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그의 의리 정신에 주목하여 박광옥의 삶을 검토하고자 한다.³⁾ 이를 위해 먼저 박광옥의 의리 정신이 성리학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호남 사람을 비롯한 선현의 학문에 대한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의하여 박광옥의 학문 연원과 사림파의 도학 정신 계승의 면모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가 평생토록 추구했던 의리적인 학문의 대체와 강학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년 이후에 관직에 나간 박광옥이 펼쳤던 관료로서의 면모와 의병 활동을 의리 정신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대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박광옥의 의리 정신과 그 실천의 면모를 정리하고자 한다.

2. 학문 연원과 도학 정신의 계승

박광옥의 의리 정신은 성리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호남 사람이 구축한 의리적인 도학 정신을 계승하여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찍부터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서 성리학에 뜻을 두었고, 선대(先代)와 자신이 조성한 사회관계망을 기반으로 의리 정신에 투철하였던 당시 호남 사람과 폭넓은 교류

1) 洪直弼, 『梅山集』 卷27, 38b~39a, 「懷齋集序」, “公從事性理之學, 登剡薦幸百里, 而思菴朴文忠公許公以文武全才, 用備王國之楨. 處臺閣, 則振書誥之聲, 試郡邑, 則興風草之化. 道不可行, 則克遂初服, 出處語默, 無一不準於繩墨. 馴致竭身命以殉國, 歷夷險而一節, 是豈無所本而然哉? 本之學問, 而究竟以節義, 斯爲公始終條理也.” 『梅山集』의 「懷齋集序」와 『懷齋遺集』의 「懷齋先生遺集序」는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제시한 내용의 구절은 「懷齋先生遺集序」에 “공은 일찍이 燕京에 사신으로 가 朱晦菴의 진상을 가지고 와서 아침 저녁 우리러 사모하며 성리학에 중사하였다.”(公嘗使燕得朱晦菴眞像, 晨夕瞻慕, 從事理之學, 登剡薦幸百里, 而思菴朴文忠公, 許以文武全才, 用備王國之楨.)”라고 서술되어 있다.

2) 의리 정신에 입각한 박광옥에 대한 평가는 홍직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7세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문인 관료인 吳道一(1645~1703)은 “조정 안팎에서 행실과 절조를 강직하고 곧게 하였다.”(『西坡集』 卷19, 32b, 「贈都承旨朴光玉贈兵曹判書金德齡祠宇賜額祭文」)라고 평가하였고, 林泳(1649~1696)도 “대각에 있으면서 맑은 풍조를 진작하고 혼탁한 풍조를 떨쳐내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서 權貴를 탄핵하는 것도 피하지 않았다.”(『滄溪集』 卷5, 17b, 「請故持平朴光玉忠勇將金德齡贈諡疏」)라고 평가하는 등 후대의 주요 문인들은 의리의 실천이 박광옥의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3) 박광옥의 의리 정신과 그 실천에 관한 검토는 자료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박광옥의 삶과 학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인 『회재유집』은 박광옥의 遺文을 수습할 直孫이 없어 그가 사망한 지 2백여 년 지난 1799년에 박광옥의 방손인 朴承彦의 노력에 힘입어 「行狀」 등 일부 유문이 수습되어 초간본이 간행되었다. 하지만 「행장」에서 박광옥이 「尺牘과 書札에 더욱 뛰어났다.»라는 평가와 달리, 『회재유집』에는 단 한 편의 편지도 수록되지 않는 등 박광옥의 유문은 거의 수록되지 않았다. 후대에 정리된 그의 「연보」도 일부 내용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이 없지 않아 박광옥의 학문과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제한점에 유의하여 본고에서는 박광옥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행장」, 『회재유집』에 수록된 제한적인 여러 저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관찬 사료와 『율곡전서』를 비롯한 교유 인사의 문집 내용을 참고하여 그의 의리 정신과 실천을 정리하였다.

를 통해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학문적 탐구뿐만 아니라 의리 실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1) 학문 연원으로 사승(師承) 관계에 대한 재검토

일반적으로 박광옥은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인 유현(游軒) 정항(丁煥, 1512~1560)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해는 그의 종8대손인 박성일(朴性一, 1744~1804)이 정리한 「연보(年譜)」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⁴⁾ 박광옥이 10세 때인 1535년(중종 30)에 정항의 문하를 찾아 학문을 익혔고, 이때 정항이 박광옥의 몸가짐이 차분하고 강습하여 힘써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 덕스러운 인품을 갖추었음을 알고 크게 기대하였다는 것이 「연보」의 기록이다.⁵⁾

하지만 박성일이 당시까지 전해진 박광옥의 유사(遺事)와 행장(行狀)을 참고하고 이력을 고증하여 「연보」를 찬술하였지만,⁶⁾ 「연보」 이전의 자료, 특히 가장 믿을 만한 「행장(行狀)」에는 박광옥의 스승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회재유집(懷齋遺集)』의 다른 부록문자(附錄文字)에도 박광옥의 스승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박광옥이 문하에 입문하여 학문을 익혔던 시기의 정황이 처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박광옥의 스승을 정항으로 단정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다.

먼저, 박광옥이 문하에 입문하던 시기의 정황은 여러 측면에서 문하에 문인을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 정항은 13세 때인 1524년(중종 19)에 부친상을 당해 고향인 남원에서 형 정환(丁煥, 1497~1540)과 함께 여묘(廬墓)를 한 이후에 지속해서 한양에 거주하며 학문을 익히고 있었다.⁷⁾ 그리고 박광옥이 입문한 다음 해인 1536년(중종 31)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 합격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보임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항은 박광옥이 입문하던 시기에 한양에서 과거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고, 당시 정항의 학자적 위상도 광주 지역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박광옥이 처했던 당시 주변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10세 전후에 특정 학자의 문하에 입문하는 것이 상례(常例)이지만, 당시 박광옥은 1532년(중종 27)에 부친 박곤(朴鯤, ?~1532)을 여의고 삼년상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⁸⁾ 이에 더하여 박광옥과 정항은 특기할 만한 사회관계망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박광옥이 홀로 한양에서 활동하던 정항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호남 지역에는 일재(一齋) 이항(李恒, 1499~1576),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등 주목할 만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학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박광옥이 구태여 학자적 위상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정황

4) 「연보」 이외에 박광옥의 스승으로 정항을 지목한 기록은 「海東名賢錄」, 「湖南節義錄」 등이다. 이러한 기록은 모두 박광옥이 사망한 지 2백여 년이 지난 시점에 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보」의 기록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5) 朴光玉, 『懷齋遺集』附錄 上, 2a, 「年譜」, 「10歲條」, “從學于游軒丁先生(煥), 先生靜庵門人. 丁先生見先生 持身恬靜 講習力行, 已知爲德器 期許之甚重.”

6) 『懷齋遺集』附錄 下, 9b, 「跋」(朴性一 撰), “參考於遺事及行狀, 攷證於履歷. 遂成年譜.”

7) 丁煥, 『游軒集』附錄, 2b~3a, 「年譜」, 「13歲條」, 「25歲條」 등 참조.

8) 『懷齋遺集』附錄 下, 14a, 「行狀」(柳思敬 撰), “甫七歲, 丁外艱, 號哭哀慕, 守喪三年有同成人, 鄉人莫不歎異之.”

9) 『懷齋遺集』과 『游軒集』에는 박광옥 및 그의 가문 인사와 정항 및 그의 가문 인사 간의 교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을 찾았다는 것은 「행장」의 기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정황의 『유현집(游軒集)』에는 박광옥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의 「문생록(門生錄)」에도 박광옥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황을 박광옥의 스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¹⁰⁾

그러면 왜 「연보」에서 박광옥의 스승으로 정황을 지목했을까? 이 배경을 관련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리 정신에 투철했던 박광옥의 학문을 호남의 선배 사림과 연관 짓고자 했던 「연보」 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황은 조광조의 문인이자 을사사화(乙巳士禍) 당시에 피화될 정도로 의리 정신에 투철했던 호남의 대표적인 사람과 문인 중 한 사람이었다. 아울러 그는 김인후를 비롯하여 박광옥과 인연이 깊었던 노진(盧禎, 1518~1578) 등과 일정하게 교유하였다.¹¹⁾ 박광옥과 깊이 있게 교유하였던 기대승(奇大升, 1527~1572)도 정황과 직접 교유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정황의 대표 문인인 정염(丁焔, 1524~1609)과 일정하게 교유하는 등¹²⁾ 박광옥의 주변 인사 가운데 정황과 교유한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정황은 사림 의식이 투철하였을 뿐 아니라 호남의 주요 문인들과 일정하게 교유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연보」의 찬자인 박성일이 박광옥의 스승으로 정황을 지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2) 폭넓은 교유와 도학 정신의 계승

정황을 박광옥의 스승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박광옥의 학문과 의리 정신은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홍직필의 다음 언급이라 할 수 있다.

불초가 일찍이 듣건대, 공은 하서(河西, 金麟厚)의 유풍(遺風)을 사모하고, 고봉(高峯, 奇大升), 사암(思菴, 朴淳), 옥계(玉溪, 盧禎) 등 여러 현자(賢者)를 종유하여 도의를 강마하였다. 그 조예와 성취가 사우(師友)의 올바른 연원에서 나왔으니, 비록 임진년에 수립한 공이 없더라도 또한 한 시대의 명유(名儒)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¹³⁾

홍직필은 「연보」의 기록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전해 들었던 내용을 근거로 박광옥이 김인후의 학문을 사숙하였고, 당시 호남 사림의 중심이었던 기대승, 박순(朴淳, 1523~1589), 노진 등 주요 문인들과의 교유를 통해 자신의 학문을 이루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박광옥의 학문이 특정한 스승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호남의 주요 학자들과의 교유를 통해 스스로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10) 주윤진, 「流配詩에 나타난 游軒 丁煥의 의식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0쪽.

11) 金麟厚는 丁煥이 乙巳士禍(1545)에 연루되어 고향인 남원으로 근거지를 옮겼을 때 위로의 시를 보냈고, 이후에 정황이 유배형에 처했을 때도 시를 주고받는 등 지속해서 교유 관계를 이어 나갔다.([『河西集』 卷7, 11a, 「贈丁季晦 煥」.; 41a, 「次季晦韻」.; 『游軒集』 卷2, 「與李龜巖金河西韻」 등 참조.) 盧禎도 丁煥과 시를 주고받으며 깊이 있는 교유 관계를 맺고 있었다.([『游軒集』 卷2, 38a~b, 「寄盧子膺 禎(二十韻)」.; 『玉溪集』 卷1, 14b~15a, 「次丁舍人季晦 煥 韻」 등 참조.)

12) 丁焔은 綾城縣令으로 재임하던 중에 奇大升이 사망하자 제문을 통해 그의 학덕을 기렸다. 『高峯別集』 附錄 卷1, 5b~6b, 「祭文(丁焔 晚軒)」. 이밖에 박광옥이 직접 처소를 찾아 교유 관계를 맺었던 李楨(1512~1571)도 정황과 일정하게 교유 관계에 놓여 있었다.([『懷齋遺集』 附錄 上, 6a~b, 「45歲條」 참조.)

13) 『梅山集』 卷27, 39a, 「懷齋集序」, “不佞嘗聞公願慕河西之遺風, 而從遊于高峯思菴玉溪群賢, 講磨道義. 其所造就, 出於師友淵源之正, 縱微壬辰樹立, 亦無愧爲一世之名儒.”

말해, 박광옥의 학문은 경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스스로의 노력에 주요 학자와의 학문 교유가 더해져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호남의 주요 사람과의 교유는 박광옥의 학문적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박광옥의 학문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호남의 주요 사람과의 교유는 선대에 조성된 사회관계망이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박광옥 가문이 광주 지역에 세거하게 된 것은 5대조인 박계양(朴繼陽)이 광주 지역의 주요 가문 중 하나인 영광김씨(靈光金氏) 가문과 혼맥으로 이어진 것이 계기였다.¹⁴⁾ 이후 박광옥의 직계 선조들은 지역 내의 주요 가문과 혼맥으로 연계되면서 착실하게 지역 내에서 기반을 다졌다. 박광옥의 조부인 박자회(朴子回)가 박상(朴祥, 1474~1530)의 문인인 임억령(林億齡, 1496~1568)과 임백령(林百齡, ?~1546) 형제의 부친인 임우형(林遇亨)을 사위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박광옥 가문이 호남의 주요 가문과 혼맥으로 연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렇게 지역 내에서 일정하게 가계(家格)를 구축한 이후, 박광옥의 백부인 박봉(朴鵬)과 부친인 박곤이 각각 등과하여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와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를 역임하였고, 이들의 사환은 그의 가문이 지역 내에서 비중 있는 가문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광옥 가문이 지역 내에서 일정하게 자리 잡으면서 가문 내 주요 선조들은 당시 호남 사람을 비롯한 사람과 문인들과 직간접적으로 교유 관계를 맺는 등 사회관계망을 확장하였다. 대표적으로 박곤은 문과 급제 동기인 박상, 홍언필(洪彦弼, 1476~1549) 등과 교유하며 호남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회관계망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사회관계망은 박광옥의 학문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일찍부터 박광옥의 학문적 능력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광옥이 출산한 이후에 문과에 응시할 것을 권하는 등 박광옥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박순(朴淳, 1523~1589)이 박상의 조카였고, 박상의 아들인 박민중(朴敏中, 1502~1536)도 박광옥과 어려서부터 교유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선대에 조성된 사회관계망이 박광옥의 학문 형성과 성장의 기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선대에 조성된 사회관계망 이외에 박광옥 자신이 조성한 사회관계망도 그의 학문 형성, 특히 의리에 기반한 사람 정신의 계승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박광옥은 일찍이 자신의 학문적 자질을 인정한 미암(眉庵) 유희춘(柳希春, 1513~1577),¹⁶⁾ 당시 호남 유학을 주도하던 이항 등 선배 학자를 비롯하여 젊은 시절부터 도의(道義)로 사귀며 함께 절차탁마한 기대승, 임진왜란 당시에 창의를 함께 한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 1533~1592),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 1537~1593), 말년에까지 교유를 지속한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 등 16세기 중반 이후 호남을 넘어 중앙 관계에서 활동한 호남의 주요 사람들과 교유를 진행하였다. 이들 이외에 풍영(豐咏) 김언거(金彦琚, 1503~1584), 이소재(履素齋) 이중호(李仲虎, 1516~?),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1517~1584), 물염(勿染) 송정순(宋廷筍, 1521~1584), 고암(鼓巖) 양자징(梁子徵, 1523~1594), 서하(棲霞) 김성원(金成遠, 1525~1592), 죽계(竹溪) 최경장(崔慶長, 1529~1601), 도탄(桃灘) 변사정(邊士貞, 1529~1596), 죽재(竹齋) 양사기(楊士奇, 1531~1586), 조경중(曹景中, 1533~1584) 등 수많은 호남 지역의 문인들도 박광옥과 지속해서 교유하였다. 이들 이외에 광주 목사를 지

14) 『懷齋遺集』 附錄 下, 13b, 「行狀」.

15) 박광옥은 일찍 사망한 박민중을 그리워하는 시를 남겼다. 『懷齋遺集』 卷1, 「懷朴上舍時叔 名敏中」.

16) 유희춘은 1568년에 “전라도 광주의 朴光玉·朴揆는 참으로 학식이 있는 생원이 되었다.”(『眉巖集』 卷6, 8b, 「日記」, 「戊辰下」)라고 평가하였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유를 진행하였다.

넌 구촌(龜村) 유경심(柳景深, 1516~1571), 송정(松亭) 최응룡(崔應龍, 1514~1580)을 비롯하여 서교(西郊) 송찬(宋贊, 1510~1601), 민충원(閔忠元, 1541~?) 등 박광옥은 호남 지역 지방관과의 교류도 진행하는 등 그의 교류 폭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박광옥이 교류했던 문인들은 대체로 사림 정신이 충만한 인사들이었다는 점에서 박광옥의 사상적 지향을 구체화하는 통로였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희춘은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으로 인해 제주로 유배될 정도로 의리 정신에 투철한 호남의 대표 사림이었으며, 이항과 사철논변을 펼친 기대승은 기묘명현인 기준(奇漣)의 의리 정신을 계승하여 학문뿐 아니라 정치의 측면에서도 의리 정신의 구현을 위해 헌신한 호남의 대표 문인이었다. 특히 박광옥과 함께 창익한 고경명, 김천일 이외에 변사정, 최경회(崔慶會, 1532~1593) 등 다수의 교류 문인이 임진왜란 당시에 창익하였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교류는 의리에 입각한 사림 정신의 계승을 넘어 이를 충의로 발전하는 통로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광옥은 40대에 출사한 이후에 사림 정신을 계승한 신진 관료들과도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하였다. 그는 내시교관에 처음 발탁되어 관직에 나아간 이후부터 여러 관직을 맡아 소임을 다할 때도 박순의 형인 박개(朴溉, 1511~1586)를 비롯하여 이충작(李忠綽, 1521~1577), 임복(林復, 1521~1576), 신대수(申大壽, 1522~?), 이유근(李惟謹, 1523~1606), 김첨경(金添慶, 1525~1583), 정현(鄭璣, 1526~?), 조감(趙堪, 1530~1586), 김취려(金就礪, 1526~?), 고응척(高應陟, 1531~1605) 등 사림 정치의 젊은 인사들과 교류하였다.¹⁷⁾ 특히 출사 이후에 박광옥이 교류를 본격화한 인사들이 학맥을 뛰어넘어 사림 정신에 충실한 당시의 신진기에였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교류는 의리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실천적 학문 연찬과 강학

특정한 스승 없이 폭넓은 학문 교류를 통해 의리에 입각한 사림 정신을 계승한 박광옥의 학문은 성리학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는 21세 때인 1546년(명종 1)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이후에 대과(大科)를 준비하는 등 과거시험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가 진정 추구한 것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이자 의리지학(義理之學)으로서의 성리학이었다. “젊어서부터 늙도록 의복을 바르게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니 비록 집안사람이나 자제들도 태만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¹⁸⁾라는 기록 이외에 사신으로 중국에 갔다가 주자(朱子)와 여조겸(呂祖謙)의 진상(眞像)을 가지고 와 존송의 뜻을 보여주었다는 『행장』의 기록에서 확인되듯이,¹⁹⁾ 박광옥은 평생토록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의리적 학문 경향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박광옥의 성리학에 대한 관심은 『소학(小學)』의 이해와 실천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주지하듯이, 『소학』은 주자가 자신의 문인인 유청지(劉淸之)와 함께 오륜(五倫)을 비롯하여 일상에서 지켜야 할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관한 글을 선별하여 편찬한 대표적인 성리학의 규범서이다. 고려 말에 도입된 『소학』은 조선 전기에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필수 시험과목으로 법제화되었지만, 사회기 이전까지 『소학』의 내용을 실천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과 학자들은 『소

17) 이들과의 교류는 『懷齋遺集』 卷1에 수록된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懷齋遺集』 附錄 下, 18a, 「行狀」.

19) 『懷齋遺集』 附錄 上, 9a, 「55歲條」.

학』을 단순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몽서(童蒙書)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학』에서 제시한 수기(修己)와 율신(律身)이 의리 실천의 기초라고 인식하고 『소학』의 보급과 실천에 앞장섰으며, 『소학』의 자율적 실천이 도덕 정치의 밑거름이 된다고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였다.²¹⁾

사람파의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박광옥은 『소학』에 대한 이해를 넘어 자율적인 실천에 앞장섰다. 그의 『행장』에서 백형인 박광정(朴光鼎, ?~1548)이 사망한 이후에 가문을 이어받은 박광옥이 『소학』의 가르침에 따라 가정을 이끌었다고 서술한 것은²²⁾ 그가 일찍부터 『소학』의 실천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소학』 이외에 박광옥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실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주자가례』가 단순한 예서의 수준을 넘어 성리학의 이념을 향촌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생활 규범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주자가례』에 따라 의례(儀禮)를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학생들과 강론하였다는 것은²³⁾ 성리학의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가 30세 때인 1555년(명종 10)에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와 「여씨향약(呂氏鄉約)」을 참고하여 「선도향약(船道鄉約)」을 제정하고 운영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현실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학』과 『주자가례』 등을 통해 실천적인 학문에 관심을 기울인 박광옥은 성리설(性理說)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해를 갖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만한 성리설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저술을 남기지 않았지만, 박광옥은 일찍부터 교유한 기대승을 비롯하여 당시 호남 유학을 주도하던 이항 등을 통해 성리설에 대해 일정한 관심과 이해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그가 기대승의 만시(挽詩)에서 “민락(閔洛)의 아름다운 덕음(德音)이 멀어져 가니 새롭고 기이한 논설이 생겨났지만, 위대한 가르침으로 도맥(道脈)을 붙들기 위해 그대가 다시 문명(文明)을 응하였네.”²⁴⁾라고 하여 기대승의 성리설에 대한 이해를 드러냈 것과 이항의 만시에서 “하나의 리는 하늘이 고르게 부여하였지만, 천 년 동안 이를 아는 선비가 드물었네. 선생이 남쪽에서 펼쳐 일어나 우리의 도가 동방에서 창성해졌다.”²⁵⁾라고 하여 리기론에 대한 이해의 일단을 드러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옥이 성리설에 대한 일정한 이해는 만년에 이르러 역학(易學)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만년에는 『주역(周易)』, 『역학계몽(易學啟蒙)』, 『주자가례』 등의 글에 더욱 힘을 쏟아 분석이 정밀하여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천문(天文)과 산수(算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대체를 섭렵하였다.”²⁶⁾라는 『행장』의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그는 의리의 근원인 천지자연의 이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²⁷⁾

역학에 관한 관심을 구체화하는 등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면서도 박광옥은 유연한 학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는 지리산, 금강산 등 여러 명승을 유력하면서 탈속(脫俗)과 안분(安分)의 태도를 가다듬었

20) 김용현, 「조선전기 사람파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국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11, 44~45쪽.

21) 장숙필, 「16세기 유학적 수양론과 경제론의 연관 구조」, 『동양철학』 19, 한국동양철학회, 2003, 44쪽.

22) 『懷齋遺集』 附錄 下, 14a, 「行狀」.

23) 『懷齋遺集』 附錄 下, 16b, 「行狀」.

24) 『高峯別集』 附錄 卷2, 9a, 「挽章」(朴光玉懷齋), “閔洛徽音遠, 新奇異論生. 大教扶道脈, 君復應文明.”

25) 『一齋集』 附錄, 51b, 「挽詞」(朴光玉), “一理天均賦, 千年土鮮知. 先生起南服, 吾道昌東陲.”

26) 『懷齋遺集』 附錄 下, 18b, 「行狀」.

27) 박광옥이 易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의 딸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盧禎의 아들과 결혼한 박광옥의 둘째 딸은 『주역』에 밝아 ‘주역각시’ 설화의 주인공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홈페이지(<http://gjstory.or.kr/sub.html?pid=48&formtype=view&code=1231>) 참조.

고,²⁸⁾ 때로는 승려들과 격의 없이 시를 주고받는 등 유연한 면모를 보여주었다.²⁹⁾

한편, 박광옥은 자신의 학문이 탐구한 학문을 전수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30대 초반에 ‘개산송당(蓋山松堂)’을 조성하여 문생들과 성리학을 토론하였고,³⁰⁾ 지방관으로 재임할 때도 지역의 여러 학생과 강론을 이어 나가는 등 강학 활동을 지속하였다.³¹⁾ 이에 따라 그의 문하에서는 박희수(朴希壽, 1540~1599)·정운룡(鄭雲龍, 1542~1593)·유사경(柳思敬, 1556~1607)·임협(林峽, 1573~1598)·이경룡(李慶龍)·유술(柳述)·박운협(朴允協)·박운성(朴允惺)·박사무(朴思懋) 등 적지 않은 문인이 배출되었다.³²⁾ 특히 그의 문인들은 임진왜란 당시에 박광옥과 함께 창의를 대열에 앞장섰고, 이후에도 유술이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김장생(金長生)의 거의(擧義)에 동참하여 충의의 면모를 보여주는 등 문인들의 의리적 면모는 두드러졌다.³³⁾ 비록 박광옥의 문인들은 성리설 등에서 특기할 만한 학문적 성취를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의리 정신에 기초한 충의의 면모를 부각하며 박광옥의 의리 정신은 이어 나갔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강학을 통해 실천적 학문을 전수한 박광옥의 학문 활동은 의리에 입각한 도학 정신의 계승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가 사림파의 대표 문인인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을 비롯하여 신비복위소(愼妃復位疏)를 통해 사림 정신을 부각한 박상과 김정(金淨, 1486~1521), 그리고 조광조의 문인인 성수침(成守琛, 1493~1564) 등 선배 사림의 시를 차운하거나 아들이 남긴 문집을 열람하며 의리 정신을 되새긴 것은 사림 정신에 대한 계승 의식이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³⁴⁾

3. 도학 사상에 기초한 의리 정신의 실천

젊어서부터 착실하게 구축된 박광옥의 학문과 의리 정신은 관직에 나아간 4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하였다. 그의 관직 생활은 국정의 주도권을 가졌던 훈척(勳戚) 세력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도학 사상을 실현하려는 사림 정치가 본격화하는 선조(宣祖) 대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훈척과 일정하게 연결된 일부 구신(舊臣)들의 영향력이 여전한 시기였을 뿐 아니라 동서분당(東西分黨) 등 사림 내부에서 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³⁵⁾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적지 않게 표면화하였고, 의리 정신

28) 박광옥의 이러한 태도는 그와 깊이 있게 교류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朴淳의 학문적 태도와 일정하게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徐敬德의 문인인 박순은 성리학 이외에 道家書, 佛家書, 百家書 등에도 능통했고, 탈속한 경지를 추구하여 말년에 경기도 永平에 은거하였다. 박광옥은 은거한 박순을 직접 찾기도 하는 등 지속해서 박순과 교류하였다.

29) 후술하겠지만, 승려들과의 교류는 임진왜란 당시에 박광옥이 승병을 일선에 동원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0) 『懷齋遺集』 附錄 上, 3b~4a, ‘31歲條’.

31) 『懷齋遺集』 附錄 上, 9b, ‘56歲條’.

32) 박광옥의 문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安東敎가 정리한 문인록을 참고할 것.(벽진서원보존회 편, 『(증보 국역) 회재유집』, 도서출판 대학서림, 2026, 712~722쪽) 문인 가운데 柳思敬, 林峽 등은 박광옥의 사위이고, 柳述은 박광옥의 외손이다.

33) 『沙溪全書』 卷46, 9a, 「擧義錄」.

34) 『懷齋遺集』 卷1, 1a, 「白雲洞訪曹雲伯(名俊龍○甲子秋在京作)」; 『懷齋遺集』 卷1, 7a, 「碎玉斗」(用佔畢齋韻 二首); 『懷齋遺集』 卷1, 26a~b 「閑中見冲庵集次訥齋贈僧詩韻」; 『懷齋遺集』 卷1, 26b, 「將遊皆骨用朴金兩先正剛泉詩韻賦此」; 『懷齋遺集』 卷1, 54b, 「閑中覽訥齋詩次之」 등 참조.

35) 이정철, 「선조 대 당쟁의 원인과 전개 양상」, 『藏書閣』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74쪽.

의 실천을 위한 박광옥의 관직 생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박광옥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의리에 근거하여 사림 정치의 실현을 위해 분투하였다.

1) 낭천제(郎薦制)를 통한 관직 진출

박광옥이 처음 관직에 나갔을 때는 45세 때인 1570년(선조 2)이었다.³⁶⁾ 비록 과거를 통한 출사는 아니었지만, 박광옥에게 관직이 제수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정치 개혁과 일정하게 관계된 것이었다.

선조가 등극한 후에 사림파 문인들은 훈척들이 20년 가까이 주도한 구체제를 청산하고자 하였고, 이때 이들이 주목한 것은 부패의 온상이었던 인사 제도였다. 청탁으로 얼룩진 인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이조판서(吏曹判書)로 등용된 이탁(李鐸, 1509~1576)은 낭관(郎官)들에게 명망 있는 선비들을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받은 선비들이 시험 없이 바로 관직 추천 대상이 되게 하는 ‘낭천제(郎薦制)’를 시행하였다.³⁷⁾ 일부의 반대가 없지 않았지만, 이탁은 낭천제를 굳게 밀고 나갔으며, 이후 이조판서에 등용된 박순(朴淳, 1523~1589)도 낭천제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³⁸⁾ 사림의 조정 진출을 확대하여 훈척에 의해 조성된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림의 낭천제에 따라 박광옥도 중앙 관계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었다.³⁹⁾

박광옥이 처음 맡은 관직은 ‘내시 교관(內侍敎官)’이었다. 내시 교관은 내시부에는 소속되지 않은 관원으로, 내시들에게 사서(四書)를 비롯하여 『소학』,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을 가르치는 종9품직이었다. 미관말직임에도 내시 교관이 박광옥에게 제수되고, 이를 박광옥이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 시기에 단행된 일련의 개혁 조치와 일정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조는 즉위 직후에 내번(內番) 환관(宦官) 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명하는 한편, 환시(宦侍)들과 접촉을 중단하였다.⁴⁰⁾ 이에 더하여 문정왕후(文定王后)와 결탁하여 왕실 내부의 여러 잡음을 불러일으킨 궁녀와 내시를 축출하거나 파직하는 등 왕실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⁴¹⁾ 이러한 선조가 단행한 일련의 조치는 사람들의 개혁 정책과 맞물려 내시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구체화하는 정책 방향을 이끌었고, 이에 따라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은 박광옥을 내시 교관으로 발탁하고, 박광옥도 이에 응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박광옥은 선조 초기에 단행된 사람들의 개혁 정치와 결부하여 관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내시

36) 『懷齋遺集』 附錄 上, 「行狀」, “隆慶庚午春, 朝廷方選舉行, 以大臣薦授內侍敎官.” 「연보」에는 44세 때인 1569년(선조 2) 12월에 내시 교관에 제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7) 『宣祖修正實錄』 3권, 선조 2년 6월 1일(계유) 6/8 기사.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낭천제는 1568년(선조 1)에 이조정랑 具鳳齡과 좌랑 鄭澈이 제기한 것으로, 이조판서 이탁이 이 주장을 수용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낭천제 시행은 구신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탁에 이어 구신 계열로 분류되는 洪燾이 이조판서가 되면서 낭천제를 부정하려 하자, 구신과 신진사류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38) 『宣祖修正實錄』 9권, 선조 8년 7월 1일(정유) 6/12 기사. 이 기사에 따르면, “今上(선조)이 새로 정사를 하자, 드디어 낭천의 의논이 있게 되었는데 헛된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일이 있었으나 벼슬길은 조금 맑아졌다. 박순이 이조판서가 되어 또 학행이 있는 선비는 곧장 6품으로 나가게 하는 의논을 정하였다.”라고 하여 사림이 주도하여 선조 초에 낭천제가 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정철, 「선조 대 ‘동서분당’ 전개의 초기 양상」, 『民族文化』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266~267쪽 참조.

39) 박광옥을 추천한 낭관은 鄭澈로 추정된다. 정철은 이 시기에 낭관직인 이조 좌랑(선조 1), 예조 정랑(선조 2)을 각각 역임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시기에 이조판서가 박순이었던 것도 박광옥의 발탁에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40) 『宣祖修正實錄』 1권, 선조 즉위년 7월 3일(병진) 1/1 기사.

41) 金盛祐, 「선조대 사림파의 정국 장악과 개혁 노선의 충돌」,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5~6쪽.

교관으로 재임하면서 활동한 내용은 문집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박광옥은 충실하게 관직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⁴²⁾ 이러한 것은 1574년(선조 7)에 종6품의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에 임명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박광옥은 선조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충실하게 그 직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품계가 한 단계 높은 관직에 제수된 것이다.

박광옥은 내시교관으로 재임하면서 소과(小科) 동기생과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는 한편, 평소 산수(山水)를 유람하고자 하는 뜻을 실행하였다. 그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승진과 관련하여 고관들에게 일체의 청탁을 하지 않은 대신, 교유하던 신진 인사들과 함께 한양의 삼각산(三角山)과 서호(西湖)를 비롯하여 지리산(智異山), 화순의 적벽(赤壁), 금강산(金剛山) 등을 유력하였다. 이러한 유력이 가능했던 것은 내시 교관이 체아직(遞兒職)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관직 진출 이후에 의리에 입각한 사림 정신을 다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³⁾ 그리고 이러한 점은 그가 여러 지역을 유력하면서 동행한 인사를 비롯하여 유력 과정에서 만났던 인사들이 대체로 젊은 신진 관료이거나 사림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향촌 교화에 주력한 지방관

박광옥이 관료로 재임하면서 특기할 만한 성취를 이룬 시기는 여러 지역의 지방관으로서 맡았을 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574년(선조 7)부터 4년여 간 운봉 현감(雲峯縣監)으로 재임한 것을 시작으로 영광 군수(靈光郡守, 1581년), 밀양 도호부사(密陽都護府使, 1585년) 등 근 10년여 간 지방관으로 재임하였다. 지방관으로 재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을 뿐 아니라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그가 특히 지역민의 생활 안정에 기초하여 ‘향교 교육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는 것은 사림 정신과 긴밀하게 결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 인종 대부터 설치·운영된 향교는 조선이 개국한 이후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성종 대에 이르러 전국의 모든 군현에 설립되었고, 학령(學令)을 비롯한 제반 규칙도 이때 갖추어졌다.⁴⁴⁾ 조선 초부터 향교의 설치와 운영에 관심이 모인 것은 향교를 단순한 교육 기관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유교 이념의 확산과 이에 근거한 지배 질서 체제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향교에서 석전례(釋奠禮) 등의 의례를 시행한 것은 지역민의 교화와 관련된 것이었고, 향교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전달한 것 등도 향교를 교화의 장으로 인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조치였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 정립된 향교 교육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⁴⁵⁾ 조정에서

42) 이러한 것은 『學廡獨坐有感』(『懷齋遺集』 卷1)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懷齋遺集』 卷1에는 박광옥이 내시 교관으로 재임하면서 지은 시가 몇 편 실려 있다.

43) 박광옥은 내시 교관에 제수된 후에 한양의 집에 거처하면서 시를 지으면서 “세상을 보며 도를 지킬 계책을 세웠다.”라고 술회하였다. 『懷齋遺集』 卷1, 12b, 「庚午仲春十三日 在社稷洞第作」(去年季冬廿一日, 吏曹郎官共薦見除內侍教官, 正月望日發行, 念七日入京, 時余屢經家禍, 頗欲宕遊山水, 因此托跡朝市, 以觀世道計爾.)

44) 김경호, 「학교모범에 나타난 율곡의 교육사상」, 『율곡사상연구』 6, 율곡학회, 2003, 135쪽.; 신창호, 「高等教育機關으로서 朝鮮時代 鄉校의 教育理念과 役割」, 『東洋古典研究』 40, 동양고전학회, 2010, 40쪽.

45) 김정신, 「조선전기 향교의 정치·사회적 성격과 쇠퇴 원인」, 『중원문화연구』 13,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0, 151~154쪽. 향교 교육의 난맥상에 대해 율곡은 「學校模範」의 첫머리에서 “師道가 끊어지고 教化가 밝지 못함으

파견하는 교관들의 질적인 저하와 교육 내용의 미흡, 양인의 향교 입교에 대한 지역 사족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향교를 외면하는 사족들이 증가하였던 것이다.⁴⁶⁾ 향교 교육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박광옥은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수령칠사(守令七事)⁴⁷⁾ 가운데 ‘학교흥(學校興)’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박광옥이 먼저 단행한 조치는 지방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련의 시책이었다.

그의 『행장』에서 “공이 운봉(雲峯)의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다 쏟으니,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편안하여 호구(戶口)가 날로 늘어났다.”⁴⁸⁾라고 한 것은 박광옥이 지방관을 맡아 무엇보다 위민(爲民)의 입장에서 일련의 시책을 펼쳐 지역민의 생활 안정을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가 다른 시책에 앞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시책을 펼친 것은 『맹자』에서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언제나 선한 본심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선비만이 가능한 일이다. 일반 백성의 경우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선한 본심을 지킬 수 없게 된다.”⁴⁹⁾라는 것에 주목하여 지역민의 생활 안정이 정치의 근본으로 파악한 것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파폐해진 향교의 재건과 이에 기초한 교육의 활성화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고을에 옛날에 세운 학교가 있었는데 퇴락하여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다. 이에 고을 동쪽 2리쯤에 다 고쳐 세워 대성전(大成殿)과 동무(東廡)·서무(西廡)가 완전히 정비되었고, 또 남는 쌀 수백 섬을 지출하여 학생들의 공부 비용으로 쓰도록 했다. 그리고 향교 유생들에게 번갈아 수직(守直)하도록 하였으며, 경내의 나이 어린 수재(秀才) 10여 명을 선발하여 항상 거처하며 강습하도록 하였다. 공이 또 초하루와 보름에 공자의 위패에 절하고 나서 학생들과 강론하니 고을의 어른들이 서로 경하하지 않음이 없었고 이로부터 고을 사람들이 비로소 학문을 알게 되었다.⁵⁰⁾

지역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1410년(태종 10)에 창건된 운봉향교는 박광옥이 부임할 당시에 벽이 허물어져 있을 정도로 퇴락하여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박광옥은 먼저 향교를 이건(李健)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⁵¹⁾ 향교 운영의 재원을 마련하여 향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

로 말미암아 진작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비의 풍습이 경박해지고 良心이 마비되어 浮薄한 공명만 숭상하고 실행을 힘쓰지 않아서 위로는 조정에 인재가 모자라서 벼슬에 빈자리가 많으며, 아래로는 풍속이 날로 퇴폐하고 윤리의 紀綱이 날로 무너져 없어지고 있다.”라고 당시 향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은당시 향교를 비롯한 관학의 부진을 지적한 것이었다. 『栗谷全書』 卷15, 33b~34a, 「學校模範」(壬午製進) 참조.

46) 『栗谷全書』 卷15, 「學校模範」(壬午製進), “緣師道廢絕, 教化不明, 無以振起作成, 故士習偷薄, 良心枯亡, 只尚浮名, 不務實行, 以致上之朝廷乏士, 天職多曠, 下之風俗日敗, 倫紀數喪. 念及于此, 誠可寒心.”

47) 守令七事는 『經國大典』의 「吏典·考課」에 명시되어 새로 임명된 수령이 대궐에 하직을 고하고 떠날 때 啓板 앞에서 외우며 다짐했던 지방관의 의무 사항이었다. 그 내용은 농상을 번성하게 하고[農桑盛], 호구를 증가시키고[戶口增], 학교를 진흥시키고[學教興], 군정을 정돈하고[軍政修],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賦役均], 사송을 간략하게 하고[詞訟簡], 간활을 금지시키는 것[姦猾息] 등이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박수경, 「조선시대 지방관의 책무: ‘학교흥(學校興)」, 『인문사회과학연구』 13-2,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195~199쪽 참조.

48) 『懷齋遺集』 附錄 上, 16a, 「行狀」, “公盡心撫字, 吏畏民安, 戶口日增.”

49) 『孟子』, 「梁惠王 上」,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產, 因無恒心, 苟無恒心.”

50) 『懷齋遺集』 附錄 上, 16a, 「行狀」, “縣之舊學校, 頽圯不蔽風雨. 乃改營于縣之東二里許, 殿廡完整, 又以羨餘米數百石, 爲諸生肄業之備. 令校生遙番守直, 選境內年少才秀者十餘人, 恒處講習. 公亦朔望, 恭謁聖廟, 仍與訓講, 父老莫不相慶, 自是縣人, 始知學焉.”

51) 박광옥은 현재의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에 있던 향교를 1575년에 당월리로 이건하였다. 이때 이건한 운봉향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1640(인조 18)에 현재의 위치인 운봉읍 산덕리에 재건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북도

었다. 향교 교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박광옥은 정기적으로 향교 교생을 대상으로 강학 활동과 함께 의례를 진행하여 향촌 교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지역의 유풍 진작을 일구었다.⁵²⁾ 이처럼 박광옥은 처음 지방관을 맡아 향교 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꾀하여 유교 이념에 기초한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실현해 나갔던 것이었다.

향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지역의 유풍 진작은 영광 군수와 밀양 도호부사로 재임할 때도 이어졌다. 영광 군수 재임 당시에도 박광옥은 퇴락한 영광향교를 중수(重修)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사(文士)를 대상으로 정치의 요체를 강론하는 등 지역의 유풍을 진작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향교 운영을 성균관의 제도에 따라 시행하여 호남 지역 내에서 향교의 활성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곳으로 평가받는 등 그의 지역 교육 활성화에 관한 열의와 시행은 상당한 수준이었다.⁵³⁾

박광옥이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향교 교육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일찍부터 자신의 근거지인 광주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강학과 향교의 정상화에 매진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는 30대부터 향약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강학에 몰두하였다. 특히 그는 1560년(명종 15)에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부임한 유경심이 향교를 중수할 때, 사재(私財)를 출연하는 것에 더하여 향교의 재실 운영 세칙인 재헌(齋憲)과 학규(學規)를 제정하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역 교육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다.⁵⁴⁾ 이처럼 박광옥은 젊은 시절부터 지역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고, 관직에 나아가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이러한 관심을 보자 현실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⁵⁵⁾

박광옥이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향교의 정상화 및 활성화, 나아가 지역 유풍의 진작에 매달린 것은 현실 개혁의 중심에 교육 개혁이 있다고 판단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무관치 않은 것이었다. 율곡이 학교 교육이 국가 전반의 운영과 관련된 정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 개혁안으로 「학교모범(學校模範)」을 저술한 것과 마찬가지로,⁵⁶⁾ 박광옥도 당시 현실 개혁의 중심을 교육 개혁으로 파악하고, 지역 교육의 개혁을 향교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피폐해진 향교의 개혁과 교육의 개선이 국가 전체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인식하여 교육 개혁안의 제출을 넘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향교 교육의 개혁을 실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공론(公論)에 입각한 정치 실현

지회, 『전북의 향교와 서원』, 신아출판사, 2011, 343~344쪽 참조.

52) 『懷齋遺集』 附錄 上의 「年譜」에 따르면, 박광옥은 향교의 강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규를 제정하는 등 교육 체제의 정비에도 앞장섰다. 『懷齋遺集』 附錄 上, 7a, 「年譜」, '49歲條' 참조.

53) 『懷齋遺集』 附錄 上, 9a, 「年譜」, '56歲條'. 60세 때 밀양 도호부사를 맡았을 때도 박광옥은 文治를 지속하는 등 교육에 관한 시책을 이어 나갔다. 같은 책, '59歲條' 참조.

54) 『懷齋遺集』 附錄 上, 14b, 「行狀」, “時牧使柳公景深, 重修鄉校, 有意興學, 公與一二同志, 終始協贊, 共成其美. 出私田若干頃, 以補學田, 而齋憲學規, 亦多裁定, 至今遵守不弛.”

55) 박광옥이 지방관을 역임한 이후에 光州敎授와 全州敎授를 역임하며 提督屬校官을 지낸 것도 이러한 관심의 반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鄉校 교육을 감독하고 장려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提督屬校官을 연이어 맡았던 것에서 향교 교육에 관한 그의 실천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56) 안외순, 「율곡(栗谷) 이이(李珣)의 『학교모범(學校模範)』에 나타난 고등교육 정책 - 정치와 교육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동방학』 33,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5, 171쪽.

박광옥은 중앙 관계에서도 일정하게 활동하며 의리적 면모를 명증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1579년(선조 12)에 예조 정랑(禮曹正郎)에 임명된 지 1년 만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을 맡았다. 문과 급제자 가운데 청렴 강직하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며, 시시비비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오를 수 있는 청환직(淸宦職)인 사헌부 지평은 이조 전랑(吏曹銓郎)과 더불어 국가 운영의 틀을 지탱하는 관직으로 평가받은 요직으로 평가받는 자리였다. 이처럼 조정의 요직에 박광옥이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그의 학문과 덕행(德行)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그가 평소 보여주었던 청렴결백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⁷⁾

박광옥이 사헌부 지평으로 재임하며 펼친 행적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았다. 그의 「행장」에는 박광옥의 사헌부 지평 재임 시절에 대해 “언관으로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권하는 일을 책임져 탄핵도 피하지 않으니 권신 중에서 꺼리고 미워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하였고⁵⁸⁾ 임영(林泳, 1649~1696)과 홍직필도 각각 “대각(臺閣)에 있으면서 맑은 풍조를 진작하고 혼탁한 풍조를 떨쳐내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서 권귀(權貴)를 탄핵하는 것도 피하지 않았다.”,⁵⁹⁾ “대각에서는 바른말을 하는 명성을 떨쳤다.” 등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박광옥은 사헌부 지평을 맡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조정의 기풍을 진작하고 의리 정신의 구현에 앞장섰고, 이러한 것은 1581년(선조 14)에 그가 주도했던 이경중(李敬中, 1542~1585)과 이식(李拭, 1510~1587)의 탄핵 등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이조 좌랑(吏曹佐郎)이었던 이경중은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⁶⁰⁾ 이경중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조야에서는 이경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었고, 이것을 접한 박광옥은 사헌부 장령(掌令)인 정인홍(鄭仁弘, 1535~1623)과 함께 그의 탄핵을 주도하였다. 당시 이경중의 탄핵과 관련하여 박광옥이 올린 계문은 다음과 같다.

이경중은 본래 학식이 없을 뿐 아니라 일결을 만한 행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로 벼슬에 오른 뛰어난 선비들은 오래 남의 앞을 막아 가린 채 경망하고 방자하게 구니, 행실 없이 조급하게 나아가려는 무리들이 대부분 그와 교분을 맺고 세를 형성하여 객기를 부려도 사람들은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울분에 차 있고 조정의 의론도 그를 용납지 않으니, 결단코 하루라도 전형(銓衡)의 지위에 두어 조정에 부끄러움을 끼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⁶¹⁾

박광옥이 주도한 탄핵에 대해 대사헌 정탁(鄭琢, 1526~1605)과 장령(掌令) 권수(權燾)는 “사류(士類)를

57) 박광옥은 광주에서 생활할 때 권세가를 피하고 오로지 독서에 매진하였고, 內侍 敎官에 제수되어 재임할 때도 근무 외의 여가에 문을 닫고 靜坐하며 교유를 좋아하지 않는 등 청렴한 자세를 보였다. 『懷齋遺集』 附錄 上, 14b, 「行狀」, “居鄉退避權勢, 惟以圖書自娛…… 隆慶庚午春, 朝廷方選舉行, 以大臣薦授內侍敎官. 入洛, 居于社稷洞第, 供職之餘, 閉門靜坐, 不喜交遊.”) 박광옥의 학문에 대한 평가는 사헌부 지평에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成均館 直講에도 임명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균관 직강은 유생들의 교육과 훈육을 담당할 뿐 아니라 대사성 등 고위 관료와 함께 성균관의 학문 연구와 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졌다.

58) 『懷齋遺集』 附錄 上, 16a, 「行狀」, “又拜持平, 以言爲責激濁揚清, 彈劾不避, 權貴多有忌疾者矣.” 이 기록 이외에 후술하는 이경중 탄핵과 관련한 내용은 『懷齋遺集』에 일절 수록되지 않았다.

59) 『滄溪集』 卷5, 17b, 「請故持平朴光玉忠勇將金德齡贈諡疏」, “其處臺閣, 以激揚自任, 彈劾不避權貴.”; 『梅山集』 卷27, 38b, 「懷齋集序」, “處臺閣, 則振書諤之聲.”

60) 『栗谷全書』 卷30, 「經筵日記」, ‘萬曆九年辛巳’.

61) 『(증보 국역) 懷齋遺集』, 「駁吏曹佐郎李敬中啓」, 벽진서원보존회, 2026, 582쪽.

탄핵하는 일은 경솔히 할 수 없다.”라며 반대하였다. 이렇게 사헌부 내부에서 이견이 표면화하자, 박광옥과 정인홍은 “동료들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다.”라며 주저 없이 체직(遞職)을 청하고 인혐(引嫌)하였고,⁶²⁾ 이후 사간원에서는 이경중의 행실에 문제가 있으면 논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인홍과 박광옥은 “들은 바에 따라 장차 악한 자를 제거하고 선한 자를 찬양하려고 했을 뿐 별다른 과실이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는 정인홍과 박광옥에게 출사의 명을 내렸고, 정탁과 권수에게는 “동료와 이견을 세워 먼저 스스로 소요를 일으켜 진정시키는 뜻을 크게 잃었다.”라며 체차(遞差)하였다.⁶³⁾ 이후 사헌부에서는 박광옥의 뜻대로 이경중의 행실을 들어 선조에게 거듭 파직을 요청했고, 선조도 이에 따랐다.⁶⁴⁾ 이렇듯 박광옥은 주변의 반대에도 주저 없이 문제 있는 인사를 탄핵하며 충직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공론(公論)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박광옥의 태도는 당시 대사헌(大司憲)이던 이식을 논박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1579년(선조 12)에 대사헌으로 등용될 때 이미 ‘용류(庸流)로 인망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식은⁶⁵⁾ 1581년에 이르러 자신이 황해 감사(黃海監司) 재임 시절의 일로 조정에 물의를 일으켰음을 거론하며 체직을 청하였다.⁶⁶⁾ 이식의 체직 요청에 대해 박광옥과 정인홍은 “지난 일로 가볍게 체직할 수 없으니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여 선조로부터 윤허를 받았지만,⁶⁷⁾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식의 부당한 행적에 대한 사실을 접하고, 주저 없이 “나인(內人)과 교통하였다는 말이 있고, 또 청렴하지 않다는 비방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사하라고 청하였다.”⁶⁸⁾라며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체직을 청하였다.⁶⁹⁾ 이후 사간원에서는 이식을 체차하고, 박광옥과 정인홍에게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여 선조로부터 윤허를 받았다.⁷⁰⁾ 이처럼 박광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공론에 따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두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는 동서분당(東西分黨) 이후 동인과 서인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 상태였다. 하지만 박광옥은 지평으로 재임하며 특정한 봉당의 정치적 이해를 바탕으로 두 인사의 탄핵을 주도하지 않았다. 이경중이 동인의 중심이었던 김효원(金孝元, 1532~1590)의 당파로 지목되었을 뿐 아니라⁷¹⁾ 남인이었던 유성룡(柳成龍, 1542~1607)도 이경중의 탄핵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⁷²⁾ 이경중의 탄핵을 봉당 간의 정치적 대립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박광옥은 동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⁷³⁾ 광주 목사로 부임한 유성룡의 족질인 유경심을 도와 광주 향교(光州鄕校)를 재건할 정도로 남인과

62) 『宣祖實錄』 15권, 선조 14년 3월 7일(庚午) 1/1 기사.

63) 『宣祖實錄』 15권, 선조 14년 3월 8일(辛未) 1/3 기사.

64) 『宣祖實錄』 15권, 선조 14년 3월 8일(辛未) 2/3 기사.

65) 『栗谷全書』 卷30, 「經筵日記 三」, ‘萬曆七年己卯’, “李拭爲司憲府大司憲, 皆庸流非人望.”

66) 『宣祖實錄』 15권, 선조 14년 3월 10일(癸酉) 1/2 기사.

67) 『宣祖實錄』 15권, 선조 14년 3월 10일(癸酉) 2/2 기사.

68) 율곡의 기록에 따르면, 이식은 “淸宦顯職에 있으면서도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자제하고 단속함이 없어 남들이 천하게 여겼다. 또 그 庶族 불이의 딸이 궁중에 들어가淑媛이 되어 바야흐로 총애를 받으므로, 자못 그와 서로 내통하고 뇌물을 바쳐 그 행적이 심히 추하였다. 이를 듣고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더니, 이에 이르러 대사헌이 되었다.”라고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었다. 『栗谷全書』 卷30, 「經筵日記」, ‘萬曆九年辛巳’ 참조.

69) 『宣祖實錄』 15권, 선조 14년 3월 14일(丁丑) 1/7 기사.

70) 『宣祖實錄』 15권, 선조 14년 3월 14일(丁丑) 2/7 기사.

71) 『宣祖修正實錄』 15권, 선조 14년 3월 1일(甲子) 2/6 기사.

72) 『栗谷全書』 卷30, 「經筵日記」, ‘萬曆九年辛巳’.

73) 박광옥은 李仲虎(1512~1554)와 그의 아들 李潏(1544~1589), 李洁(1567~1589) 등 동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과

도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고 있었다. 비록 기축옥사(己丑獄事, 1589년) 이후에 이경중이 정여립(鄭汝立)을 적극 배척한 것이 재조명되면서 이경중 탄핵 사건을 주도한 정인홍과 박광옥에 대해 삭탈관직의 명이 내려졌지만,⁷⁴⁾ 박광옥이 이경중 탄핵을 주도한 것은 봉당 간의 대립에 따른 조치는 아니었다. 이러한 점은 이경중 탄핵 당시에 율곡이 “(탄핵을 주도한 두 인물은) 충성을 다하고 공도(公道)를 받들고 있었다. 그들이 논한 바에는 지나친 것이 있는 듯하나, 이것은 실로 공론인데 어째서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라는 뜻을 유성룡에게 전하였을 때, 이경중에게 우호적이었던 유성룡도 이를 수긍하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⁵⁾

이처럼 박광옥은 사헌부 지평으로 재임하면서 공론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직언을 서슴지 않는 등 의리 정신의 실현에 앞장섰다. 그가 깊이 있게 교유한 인사들이 대체로 박순을 비롯하여 이이, 정철 등 서인이었지만, 그는 이러한 교유에 매몰되지 않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격탁양청(激濁揚清)’의 자세로 의리 정신의 구현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다.⁷⁶⁾

4) 근왕(勤王)에 기초한 충의(忠義) 정신의 발현

노년에 이르러, 관직에서 물러난 박광옥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에 평생토록 추구한 의리 정신을 충의의 의병 활동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는 운봉 현감 재임 당시에 이미 그 지역에 소재한 황산(荒山)이 태조 이성계가 왜구를 무찌른 곳임을 상기하며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 건립을 주도한 바 있었다.⁷⁷⁾ 그가 대첩비 건립을 주도한 배경은 단순히 왜구 격퇴를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방위가 민심의 안정과 직결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고, 그 기저에 충군(忠君)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일찍부터 충군에 기초하여 구체화한 그의 의리 정신은 임진왜란을 맞아 의병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박광옥은 1592년 4월에 왜구가 침략하여 경상도 지역을 점령해 나가자, 당시 광주 목사(光州牧使) 정윤우(丁允祐, 1539~1605)를 찾아 “적이 만약 문경새재를 넘으면 한양이 위급하게 될 것”이라며 관군을 정비하여 한양을 호위해야 함을 역설하였다.⁷⁸⁾ 박광옥의 의견은 정윤우를 통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였던 이광(李洸, 1541~1607)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8천여 명의 근왕병(勤王兵)이 결집하여 공주(公州)까지 북상하였다. 하지만 이광은 선조가 피난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 회군(回軍)을 명령하였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북상한 병력은 용인(龍仁)에서 왜적에게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이광이 이끄는 관군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 몰리고, 지역의 민심도 크게 무너지자, 박광옥은 고경명, 김천일 등과 함께 의병의 규합과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일찍부터 교유하던 화순의 최경운(崔慶雲, 15

깊이 있는 교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懷齋遺集』 卷1에 실린 「輓李李文四首(爲其弟李舍人仲虎作)」, 「李上舍浩爲亡室求輓詞」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4) 『宣祖修正實錄』 23권, 선조 22년 12월 1일(甲戌) 8/27 기사. 삭탈관직된 것에 대해 박광옥의 행장에는 “病狀을 올려 체직되어 광주 옛집으로 돌아왔다.”라고만 기술되어 있다.

75) 『栗谷全書』 卷30, 「經筵日記」, 「萬曆九年辛巳」.

76) 『懷齋遺集』 附錄 上, 16a, 「行狀」, “以言爲責激濁揚清, 彈劾不避, 權貴多有忌疾者矣.”

77) 『懷齋遺集』 附錄 上, 14b, 「行狀」, “縣地荒山, 乃我太祖大捷倭寇之所也. 公申報方伯, 轉達于朝廷, 建荒山大捷之碑于茲山之陽, 舉前古墜曠之典. 行路莫不嗟歎, 碑殿至今存焉.”

78) 『懷齋遺集』 附錄 下, 16b, 「行狀」, “壬辰夏四月, 倭奴犯順. 公聞凶鋒已到尙州, 卽輿疾, 入見牧使丁允祐曰, 賊若踰嶺, 則京城可虞. 今者巡察方在羅州, 盍往見勸起勤王兵, 星馳北上, 遮截險要, 以衛京師乎?” 이하 내용은 「행장」과 「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27~1597)79)과 그의 동생인 최경장, 최경희 등이 의병 활동을 모색할 때도 박광옥은 이에 호응하는 등 호남 의병의 중심에서 활약하였다. 고령과 지병으로 인해 의진의 일선에서 활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경명이 담양(潭陽)에서 창의회자 정예병을 모집하고 군량과 군기를 모아 공급하는 등 호남 의병의 의진이 진용을 갖추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박광옥은 통유문(通諭文)을 작성하여 호남의 여러 지역에 보내었고, 광주 객관에 머물러 의병도청(義兵都廳)을 설치하고 의진의 전력과 군량 및 무기를 모아 보내는 등 호남 의병의 든든한 배경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이광의 회군과 용인전투 패배로 인한 민심 이반은 점차 해소되었고, 그의 주도하에 결집한 의병은 당시 광주 목사로 부임한 권율(權慄, 1537~1599)의 휘하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박광옥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호남 의병의 활동이 본격화하자, 박광옥은 의주(義州)로 몽진한 선조에게 상소를 보내 호남에서 빚어진 저간의 사정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계책을 제시하였다.⁸⁰⁾ 제자이자 문인인 유사경이 대신 작성한 이 상소문에서 그는 특히 관군의 패전이 이광의 무능함과 비겁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성토했고, 권율을 천거하며 호남 의병의 건재함을 알렸다. 상소문을 상주한 이후, 금산 전투에서 의병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접한 박광옥은 남평(南平) 현웅(玄雄)의 의병을 보내는 한편, 권율의 관군에게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처영(處英)의 승병(僧兵)을 파견하는 등⁸¹⁾ 전황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펼쳐 나갔다.

이렇게 의병 활동에 매진한 박광옥에게는 1592년(선조 25) 7월에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에 이어 나주 목사(羅州牧使)가 제수되었다. 노령과 병환 중이었음에도 그는 “국가가 위급하니 신하는 의리로 보아 어려운 자리를 사양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고, 나주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왜구를 토벌할 군사를 일으키고자 의병총치도청(義兵總治都廳)을 설치하는 등 전란 극복에 몰두하였다.⁸²⁾ 병력을 모으고 군량을 준비하여 출병을 도모했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인해 나주 목사에서 물러났고, 이듬해 10월에 사망하였다. 이렇듯 박광옥은 왜란 당시에 의진의 일선에서 왜적과 맞서 싸우지 않았지만, 의진의 배후에서 온갖 꾀은일을 도맡아 의병 활동이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왜란 직후에 누구보다 먼저 의병 활동을 선창하였을 뿐 아니라 의병을 규합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등 일찍부터 가졌던 의리 정신을 현실화하였다.

박광옥의 의병 활동은 선조가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여러 날 식사를 끊었다는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근왕(勤王)의 면모가 구체화한 것이었다. 당시 영남 의병에 비해 호남 의병이 근왕적 면모가 두드러졌다는 점⁸³⁾에서 박광옥의 의병 활동은 근왕을 통한 국난 극복이 목표였다

79) 박광옥은 崔慶雲 사후에 “오백 의병을 몇 번이나 모았나”라며 그를 추억하였다. 벽진서원보존회 편, 『(증보 국역) 회재유집』, 『憶崔善長慶運』, 벽진서원보존회, 2026, 578쪽.

80) 『懷齋遺集』 卷2, 5b~10a, 『壬辰行在所上疏』(門人柳思敬代製).

81) 박광옥이 休靜의 제자인 處英의 승병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전부터 일정하게 승려들과 교유한 것이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懷齋遺集』에는 승려에게 준 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82) 『懷齋遺集』 附錄 下, 16b, 『行狀』.

83) 임진왜란 당시 倡義 명분을 鄉保와 勤王으로 나누어 보고, 영남 의병은 항보에, 호남 의병은 근왕에 주안점이 두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다.(강문식, 「임진왜란기 영·호남의병활동의비교」, 『남명학』 16, 남명학연구원, 2011 참조) 하지만 영남 의병도 근왕적 면모가 있었음을 제시하고, 근왕의 대상인 왕의 창외 독려 명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계승범, 「임진왜란 초기 倡義명분과 조선왕조의 正體性」, 『서강인문논총』 47,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참조.)

고 할 수 있다. 박광옥이 친술한 통유문이 전하고 있지 않아 그가 제시한 창 의 명분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협력에 따라 창 의한 고경명이 효유문과 격서 등을 통해 창 의 명분을 ‘보군부(報君父)’와 ‘답주은(答主恩)’임을 제시하고, ‘의당사국(義當死國)’과 ‘한왕우간(扞王于艱)’을 내세워 백성을 고무했다는 점에서⁸⁴⁾ 박광옥도 이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 의 명분은 박광옥의 의병 활동이 의병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라 관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광옥은 단순히 의병 활동의 구심점으로 활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란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그는 상소문을 통해 전란 발발 이후에 도성이 이른 시기에 왜적에게 함락된 원인에 대해 “국가가 근래에 인화(人和)를 잃어 관병은 적에 대한 분노가 없고, 간악한 백성은 도리어 안내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은 전란 이전의 혼란했던 정국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전제된 것이었고, 전란을 맞아 흐트러진 민심이 전란 악화의 원인임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박광옥은 전란의 극복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왕업(王業)의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백성의 두려움을 마음에 두시어 민심의 화합(和合)을 천명(天命)을 잇는 근본으로 여기시고, 속히 경덕(敬德)을 행하는 것을 민심 화합의 근본으로 생각하소서! 근본부터 바르게 하여 백성과 다시 시작하고, 충실히 보좌하는 신하를 선발하여 해당 방면의 중임을 맡기면, 주자가 이른바 “진실로 회복에 뜻을 둔 사람은 결코 칼을 어루만지거나 손뼉을 치는 짓을 하지 않는다”⁸⁵⁾라고 한 것을 어찌 이를 믿지 않겠습니까?⁸⁶⁾

박광옥이 이처럼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여 민심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국난 극복의 근본 방책임을 거론한 것은 『맹자』에서 “천시(天時)가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가 인화(人和)만 못하다.”라는 것과 관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난을 당하여 아무리 적절한 시기를 맞이하고 환경의 이로움이 갖추어지더라도 백성의 신뢰와 유대가 전제되지 않으며, 국난 극복은 난망하다는 것이 박광옥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문무의 재주와 지혜를 겸비한 신하의 선발, 도망한 자의 소환을 통한 군진(軍陣)의 재정비에 앞서 민심의 화합을 위해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질 신하의 파견을 제안하여 왕의 교화가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심의 화합이 ‘국가를 어려움에서 구제하고 태평을 회복하는 과업’의 기초임을 거듭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박광옥은 평생토록 추구했던 의리를 충의로 전환하여 국난 극복을 위한 의병 활동의 구심점으로 활약하였을 뿐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한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박광옥이 펼친 의병 활동의 밑바탕에는 호남 사림을 비롯한 사림파의 위국망신(爲國忘身)이라는 의리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고, 일반이 기억하는 박광옥의 의병 활동은 의리 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84) 계승범, 앞의 논문, 174~175쪽 참조

85) 『朱子大全』 卷11, 「戊申封事」, “蓋所謂善易者不言易, 而真有志於恢復者, 果不在於撫劍抵掌之間也.”

86) 『懷齋遺集』 卷2, 9b, 「壬辰行在所上疏」.

4. 맺음말

홍직필은 『회재집서』의 첫 부분에서 박광옥의 행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군주의 어려움에 달려가는 것은 충(忠)이요, 국사(國事)를 하다 죽는 것은 의(義)이니, 충과 의에 죽는다면 또한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라고 하였다. 또한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순절(殉節)이란 진실로 그 의리에 합당한 것이니, 사나이가 어찌 그 죽음을 아까워하겠는가. 자신의 죽음이 만일 아름다움을 얻는다면, 선비는 자신의 생명에 애착을 갖지 않고 신하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⁸⁷⁾

이 언급은 박광옥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의(忠義)였음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홍직필은 박광옥을 “학문이 기절(氣節)에 가려졌는데, 기절이 있지 않았다면 또한 어떻게 학문의 참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가?”라고 하여 박광옥은 학문과 실천 양면을 모두 갖춘 문인이라 평가하였다.⁸⁸⁾ 이러한 평가는 곧 박광옥은 의리에 기반한 학문을 갖추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분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의인(義人)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광옥은 사회기에 구체화한 호남 사람의 의리 정신을 계승한 16세기의 대표적인 호남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위기지학이자 의리지학으로서 성리학에 뜻을 두고 특정한 스승 아래에서 학문을 익히는 대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 나갔고, 의리 정신에 투철한 호남의 선후배 및 동료 사람과의 폭넓은 학문 교유를 통해 성리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사람 정신을 이어받았다. 젊은 시절부터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천적 면모를 부각하며 의리 정신을 실천하고자 한 박광옥은 40대 중반 이후에 관직에 나아가 보다 명증하게 의리에 입각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수기(修己)에 기반한 의리의 실현과 공론에 입각한 올바른 정치 실천이 그의 지향이었으며, 이러한 그의 실천적 지향은 노년에 이르러 발발한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으로 명증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사람 정치가 본격화하는 선조 대에 사환을 시작하여 언제나 올곧은 관료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사람의 개혁 정치에 동참하여 향촌 교육과 교화의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공론에 입각한 정치의 실현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이러한 그의 관직 생활은 임진왜란을 맞아서 의병 활동이라는 충의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껏 의병 활동가로만 인식되고, 그의 사후에 의병 활동에만 초점이 맞추어 추송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를 단순히 의병 활동가로만 인식하는 것은 박광옥의 삶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한 단면에만 주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광옥은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 활동가로만 이해되기보다는 의리 정신을 기반으로 한 호남 사람의 대표 인물 중 한 사람이자 개혁을 주도한 사람 정치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관료로 기억될 필요가 있고, 향후 그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⁸⁹⁾

87) 『梅山集』 卷27, 37a~b, 「懷齋集序」.

88) 『梅山集』 卷27, 39a, 「懷齋集序」.

89) 자료의 한계라는 원천적인 문제로 인해 박광옥의 총체적인 면모를 상세히 살필 수 없는 것이 연구 한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교유 인사들의 문집을 비롯하여 미발굴 자료가 보완된다면, 현재보다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朴光玉, 『懷齋遺集』.
奇大升, 『高峯別集』.
金麟厚, 『河西集』.
金長生, 『沙溪全書』.
盧 禎, 『玉溪集』.
柳希春, 『眉巖集』.
李 珥, 『栗谷全書』.
李 恒, 『一齋集』.
林 泳, 『滄溪集』.
吳道一, 『西坡集』.
丁 煥, 『游軒集』.
洪直弼, 『梅山集』.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朱子大全』.

벽진서원보존회 편, 『(증보 국역) 회재유집』, 도서출판 대학서림, 2026.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북도지회, 『전북의 향교와 서원』, 신아출판사, 2011.

강문식, 「임진왜란기 영·호남의병활동의비교」, 『남명학』 16, 남명학연구원, 2011.
계승범, 「임진왜란 초기 倡義명분과 조선왕조의 正體性」, 『서강인문논총』 47,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김경호, 「학교모범에 나타난 율곡의 교육사상」, 『율곡사상연구』 6, 율곡학회, 2003.
金盛祐, 「선조대 사림파의 정국 장악과 개혁 노선의 충돌」,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김용현, 「조선전기 사림파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국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11.
김정신, 「조선전기 향교의 정치·사회적 성격과 쇠퇴 원인」, 『중원문화연구』 13,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0.
신창호, 「高等教育機關으로서 朝鮮時代 鄕校의 教育理念과 役割」, 『東洋古典研究』 40, 동양고전학회, 2010.
안외순,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학교모범(學校模範)』에 나타난 고등교육 정책 - 정치와 교육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동방학』 33,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5.
이정철, 「선조 대 ‘동서분당’ 전개의 초기 양상」, 『民族文化』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 「선조 대 당쟁의 원인과 전개 양상」, 『藏書閣』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장숙필, 「16세기 유학적 수양론과 경세론의 연관 구조」, 『동양철학』 19, 한국동양철학회, 2003.
주운진, 「流配詩에 나타난 游軒 丁煥의 의식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주)미디어한국학, 한국학종합DB 홈페이지 (<https://db.mkstudy.com/>)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홈페이지 (<http://gjstory.or.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 (<https://db.itkc.or.kr/>)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회재 박광옥의 학문과 실천, 그리고 공공성의 현대적 의미

[종합토론]

- 좌 장 : 김 경 호(전남대학교)
- 토론자 : 박 종 우(고려대학교)
정 수 환(국립금오공과대학교)
안 동 교(한국학호남진흥원)
이 승 용(국립공주대학교)



『회재 박광옥 한시에 나타난 교유의 형상화와 그 의미』 토론문

박종우(고려대)

1.

박명희 선생님의 발표 논문 『회재 박광옥 한시에 나타난 교유의 형상화와 그 의미』는 임진왜란 시기 호남 의병을 주도했던 회재 선생의 인적 네트워크를 그의 한시를 통해 입체적으로 복원해 낸 연구입니다. 특히, 문학적 교유가 의병 활동이라는 역사적 실천의 기반이 되었음을 논증한 점은 본 논문의 탁월한 성과입니다. 본 토론자는 회재 선생의 한시 작품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지만, 선생님만큼의 깊이 있는 이해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던 터라 이 연구가 많은 공부가 되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다만,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한시 연구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문학적 형상화'의 적용 문제와 아울러 두 가지 궁금한 점을 제시하며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본 논문은 제3장에서 '교유의 시적 형상화 양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서술을 살펴보면, 한시를 시학적(詩學的) 대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전기적 사실을 입증하는 사료(史料)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문학적 형상화'라는 용어와 서술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학 연구에서 '형상화(figuration)'란 대상이나 경험이 작가의 의식을 거쳐 비유, 상징, 심상, 운율 등의 문학적 장치를 통해 예술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났다'는 사실관계의 복원에 주력하며, '이러한 만남이 시로 형상화되었다'고 반복적으로 결론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학적 형상화를 작품 분석의 도구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자연물[경물(景物)]이나 수사법이 우정과 애도의 깊이를 어떻게 감각적으로 구축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미학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당대 호남 지역 사람들의 교유시[창화(唱和), 증답(贈答), 만시(挽詩) 등]의 보편적인 경향과 비교할 때, 회재 선생의 한시만이 보여주는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정서 표출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39세 이전 회재 선생의 초기 시 작품의 상당수가 산일(散逸)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셨습니다. 현전하는 중후기 작품만으로 그의 인적 네트워크와 교유 형상화 양상을 온전히 일반화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상의 맹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회재 박광옥의 관직 생활과 인적 네트워크” 토론문

정수환(국립금오공과대학교)

박광옥(1526~1593)은 조선 전환기로 볼 수 있는 16세기 말에 활동한 지역의 대표적 지식인이다. 일찍이 이 인물 연구는 임진전쟁에서의 의병 활약상, 지역사회 교화와 성리학 지식인으로서의 행보 그리고 시문과 연계한 문학과 학문 세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도 그가 16세기 말 지역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폈다. 내용은 인적 네트워크와 관직생활을 추적하여 좀 더 입체적인 인물 묘사를 시도한 차별점이 있다.

연구성과도 입체적이며 두텁게 박광옥과 그가 살았던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 먼저, 임진전쟁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기반에 있다고 밝혔다. 음성박씨를 중심으로 해평윤씨(외가)와 풍천노씨, 나주임씨 등 지역 대표 가문과 혈연, 학연으로 얹혀 있음을 확인했다. 학연으로는 정황과 연결될 높은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리고 생진시 입격 뒤 지역에서 향약, 서당, 향교 중수 등과 같은 성리학적 교화 노력을 전개했다. 끝으로 선조 이후 사환활동에서 사마지 동방과의 교유 등의 모습을 구체화 했다. 이처럼, 이 연구는 16세기 말 전환기 조선의 실상을 박광옥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접근하면서 호남지역의 특징을 규명한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 지식인과 지역사회 연구는 특정 시기와 지역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했다. 이제, 조선사회의 여러 모습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이 연구는 앞으로 연구를 복돋우는 의미가 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토론의 임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분석의 대표 자료와 관련한 사료 비판 부분이다. 『회재유집』은 박광옥을 이해 할 수 있는 대표적 사료이다. 『회재집』으로 알려진 이 문집은 1799년 유집으로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광옥의 후손과 후학이 편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간행 과정에서 혹은 문집에 남은 유고의 수습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 본다. 『회재유집』의 간행과 내용 구성에서 약 200년의 시차를 가려내기 혹은 극복하기 위한 분석의 실마리가 있는지 궁금하다. 혹은 박광옥에 접근하면서 유의 및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2. 광주지역 음성박씨와 박광옥의 위치 그리고 호남지역 사족의 지형도와 관련해서입니다. 영남과 한양의 족보(아마도 『가첩』)를 참고하여 박광옥이 족보를 갖추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매우 이른 시기인 16세기 후반에 족보의 체계를 갖추고 서문도 그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광옥의 4대조 박계양이 광주에 입향 혹은 정착한 것으로, 음성박씨는 조선 초기 광주에 입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박광옥은 자신의 계보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조부 이래의 과거와

사환을 발판으로 사위들을 지역의 유력자로 연대한 것이 하나의 배경일 것입니다. 유사경, 노진, 임협 등의 후손은 조선후기에도 여전한 광주, 남원을 포함한 일대의 유력 사족입니다. 16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에 형성한 음성박씨의 훈맥, 그로 연결한 학맥은 조선후기 호남지역 사족 지형도로 그대로 이어지는지요? 음성박씨의 훈맥이 조선후기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사족의 연결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박광옥의 교유활동 의미와 관련해서입니다. 박광옥의 학문형성과 지역사회 활동에서 주목할 인물은 정항입니다. 정항의 『유헌집』에 박광옥은 문인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정항의 문인으로 언급한 조종도, 이로 등의 인물이 눈에 띕니다. 영남의 인물들로 보입니다. 이들 문인들과 박광옥 후학/후손들과의 관계를 지역 사족의 동향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유헌집』 간행을 주도한 인물들과 간행 시기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대체로 16세기, 아래로는 17세기 전반까지 영남과 호남의 사림 교유는 매우 폭넓고 다양했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이 17세기 중엽 이후 후대의 인식에 따라 재편성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항과 박광옥의 당대 교유 모습과 전쟁 이후 후대의 인식의 괴리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요? 후대의 상황이 박광옥이 활동하던 시대를 그리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점과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4. 박광옥의 교유 인물의 범위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는 출사하기 전 지역교화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 유력 사족들과 교유가 있었습니다. 김인후, 박순, 기대승, 고경명 등은 그 시대 호남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호남’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명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 의식은 임진전쟁 이후 점차 증대하고, 이는 정치적 분기와 연결하면서 심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박광옥의 인적 네트워크를 보면 영남과의 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부사를 역임한 사실이나, 관료로서의 교유폭도 소과 동방들(동방계 등)의 내용을 볼 때 교유가 전국적이었다고 봅니다. 그의 교유 인물 중에 공간을 초월한 교유 내용을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안동 사림 구봉령의 사례 외에도 좀 더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1580년 사헌부 지평 이후부터 동서분당의 조짐이 나타나고 이이를 찾는 등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봉당이나 지역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있을까요?

5. 별도로 궁금한 내용입니다. “황산대첩비”건립 활동과 관련해서입니다. 박광옥은 1574년 운봉현감으로 4년동안 재임하면서 “황산대첩비”를 세웠습니다. 그의 이런 활동은 단순한 현감으로 행한 것이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 현감으로서 비를 세웠다면 중요한 역사 인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 설립 과정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덧붙여, 박광옥은 1568년 개산방죽(전평제)을 쌓고 수월당을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죽을 조성할

당시의 기록도 남아 있다면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자는 지방관으로서의 활동, 후자는 지역사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미가 남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16세기 호남지역 대표 지식인 중 한 명인 박광옥에 대한 입체적인 조명입니다. 내용은 조선후기 지역, 당색에 따른 구분과 해석 이라기보다, 공간을 초월한 조선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앞으로 박광옥처럼 다양성을 지닌 인물을 좀 더 발굴하면 조선시대 이해가 풍부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의 의리 정신과 그 실천」에 대한 토론

안동교(한국학호남진흥원)

박광옥(朴光玉, 1526~1593)의 문집 『회재유집(懷齋遺集)』은 사후에 온전히 전승되지 못하다가 약 200년이 지난 1799년(정조23)에야 겨우 방계 후손들의 노력으로 문집 형태를 갖추어 간행되었습니다. 이때 간행된 문집은 외손 나주임씨(羅州林氏) 가에서 보관해 온 시(詩) 중심의 초고본에 기반한 것이어서 박광옥의 유학 사상과 행적의 전체 면모를 조명하기에는 자료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이 발표문은 도학(道學)에 기초한 의리정신의 실천을 다양하게 간추려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발표 내용에 대부분 동의를 표하면서, 지엽적인 내용 몇 가지만 토론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는 박광옥의 사승(師承)관계를 다루면서, “박광옥은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인 유현(游軒) 정황(丁煥, 1512~1560)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의 종8대손인 박성일(朴性一, 1744~1804)이 정리한 「연보(年譜)」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회재유집』의 다른 부록 문자(附錄文字)에도 박광옥의 스승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박광옥이 문하에 입문하여 학문을 익혔던 시기의 정황이 처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박광옥의 스승을 정황으로 단정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다. 아마도 의리 정신에 투철했던 박광옥의 학문을 호남의 선배 사림과 연관 짓고자 했던 「연보」 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도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저 정황과 박광옥의 글에서 사제 관계를 상호 입증할 만한 용어나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이자 사위인 유사경(1556~1607)이 박광옥을 위해 기술한 글들, 예컨대 「임진년(1592)에 행재소로 올린 글 [壬辰行在所上疏]」, 「임인년(1602, 선조35)에 도내 선비들이 표창해 주기를 요청한 상소[壬寅道內儒士請旌褒上疏]」, 「임인년(1602)에 사당을 건립할 때 유생들이 순찰사에게 올린 글 [壬寅建祠時儒生上巡察使書]」, 「행장(行狀)」에 박광옥이 정황에게 배웠다는 구절이 전혀 없고, 「행장」에만 “겨우 7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애모(哀慕)의 정으로 통곡하면서 마치 어른처럼 3년상을 치러 고을 사람들이 탄복하며 남달리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큰형인 생원(生員) 광정(光鼎)은 성품이 근엄하고 중후하여 가르치고 일깨우는 데에 방도가 있었고, 공은 형을 섬기기를 아버지를 섬기듯이 하여 조금도 형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는 구절이 확인됩니다. 허목(許穆, 1596~1682)의 「묘표(墓表)」와 외현손 임영(林泳, 1649~1696)의 「시호를 청한 상소[請諡上疏]」에도 박광옥의 학통이나 사제 관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

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박광옥의 사승관계를 조광조 - 정황 계열에 무리하게 연결 시키기보다는, 어려서는 부형(父兄)들로부터 가학(家學)을 전수하고 성장해서는 유희춘, 박순, 양자징, 기대승, 고경명 등 호남 사림들과 교유하면서 학문의 폭을 넓혀간 것으로 이해함이 좋을 듯합니다.

2. 발표자는 ‘공론(公論)에 입각한 정치 실현’이라는 부분에서, 사헌부 지평 시절에 박광옥이 사헌부장령 정인홍과 함께 이조좌랑 이경중(李敬中, 1542~1585)을 “본래 학식이 없을 뿐 아니라 일컬을 만한 행실도 없으니 …… 하루라도 전형의 지위에 둘 수 없다.”고 탄핵한 것은 공론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태도이며 특정한 봉당의 정치적 이해를 바탕으로 탄핵을 주도한 바 아니라고 평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헌에서는 이경중 탄핵 사건이 단순히 이경중의 인품과 행실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정여립(鄭汝立)을 이조전랑에 추천하려는 당시의 정치적 동향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인의 급진파에서 정여립을 이조에 발탁하려고 적극 추천할 때 이조좌랑 이경중이 홀로 반대하자, 정인홍과 박광옥이 이경중을 공동으로 탄핵하여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탄핵의 이유로 이경중의 인품과 행실만 인용하고 저변에 깔린 정치적 의도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발표문에서 “상소문을 상주한 이후, 금산 전투에서 의병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접한 박광옥은 남평(南平) 현웅(玄雄)의 의병을 보내는 한편, 권율의 관군에게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처영(處英)의 승병(僧兵)을 파견하는 등 전황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펼쳐 나갔다.”고 하였는데, ‘남평 현웅(玄雄)의 의병’이라고 할 때 ‘현웅’이 지역의 별칭인지, 의병부대의 깃발 이름인지, 스님의 법명인지, 그 의미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발표문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박광옥의 제자 박희수(朴希壽)와 관련된 용어 한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송내희(宋來熙, 1791~1867)가 작성한 「현령 박공(박희수) 묘갈명[縣令朴公墓碣銘]」을 보면 “공은 조금 커서 회재 박광옥, 제봉 고경명에게 수업하여 기대하는 바가 매우 컸다. 임진왜란에 회재·제봉 및 재종형 박대수(朴大壽), 재종질 박지효(朴之孝)와 함께 고을 사람들을 선도하여 광주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제봉을 좌도대장(左道大將)으로 추대하였으며 회재를 맹주(盟主)로 추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회재에게 실제로 맹주(盟主)라는 호칭을 붙였는지, 좌도대장과 맹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1592년 11월에 장성 남문에서 창의하여 초단(草壇)을 설치하고 김경수(金景壽)를 맹주(盟主)로 추대하고 김제민(金齊閔)을 의병장으로 삼은 사실과 유사한 것인지를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4. 발표문 속에 사실관계를 착각한 곳이 몇 군데 보입니다. 다시 고증하여 수정했으면 합니다.

- 발표문에서 “박광옥 가문이 광주 지역에 세거하게 된 것은 5대조인 박계양(朴繼陽)이 광주 지역의 주요 가문 중 하나인 영광김씨(靈光金氏) 가문과 혼맥으로 이어진 것이 계기였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영광김씨’는 ‘광산김씨(光山金氏)’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박계양의 처는 광산김씨 현령(縣令) 김유보(金惟寶)의 딸입니다.

- 발표문에서 호남지역의 문인들을 언급하며 “풍영(豐咏) 김언거(金彦据, 1503~1584), 이소재 이중호 ……”라고 하였는데, ‘풍영(豐咏)’은 ‘풍영(風詠)’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발표문에서 “광주 목사로 부임한 유성룡의 족질인 유경심을 도와 광주 향교(光州 鄕校)를 재건할 정도로 남인파도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고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유성룡의 족질’은 ‘유성룡의 족속’이라고 고쳐야 합니다.

종합 토론문

이승용(국립공주대학교)

[발표문1] 「회재 박광옥 한시에 나타난 교유의 형상화와 그 의미」에 대한 토론문

이 발표문은 『회재유집』에 수록된 한시 가운데 교유시를 선별하여 박광옥의 시적 교유망의 유형과 특징을 밝히고, 교유 관계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발표자는 박광옥의 교유망을 동년과 학우 등 학문적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초기 교유망, 김언거·고경명 등 호남 사림 및 문인과의 교유망, 이유근·김극효 등 관료 생활에서 형성된 교유망, 송응실·이응기 등 유람 과정에서 확장된 교유망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또한 교유의 시적 형상화 양상을 ‘의례적 창화’, ‘우정과 정감’, ‘애도와 기억’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폈다.

이어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이러한 교유시가 박광옥의 문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파에 한정되지 않은 사림적 연대를 보여주며, 전란 이전에 형성된 교유망이 임진왜란시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는 인적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본 발표문은 시제·소서·본문과 부록 자료를 종합하여 92제 138수의 교유시를 선별하고, 이를 통해 박광옥의 문학적 관계망을 구체적으로 복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발표문의 문제의식과 성과에 공감하면서, 논지를 더욱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질문 1. 발표문의 중심 논제는 ‘교유의 시적 형상화와 그 의미’이지만, 제3장의 일부 작품을 제외하면 교유 유형을 분류하고 창작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는 데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이미지·대구·전고·정서 구조 등 시적 장치에 대한 분석 없이 교유의 ‘시적 형상화’를 충분히 밝혔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박광옥 교유시만의 시적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2. 발표문은 제3장을 ‘의례적 창화’, ‘우정과 정감’, ‘애도와 기억의 형상화’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례적 창화’는 교유 상황과 작시 방식을, ‘우정과 정감’과 ‘애도와 기억’은 작품의 정서와 주제를 기준으로 한 항목이므로, 서로 다른 층위의 범주를 병렬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답은 시를 주고받는 교유 행위이고 차운은 상대 시의 운자를 따르는 작시 방식이므로 서로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문에서 증답과 차운을 구분한 기준은 무엇이며, 『회재유집』에는 차운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증답시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발표 후에 추가 질문이나 공통 질문 예정입니다.

[발표문2] 「회재 박광옥의 관직 생활과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토론문

이 발표문은 박광옥이 임진왜란 이전부터 광주를 넘어 호남을 대표하는 사족이자 학문적·정치적 관계망을 갖춘 관료로 성장하였음을 밝히고자 한 연구입니다.

발표자는 박광옥의 인적 네트워크가 부계 친족과 혼맥을 통한 가계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으며, 유헌 정황에게 수학했다는 기록을 통해 기묘사림의 학문적 전통과 연결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박광옥의 관계망이 향촌 활동과 호남 유현들과의 교유를 거쳐 중앙 관료 사회로 확장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중앙 관계망은 문과 동방보다 사마시 동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혼맥·학맥·향촌 교유와 중앙 관계망이 임진왜란시 호남 의병 활동의 사회적 기반으로 기능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연구는 박광옥을 의병 활동가나 향촌 유현으로 조명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중앙 관료사회를 연결한 16세기 호남의 사족이자 학자 관료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생애와 활동을 인적 관계망의 형성·확장 과정으로 파악하고, 임진왜란시의 활동이 전란 이전부터 축적된 사회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제시한 점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표문의 문제의식과 성과에 공감하면서, 논지를 더욱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 1. 발표문은 제1장 제2절의 제목을 「학문적 토대: 유헌 정황과 기묘사림 학맥의 계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연보』에 기록된 어린 시절의 짧은 수학 이외에는 직접적인 사승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정황과의 관계를 박광옥의 초기 학문 형성에 영향을 준 하나의 계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묘사림 학맥의 계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상과 실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약 후학 강학이나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이러한 활동은 당시 일반 사람에게도 널리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묘사림 학맥의 특징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발표문은 박광옥의 전란 이전 인적 네트워크가 의병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지만, 중앙 관계망의 핵심으로 제시한 사마시 동방 가운데 의병 참여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발표문에서 의병 활동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는 인물도 김천일·고경명·변사정·최경운과 문인인 유사경·정운룡·박희수 등 일부에 한정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인물의 참여만으로 박광옥의 인적 네트워크 전반을 의병 활동의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울러 이 관계망이 의병 모집·연락·군량 조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발표 후에 추가 질문이나 공통 질문 예정입니다.

[발표문3] 「회재 박광옥의 의리 정신과 그 실천」에 대한 토론문

이 발표문은 박광옥의 삶을 검토하여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의리 정신과 그 실천적 면모를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발표자는 박광옥의 학문과 의리 정신이 정황을 통한 직접적인 학맥 전수라기보다, 호남 유현들과의 폭넓은 교유, 성리학에 대한 자기 연찬, 『소학』·『주자가례』의 실천과 후학 강학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의리 정신의 현실적 전개 양상을 낭천제를 통한 관직 진출에서 시작하여 지방관의 향촌 교화, 연관으로서의 공론 정치, 임진왜란기의 충의 실천으로 파악한다.

이 연구는 박광옥의 향촌 활동·관직 생활·의병 활동을 개별적인 업적이 아니라, 도학적 수양에서 정치적 실천과 충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정황과의 직접적인 사승 관계를 재검토하고, 자기 연찬과 폭넓은 학문적 교유를 학문 형성의 주요 경로로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발표문의 문제의식과 성과에 공감하면서, 논지를 더욱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한다.

질문 1. 박광옥은 낭천제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추천된 인물인데, 그에 따른 관직 진출을 도학적 의리의 실천으로 본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약 내시교관에 발탁되어 선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성실한 직무 수행을 의리 정신의 실천으로 평가한다면,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2. 발표문의 ‘의리 정신과 그 실천’이라는 논제는 홍직필의 후대 평가를 수용한 것인지, 박광옥의 당대 자료를 통해 독자적으로 도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리지학(性理之學)과 의리지학(義理之學)의 개념적 경계와 성리학적 연찬이 의리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3. 발표 후에 추가 질문이나 공통 질문 예정입니다.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회재 박광옥의 학문과 실천, 그리고 공공성의 현대적 의미

발행일 : 2026년 8월 25일

발행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 Fax 062-941-6705 <https://www.hiks.or.kr>

본 책자는 2026년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으로 여기에 실린 글과 도판은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